

JUNE 2013

월간

Gardenin

SALE COUPON

온라인으로
테르메덴 50% 할인권



Season Item

세계는
녹색 꽃에
빠지다

Season Theme

이선영의 베란다
꽃밭 관리

Gardening Planner

6월 꽃대 제거
생울타리 전정
삼색조팝 모양잡기

Monthly Gardening

- ✓ 정원 잡초 제거
- ✓ 병해충 관리
- ✓ 장마 대비 점검



10,000원

CHECK LIST

6월 텃밭 관리
과채류 지주대 세우기



한국형 새로운 식물, 그래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Coreuri



2013년 히트 품종
4계절 꽃피는 코레우리
이제 시장에서 만나십시오

우리꽃이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는 새로운 식물은
이제 한국의 전문농가들이 고양에서 생산합니다.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전삼미로 942-87
전화: 031)634-7990, 팩스: 031)634-7991



June 2013 Garden in



Contents

- | | | | |
|----|--|----|--|
| 6 |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꽃잔치의 정점을 찍는 6월 정원이 시끄럽다 | 26 | 박공영의 이달의 가든 관리
정원의 침략자 잡초 제거 및 병해충, 배수로 관리 필요 |
| 12 | 순수 미인 클레마티스
6월 정원은 그녀의 마력에 빠진다 | 30 | 채소도 유행에 민감하다
채소 뒷밭에 불고 있는 미니 & 컬러 '기능성 UP' |
| 15 | 아름다운 상식, 재미있는 가든
연못에 흙 없이 자갈로 식물을 심는다 | 34 | 토종 이야기
신주처럼 모서졌던 한국 토종 감자 |
| 16 | 세계는 녹색꽃에 빠진다
선진국일수록 화형은 작고 파스텔 톤 꽃 선호 | 36 | 이달의 텃밭 농사 길잡이
과채류 지주대 세우기 & 유인하기 |
| 18 | 베란다 꽃밭의 6월 관리
햇빛량 조절 및 병충해 철저한 예방이 중요 | 38 | 파리 모기 초파리의 포식자
식충식물, 일반 화초보다 키우기 쉽다 |
| 22 | 순결한 아름다움 나리
나리, 너는 누구냐 '나리에 대한 모든 것' | 41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번식 이야기
간단한 삽목만으로 이루는 육종가의 꿈 |
| 24 | 시즌 아이템 유실수 베리
집에서 키우니 화려한 웰빙 식단이 완성되다 | 42 | 품종 보호 스토리
신품종 보호가 필요하다. 농진청 개발 신품종 화훼류 |

June 2013 Garden in



58



68



42



72



75



84



88



90



COVER

Clematis

고상하고 순결한 고결(高潔)이라는 꽃말을 가진 클레마티스. 꽃을 멀리서 볼 때는 가느다란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사뭇 큰 크기에 놀란다. 클레마티스는 덩굴성 줄기가 가늘고 단단해 정원에서는 보통 지주를 만들어 주거나 망을 세워 유인하기도 한다.

Contents

- 44 클레오파트라& 네로황제의 Rosehollic
고양 국제꽃박람회에서 만난 신품종 장미
- 46 식물 건강과 병해충
실내 식물의 건강 유지 비법 5가지
- 48 계란(卵)과 유(油)의 만남
살충 살균 효과에 탁월한 친환경 난황유 만들기
- 50 정원 속 작은 생명체 다육식물 키우기
고온과 다습의 시기 통풍이 답이다
- 52 3만원으로 리스 만들기
다육식물을 이용한 스페셜 미니 가드닝 DIY
- 54 액자정원
우리가 깨진 한 액자로 정원을 만든다
- 56 아름다운 도시농부가 되는 방법
초보 가드너 길라잡이, 나도 키친가든 꾸며볼까
- 58 내 방에서 기르는 채소
재배키트 하나면 나도 도시농부
- 60 생활의 재발견
드림통이나 바구니도 화분이 된다
- 62 도시, 정원을 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도심속 숨은 정원을 찾다
- 66 청소년 농부 모종심기편
오늘은 모종 심는 날, 청소년 농부가 되다
- 68 맞춤형 재배백
채소 재배가 쉬워진다. 정원의 필수 아이템
- 70 약이 되는 잡초 음식 뽕말기
뽕을 만들어 빵에 발라 먹어도 좋은 잡초
- 72 찾아가는 정원 톨안의 정원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톨 안의 정원' 송주호

- 75 프랑스 몽뜨식물원
오랜 역사가 녹아드는 세계적 생태 식물원
- 78 초록 숲에서 온 메시지
충남 청양의 고운식물원,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 82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첨단 가드닝 기술과 예술적 조형미의 정점을 보여준다
- 84 가든 카페 톨
동화처럼 한여름 밤의 꿈이 이루어진다
- 86 열무 김치 & 새싹비빔밥
베란다 채소를 이용해 김치 만들기
- 88 2013 장미 축제 정보
전국을 지금 '꽃의 여왕' 장미의 바다에 빠진다
- 90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
도시농부를 위한 가드닝 교육의 메카로 부상
- 92 아기 노루의 귀를 닮은 노루귀
동그랗게 말리고 보송보송 털이 사랑스러워...
- 94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
생태적 도시인이 되면 도시 생활도 충분히 즐겁다
- 97 독자 다이어리 - 김민정, 김지태
여러분도 가드닝 하세요
- 100 플랜트 사이언스
표피가 변해 자신을 보호하는 식물들
- 102 Ask our experts Q&A
'궁금해요' 독자, 전문가에게 답을 묻다
- 105 뉴스
화분의 물 체크, LED가 안내한다
- 108 실속형 주거 농막
고급 별장 대신 농지의 터줏대감이 되고 있다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1

본 코너는 매월 이전 우리꽃 농장 정원의 변화를 독자들과 나누고, 실용적인 관리 팁, 그리고 품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6월의 정원은 가장 소란스럽다

누가 먼저 말 것도 없이 키를 뽐내고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색이란 색은 모두 정원이라는 캔버스에 그려진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품을 잡는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가장 많은 종류의 꽃이 초여름의 날씨인 5월 말에서 6월에 개화한다. 특히 장마가 오기 전에 꽃을 피워야 무리 없이 수분,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꽃의 농장원에도 6월이 되면 어김없이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게 된다. 약 1000m²에 조성된 정원에 적어도 약 300종이 넘는 정원 식물이 심겨져 있다. 이들은 저마다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에 따라 연중 피고 지며 어떤 때는 강렬하게 또 어떤 때는 따뜻하게 꽃을 피운다. 그리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여름에는 많은 종류의 보라색과 하양의 꽃색이 피어나도록 설계 되었다. 가을에는 좀 더 가을적인 느낌이 어울릴 것이다.



1-1

5월과 6월의 정원은 거의 10일 단위로 느낌이 바뀐다. 물론 혼합 혼성식재를 적용하여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사진 1)은 정원의 입구지역인데 앞쪽에는 연초록색, 혹은 연두색의 알케밀라의 작은 꽃과 보라색의 사루비아 '블루'의 파랑색과 어울린 토플 '비단'의 강렬함이 아름답다. 이제 막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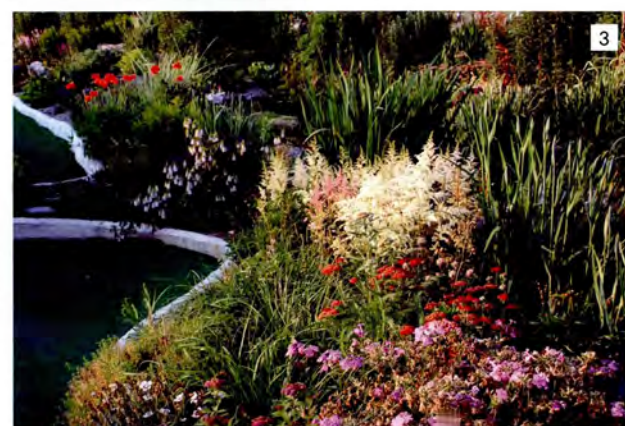
화를 준비하는 아스틸베의 여러 종류와 다음 주를 기대해도 좋은 시원한 위풍의 평의비름의 하얀 자태가 시원한 여름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 1-1)처럼 비슷하지만 개화기가 다른 품종을 적용함으로써 분위기를 연속적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는데 사루비아 '블루' 왼쪽에 이미 꽃이 진 사루비아 '비올라'의 옅은의 영광이 아직도 곳곳하다.

가려진 휴케라의 적자색의 아름다운 잎도 연상할 수 있겠다. 알케밀라의 노란 연두색이 바탕이 되고 각종의 화색이 어우러진 모습이 매우 돋보인다.

정원에 있어 작은 연못은 모두의 희망이다. 물은 꽃에게나 사람에게나 모두 생명수이다. 그래서 정원에서의 물은 경관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또 정원에 있어 가장 동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들어온 사금석으로 만들어진 큰 뿔뿔을 겹겹이 쌓아올려 만든 폭포는 소리와 함께 그 정감이 특별하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암석을 이용한 폭포나 정리된 틀을 이용한 폭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풍과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주변의 식물 적용이 그 마지막 완성을 제

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스틸베의 하얀 여름과 분홍의 후룩스 '봄바람'의 만개가 아름답다. (사진 2-1)은 연두색의 알케밀라와 황금조팝 등이 어우러진 다양한 모습에서 더욱 생태적인 느낌이 강조되었다. 이미 꽃이진 부채꽃의 자태와 지금 피어난 아스틸베의 아름다운 움직임에 하얀 폭포수의 포말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정겹고도 고급스럽다(사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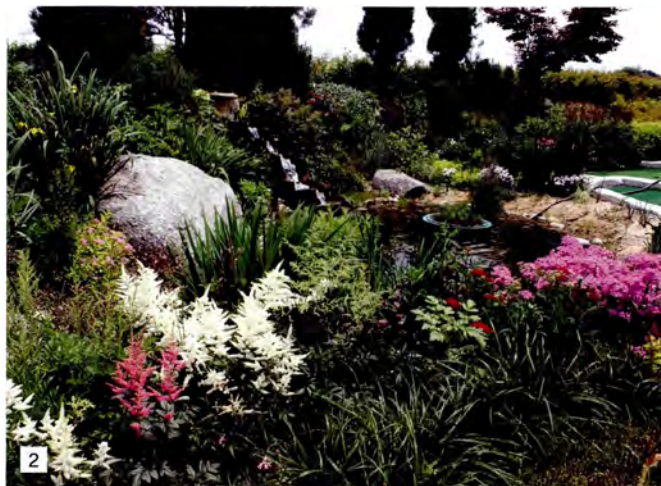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에서는 어려움이 따르지 만 물의 정화 능력과 정원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계류의 적용이 필요하다. 수변식물은 물기가 많은 토양에 심어주는 게 양호하므로 연못을 만들 때 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정원에서 계류는 방수라이너를 이용하거나 시멘트 등을 이용하므로 쉽게 건조해를 받을 수 있다.



3

이것처럼 정원에 있어 일년생이나 이년생 식물을 적용하는 것은 정원의 경관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계절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간혹 빠지기 쉬운 속근성 식물과 일년생 식물을 너무 구분 혹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 정원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사진 3).

보행로를 따라 보라색의 사루비아와 아이리스의 반복 그리고 또 다른 여름식물들의 반복이 있어야 다양하고 많은 꽃이 연중 그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눈은 대형의 군락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작은 공간에서의 잔잔한 아름다움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사진 3-1).



2



2-3



〈사진 3-3〉과 같이 동선에는 열을 이루어 식재해도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 계속된 점식 반복이 있을 때 그 열식이 돋보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줄 아스틸베 ‘글로리아’ 뒤편에 반복되어 이제 막 보라색의 꽃을 피우는 에린지움은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매우 고집스러운 식물로 건조하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식재하면 오랫동안 볼 수 있지만 습기가 많거나 토양이 너무 양호한 곳은 붉은 뿌리가 썩어 없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 식물이다.

거친 가시가 매력적이다. 〈사진 3-4〉의 열식 뒤에도 조팝나무 종류가 스크린처럼 따라 오고 조팝류 사이에 꽃백합을 심어 새로운 감각 이벤트를 준비할 수도 있다. 많은 관목은 정원을 안정시키거나 동선의 유도, 경계 등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특정 계절 외에는 꽃이 나 열매의 감상이 어렵고 단조로울 수 있다.

이런 곳에 수직의 자람을 보이는 구근류와 식물들을 배치하여 적용하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는데 약간의 전문적인 이론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꽃 정원엔 아리가든(Alpine Rock

Island: 우리꽃에서 개발한 한국형 암석가든)이라는 가든 테마도 조성되어 있는데 이 ARI가든의 가장 큰 특성은 식물하나 하나의 품과 특성이 매우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원의 식재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식의 정원인데 바위와 자갈 그리고 한 포기씩 매우 다양한 식물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계절의 변화가 매우 다채롭다 〈사진 4〉와 〈사진 4-1〉은 10일의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를 촬영한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6월의 우리 정원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물론 ARI가든은 식물개체간의 여유로운 간격을 두고 매우 다양한 식물을 적용함으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빠른 계절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

이제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빠져나오는 공간이다. 우리꽃의 정원은 입구와 출구가 따로 나누어져 있다. 골프장을 연상하면 된다.

입구를 통해서 진입하면 소나무와 혼합식재의 공간이 나오고 잔디밭이 다음순서에 그리고 그라스 원을 지나면 작은 연못과 음지에 강한 식물들이 건물에 만들어 낸 공간을 확장한 얼굴로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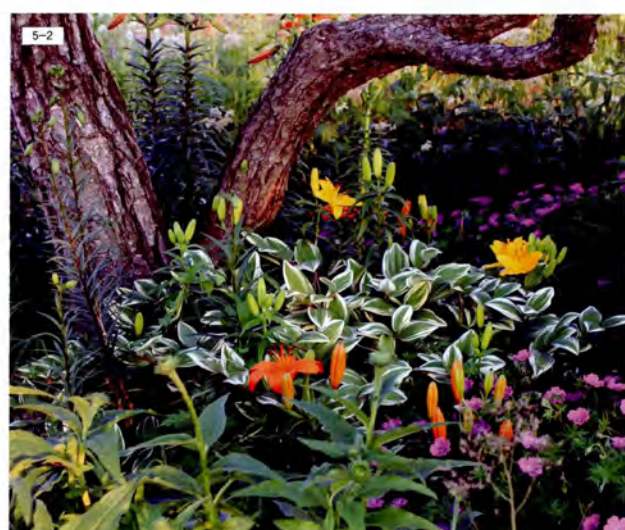
나면 길게 연결된 계류를 따라 왜성의 꽃목송아 정원이 나온다.

잠시 후 붉은 잎이나 꽃을 피우는 초콜릿정원을 넘어서면 역사의 너울대는 가을이 좋은 출구가 맞이한다. 소나무 아래의 혼합식재는 입구에서 본 그 소나무이다. 하지만 그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사진 5).

〈사진 5-1〉은 입구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그래서 이 정원은 입구에서 보는 느낌과 출구에서 느끼는 모습이 다르다. 각 방향에 따른 제 각각의 정원의 모습이 일만 가지다. 일반적으로 소나무 아래는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꽃 정원의 소나무 아래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다(사진 5-2). 특히 연중 안정적인 그 생육의 비밀은 빛과 토양 관리 그리고 적절한 식물의 적용에 있다. 다음 기회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in](#)



우리꽃 정원에 피어나는 이달의 야생화



구름노도부주

금강애기리란초

쟁의다리

부지꽃 '탐'

털수염풀

노랑애기네시아

꽃백합

큰노도부주

속근천국

스텔라원주리

알케밀라

우복스 '볼바람'

에키네시아

사스타데이치 '슈프레임'

코레우리 *Coreuri*

코레우리는 *Coreopsis*의 우리꽃이 개발한 품종에 국내 원예종 이름으로 명명된 식물이다. 코레우리는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한성이 대체로 약한 *Coreopsis rosea*와 내한성이 매우 강한 *Coreopsis verticillata*가 있다. 두 품목군 모두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꽃'이 가장 많은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목이다. 햇볕을 매우 좋아하는 양지성 식물로 5월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장기 개화하는 특성으로 앞으로 매우 기대되는 품종이다. 참고로 *Coreopsis*의 원예품종인 코레우리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며 우리꽃의 허락 없이 무단 증식 판매할 수 없다.

로세아(*Coreopsis rosea*) 계통

내한성이 약하고, 5월 부터 11월까지 개화 지속



선샤인

왕카멜

틴티드 레드

우리드림 핑크

우리드림 레드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드림 오렌지

우리드림 화이트

버티실라타(*Coreopsis verticillata*) 계통

내한성이 매우 강하고, 5월 말부터 11월 서리가 내릴 때까지 개화 지속



노랑속근코스모스

레몬사탕

오렌지속근코스모스

파파야

애기노랑금계국

미스제이

큰꽃오아리(클레마티스) *Clematis*

우리나라의 큰꽃오아리는 이른 봄 산기슭 습기가 있는 활엽수 혹은 초원에서 꽃을 피운다. 그러나 대부분의 클레마티스는 6월에서 8월에 꽃을 피우고 종류와 작은 꽃을 가지는 품종들은 여름 혹은 가을에도 꽃을 피운다. 그 만큼 매우 다양한 종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포복형에서 기어오르는 형과 직립형 등 다양하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매우 좋은데 주로 문제되는 병으로 시들병이 있어 재배를 매우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품목과 다르게 식재시 약간 깊게 심는 것이 좋다. 또한 토양습도가 유지되도록 부엽토나 낙엽 등을 뿌리 주변에 덮어주는 것이 좋다.



마리아



프레지던트

헨리

빈셋

아스쿠

다블러

베터

나이키

도시시

줄카

카넷

태레사

카넷

노루오줌(아스틸베) *Astilbe*

노루오줌은 대표적인 정원식물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 북반구에 분포하는 식물이다. 대체로 내한성이 강하고 수변의 지역이나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개국의 물이나 활엽수 아래에 적응한다. 원예 종은 하양과 분홍 그리고 빨강계열의 색상을 가진다.



아스틸베 글로리아

아스틸베 퓨어



아스틸베 에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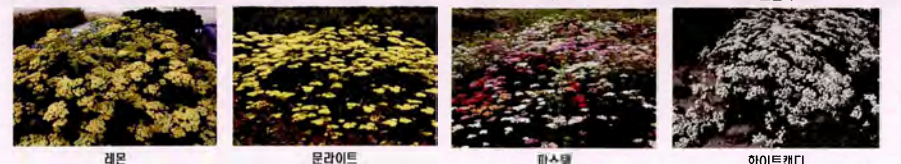
아스틸베 드림

아스틸베 미니스타

아스틸베 카민

톱풀(아킬레아) *Achillea*

톱풀은 북방계 식물로 8여종의 속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대체로 런너형과 포기형이 있고 키는 아주 작은 것부터 2m 이상되는 조유도 있다. 화색은 매우 다양한데 하양, 노랑, 붉은 계통이 대부분이다. 생명력이 매우 강하여 어떤 품종은 잡초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주의하여 적용한다. 대체로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특별히 가리지 않는 침략자로 변하기도 한다.



레몬

문라이트

파스텔

화이트캔디

Season Item

Clematis

■ 글·사진_윤태훈

클레마티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로 서양에서는 장미와 함께 정원의 필수요소로 여겨지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식물이다. 하지만 이 꽃을 한번이라도 본다면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매력을 지닌 꽃이다. 6월 정원을 이 매력적인 식물로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



구입정보

크기, 화형, 화색에 따라 다품종 판매

클레마티스는 봄에 어린 모종이 판매되거나 이맘때쯤 개화한 화분들이 판매가 된다. 가격은 당연히 개화한 화분이 비싸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린 모종은 개화 화분보다 싸지만 당년에 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어린 모종들은 거의 인터넷 판매만 되므로 직접 고르는 게 아까울 것이다.

그래도 인터넷 판매 회사는 소문에 굉장히 민감하기에 아주 약한 포기는 잘 오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도 될 듯하다. 개화한 화분은 줄기가 꺾이지 않고 아름다운 것으로 구입을 하면 된다. 클레마티스는 대단히 많은 품종들이 있

며 꽃 크기, 화형, 화색 등이 품종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므로 본인 눈에 예뻐보이는 품종을 구입하는 게 좋다. 꽃이 크면 그만큼 적게 피고, 꽃이 작은 품종은 다화성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화형 화색 꽃 크기가 다른 품종들을 조합하여 심어 두면 개화기때 한 품종만 심는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식재장소

덩굴성 식물, 울타리 밑이 가장 이상적

클레마티스는 덩굴성 품종이 많기 때문에 그물 형태의 울타리 밑에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장소가 없다면 지주를 세워 원하는 모양으로 유인하며 키워야 한다.



클레마티스

영명 Leather flower

학명 *Clematis* spp.

꽃말 고결, 아름다운 마음

클레마티스는 그리스어로 덩굴식물을 뜻하는데, 이 식물은 이름처럼 줄기가 덩굴상태로 옆으로 뻗어 놀랄 정도로 많은 수의 큰 꽃을 계속해서 피워 사람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무성한 덩굴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 '처녀의 휴식처'라는 별명을 갖고도 있다.

클레마티스는 우리나라에도 자생하는 종이 있는데, 으아리, 참으아리가 클레마티스속에 속한다. 특히 참으아리는 전북 번산반도에 자생지가 있는데, 군락지에 들어서면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꽃에서 향기가 진하게 난다. 현재 시판되는 클레마티스는 대부분 개량된 원예종으로 꽃이 무척 크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지만 향기가 없다.

봄에 신초 생육이 완성할 때 당년에 나온 새로운 가지에 눈을 2~3개씩 붙여 삼수를 만들어 심목한다. 장마철 습도가 높을 때 삼목해도 뿌리가 잘 내린다.

클레마티스는 햇볕을 좋아하므로 양지바른 곳에 심어야 하는데, 뿌리 부분은 고온 건조에 약한 편이므로 뿌리 부분을 낙엽 등으로 덮어줄 때 잘 된다.

뿌리는 굵고 잔뿌리가 적어 과습에 약한 편이므로 배수 좋은 땅에 심으면 좋다.

클레마티스는 노지에 심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베란다에서 화분으로도 가꿀 수도 있다. 이때 심는 화분이 크면 클수록 자태가 아름답다. 베란다에서 키울 시 남향에서는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외 직사광선이 잘 들어오지 않는 베란다에서는 꽃을 기대하기 힘들다.

비료 및 물주기

비료를 주면 더욱 아름답다

클레마티스는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비료를 적절히 주면 비료분을 잘 흡수하여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답한다.

특히 늦여름부터 가을에 꽃이 한번 더 피는 품종들은 봄꽃 못지 않은 가을 꽃을 피울 수 있다.

비료 주는 방법은 가을에 클레마티스가 심겨진 흙 표면에 퇴비를 넉넉히 뿌려준다. 이후 봄에 멀티코트 같은 지효성 비료를 묻어 주거나, 하이포넥스같이 질소 인산 칼륨이 다 들어있는 속효성 종합 비료를 물에 1000배로 타서 봄부터 가을까지 2~4주에 한 번 주면 된다.

전정법

개화 습성 및 전정법에 따라 분류

클레마티스는 개화 습성 및 전정법에 따라 전정군(Pruning group) 1,2,3으로 분류된다.

전정군1 전년도에 자란 1년 묵은 줄기에서 초봄에 개화한다. 전정을 거의 하지 않는 군으로 2~3월에 죽은 줄기 정도만 전정해 주면 되며 전정을 꼭 해야 한다면 적어도 지상으로부터 1m는 남겨두어야 한다. 이 전정군에는 소, 중륵의 다화성 품종이 많이 속해 있으며 대표적으로 상록성 중륵, 몬타나 계열 클레마티스가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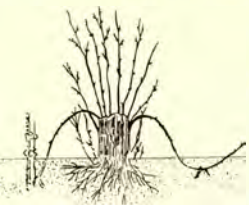
전정군2 전년도에 자란 1년 묵은 줄기에서 싹이 나와 봄에 꽃이 피고, 당년의 줄기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다시 꽃이 피기도 하는 군이다. 전정은 2~3월 사이에 줄기를 지면에서 1~1.5m 남기고 전정해 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품종들이 여기 속해 있으며 대륵종이 많다.

전정군3 새로 자란 가지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많은 꽃이 피는 군이다. 이 군에 속하는 품종들은 초봄에 줄기를 지면에서 30~60cm만 남기고 전정해 준다. 자람세가 좋은 품종들이 속해 있으므로 다소 짧게 전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중륵에 매우 다화성인 품종들이 이 군에 많이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아리도 이 군에 속해 있다.

전정법

초보자에게는 휘물이 번식법 유리

클레마티스는 꺾꽂이와 휘물로 번식이 가능하다. 꺾꽂이는 어느 정도 자라 단단한 1년 묵은 줄기를 2~30cm 정도 잘라 잎을 절반만 남긴 후 마사토에 꽂고 번গুলো에 두고 물을 자주 주며 관리하면 뿌리가 내린다. 휘물 이는 새로 자라나는 줄기를 땅으로 내려 마디 부분이 땅에 묻히게 한다면 뿌리가 내려 새 포기가 되는데 다음해 봄에 나온다. 휘물 이는 꺾꽂이보다 노후가 없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어 초보자들이 하기 좋은 번식법이다.



잘못된 전정

한 송이도 못 볼 수 있는 치명타

클레마티스는 품종 개수도 많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3가지로 분류하니 이런 전정 개념은 독자들에게 굉장히 헷갈릴 것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국내 클레마티스 판매처



는 어느 품종이 어느 전정군에 속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아 개인이 인터넷을 뒤져 전정군을 찾거나 패 힘이 든다. 그러므로 품종에 맞는 적절한 전정을 하려면 본인이 키우는 클레마티스가 전년도 줄기에서 꽃이 피는지, 올해 자란 줄기에서 꽃이 피는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

클레마티스는 품종에 맞지 않는 엉뚱한 전정을 할 경우, 운이 나쁘면 그 해에 꽃을 한 송이도 못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개화 습성을 잘 관찰하여 전년도 줄기에서 싹이 나와 꽃이 피는 품종은 전정군 2에 해당하는 전정을 해주고, 올해 나온 줄

기에서 꽃이 많이 피는 품종은 초봄에 전정군 3에 해당하는 전정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품종에 맞는 전정을 해준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관리

꽃이 피고난 후 맺힌 열매는 반드시 제거

꽃이 지고 나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꽃이 피고난 후 맺힌 열매를 모두 따주는 일이다. 클레마티스는 개화기엔 꽃이 끊임없이 피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작업이지만 내년에도 튼튼히 키우고 싶다면 이 모든 열매들이 꽃이 지고난 후 일주일 이내로 잘라주어야 한다.

개량종 클레마티스의 씨앗은 받아서 심어봤자 어미 포기의 특징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재미로 씨앗을 받아볼 독자라면 말리지 않겠지만 웬만하면 열매들은 보이는 족족 따내는 것을 추천한다. [in](#)



아름다운 상식 재미있는 가든

연못에 자갈로 식물 심기

이제 본격적인 물의 계절이 다가 오고 있다. 연못에 새로운 식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물의 생리를 잘 알아야 한다. 식물에 있어 토양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식물의 지지 작용일 것이다. 식물은 동물과 같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물론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거나 흙과 같이 줄기가 자라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식물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그 힘으로 줄기를 세우고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속에 있는 식물에게도 토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아니다'이다. 강가에는 모래땅도 있고 자갈밭도 있으며 혹은 바위만 있는 곳도 있

다. 자세히 보면 하천가의 거친 모래 위나 자갈이 대부분인 수변에도 다양한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리는 이미 수경재배라는 것을 통하여 식물을 토양에 심지 않고도 잘 자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연못에 흙을 넣지 않고도 식물이 잘 살아남는다면 흙탕물의 염려가 없다. 연못 청소나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다.

자갈과 모래 혹은 바위로 만들어진 정원의 연못에 식물을 심어 보자. 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바로 자갈을 이용해서 식물이 자리를 잡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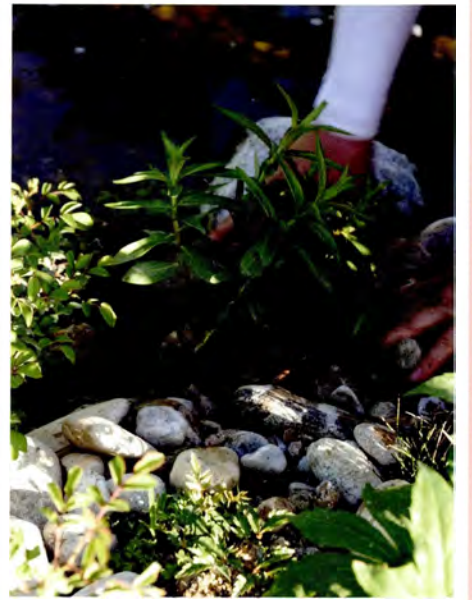
무엇이든 속도로 뿌리를 내려 번식하는 수중식물은 화분재로 물속에 넣어 돌로 고정하면 식물 생육이 안정되어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흙 없이 자갈만으로 식재. 반드시 손으로 식물을 잡아당겨 확인한다.

우선 선정된 수변식물 혹은 수중식물을 적당한 자리를 골라 자갈사이에 흙이 없는 식물의 뿌리를 조심스럽게 위치시키고 뽑히거나 식물이 물위로 떠오르지 않게 주변의 자갈을 이용해 눌러주면 성공이다. 이 때 심고난 후 반드시 손으로 식물체를 잡아당겨 뽑히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많은 수중의 식물들은 줄기를 뺀 뿌리를 내리고 번식하는 경우가 많다. 연꽃이나 부들, 수련 등 아주 빠르게 번식하는 식물들은 향이나 화분재로 물속에 넣어 돌로 눌러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번식을 억제하고, 식물이 생육하는 위치가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갈로 눌러놓은 뿌리는 왕성한 활동으로 물속에 녹아 있는 영양분을 쉽게 흡수 정화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연못 곤충들의 좋은 보금자리도 제공하게 된다. 완전히 활착된 식물을 뽑아보면 감자가 달려 나오듯 자갈을 가득 달고 나오게 됨을 알 수 있고 조금만 큰 포기를 형성하게 되면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뽑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물론 매년 가을과 이른 봄 줄기와 뿌리를 적당히 제거하는 것도 작은 연못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다. [in](#)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꽃의 진화

세계는 녹색 꽃에 빠지다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윤평섭

녹색 잎은 많은데 왜 녹색 꽃은 없을까. 자연에서 녹색으로 피는 꽃은 별로 없다. 있다고 하면 샷가나물이나 천남성같이 꽃받침이나 포엽이 꽃잎처럼 피는 식물들이 간혹 있다. 대부분의 꽃은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는 빨강이나 노랑, 분홍, 흰색 꽃이 대부분이다. 이유 중에 하나는 벌과 나비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하여 후대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색들은 눈에 잘 띄면서 화려한 자태를 뽐낼 수 있는 색들이다. 명도와 채도가 낮고 짙은 청색 계열이나 암갈색 계열, 검정색 계열, 진청보라색 계열들의 꽃은 후대를

계승하는 수단으로서 벌과 나비가 잘 보지 못할 것 같은 것이 최소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상상초월, 육종가들 각양각색의 꽃색 육종

그러나 인간의 지능은 경제 발전과 고도화된 문화생활로 인간에게 많은 욕구를 가지게 하였고 자연에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꽃 색을 가진 꽃들을 보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아마도 원시인들은 자연에서 피는 꽃들만



으로도 만족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자유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화훼 육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류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조사해 보니 자연에서 볼 수 없는 꽃 색을 육종해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센 탄타우사에서는 녹색계열의 장미인 그린티장미(Rosa 'Green Tea')나 제이드장미(Rosa 'Jade')를 육성하였고 연보라색 장미인 오션송장미(Rosa 'Ocean Song')와 패시픽블루장미(Rosa 'Pacific Blue')를 육성하게 되었다. 코르데스 장미회사에서는 검붉은 자주빛에 황색무늬가 들어있는 장미꽃을 육성하였고 미국의 버피종요회사에서는 데를라라임백일홍(Zinnia 'Tequila Lime')이라는 녹색계의 백일홍을 육성했다. 네덜란드의 인터플랜트 장미회사에서는 붉은 분홍색에 흰무늬가 들어있는 장미를 개량하였다. 이외에도 무수한 육종회사들이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각양각색의 꽃색들을 육종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화형 작고 파스텔톤 선호

꽃색의 기호도를 보면 재개발국 사람들은 화형이 크고 원색의 꽃을 좋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원색 중에서도 자국이 강한 빨강색 꽃이 1위이다. 그러나 정신문화수준이 높은 나라사람일수록 화형이 작아지면서 파스텔 계통의 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후에는 야생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향된다. 1996년도 조사한 각국의 꽃 색 기호도 결과는 이러한 성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꽃 색은 적

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노란색, 흰색, 푸른색 분홍색 순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도 적색, 노란색, 분홍색, 푸른색, 흰색으로 원색을 가장 선호했다. 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분홍색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분홍색에 이어 흰색, 적색, 보라색, 노란색 순으로 좋아했으며, 미국은 분홍색에 이어 노란색, 흰색, 푸른색, 적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매력적인 색

왜 녹색 꽃이 인기를 끌고 있는가. 그동안 녹색 꽃은 잎색이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 꽃을 육종하는 업자들이 무의미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면서 선진화된 국가의 국민들이 녹색 꽃을 선호하면서 각 육종회사들이 경쟁을 하듯이 녹색 꽃을 육성하기 시작하여 시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꽃시장을 나가보면 녹색꽃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각 식물의 녹색 꽃은 최근 네덜란드나 독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예연구소에서 국화를 비롯해 몇 가지를 육성하고 있다.

녹색은 인간의 정서에 차분한 안정감을 주며 시원한 느낌과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매력적인 색이다. 또한 다른 색을 가진 꽃에 비해 염록소가 있어 자체 광합성을 통해 절화로 사용해도 수명이 길다. 크리스탈(crysal)이나 화정(華精) 같은 절화수명 연장제를 사용하면 15~25일정도 관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화품종들



러닝콜라스품종



안수리움 품종



꽃보리 품종



러시안사스 품종

Season Theme 베란다 꽃밭 관리

6월은 초여름 햇빛과 병해충 관리

6월이다. 튼튼 같은 구근류는 자기만의 작물을 끝으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구근 생육에 신경 쓰는 달이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시기에 해당한다. 6월만 해도 아열대 기후를 나타내듯 덥다. 기온이 오르면 베란다 식물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장마가 오는 이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파악해보자 이선영 씨가 전한다.

■ 글: 사진, 이선영, 정승환 기자
자료: 비온후의 베란다꽃밭(http://blog.naver.com/beeonhoo)



베란다 햇빛을 좋아하는 루피너스는 정식 후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두어 키우면 매년 꽃을 볼 수 있다.

여름 오기 전, 베란다 햇빛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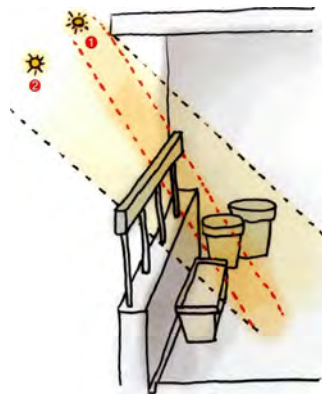
햇빛은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다.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의 삼박자가 포도당과 산소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어냄이 얼마나 신기하지 않은가. 베란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조량이라 할 수 있다. 여름이 오기 전 자신의 베란다 햇빛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안다면 화초 재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선영씨의 베란다 방향은 동남향이다. 남쪽으로 치우친 동남향에 고층이 고층이 햇빛을 가릴 건물들이 주변에 없어 거의 정남향과 같은 위치의 해가 든다. 그는 “해가 낮게 떠 집안 깊숙이 햇살이 들어오는 겨울에는 굉장한 따듯하다. 또 해가 높게 떠서 햇살이 창가에만 머무르는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좋아도, 식물에게는 최적이라고 한다. 이유는 여름의 햇빛이다.

여름인 7~8월에는 식물이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음지에 적응력 강한 관엽류, 양치류 등은 괜찮지만 충분한 일조량이 필요한 초화류에게는 암흑의 시간이다.”

강한 햇빛에 차광막을 설치해야 하는 노지와는 달리 일조량 짧은 베란다는 식물이 햇빛을 더 받기 위해 창가로 식물들을 바짝 붙여서 배치하라고 그는 조언한다. 짧은 일조량에 노출된 화초는 웃자라고 병약해 병충해가 오고, 심하면 죽기도 한다. 또 일조량이 짧지만 햇빛 자체는 강하므로 화초가 화상이나 더위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환기가 중요한가 보다.

베란다 체크

이선영씨는 화초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장소를 찾아 화분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절에 따라 태양의 위치가 달라 일조량도 달라진다는 말이다. ①번은 여름철, ②번은 겨울철 햇빛을 표현했다.



지난 번 파종했던 해바라기, 해바라기에 굴파리 유충의 흔적이 보인다. 굴파리류는 기온적 베란다 방충망을 열지 않는 것이 좋다.

지만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살충제를 쓰지 않는 것이 그녀의 베란다 꽃밭 유지에 기본 개념이기도 하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되도록 천연살충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곰팡이병 예방으로 희석한 목초액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굴파리 방제...관심으로 시작

파종을 즐기는 그에게 힘든 것이 있다면 총해다. 특히 작은 뿌리파리류. “겨울에는 잠시 보이지 않다가 날이 풀리는 3월부터 보이기 시작해 5~6월에 가장 번성한다.” 뿌리파리류에 대한 방제는 다음에 이야기 하겠다. 채소류를 좋아하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베란다 꽃밭, 초여름 병충해 예방을 위해 준비하자”

초여름, 병충해가 온다

베란다의 6월은 생각보다 훨씬 덥다. 환기를 시켜도 기본적으로 창으로 막힌 공간이므로 한 낮에 30℃가 훌쩍 넘는다. 오히려 노지보다 더욱 덥다. 장마철이 시작되어 조금만 소홀해져도 병충해가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장마오기 전 관리가 필요하다. 그는 “원예용 살충제나 살균제를 베란다 전체에 쳐주면 내가 미처 발견 못한 병충해가 없어져 좋다”고 말한다. 하

아하는 굴파리도 베란다에 발생하는 해충 중에 하나다. 지난번 파종했던 해바라기에도 굴파리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굴파리류는 방충망을 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씨는 계절 특성상 집안의 환기와 청소를 위해 방충망을 열어두면 잎이 구불구불한 애벌레가 굴을 판 후에야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굴파리류는 모든 식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고

해마다 한련화, 화스타데이지, 종이꽃 등에 발생했다고 한다. 상추를 좋아하는 굴파리의 특성상 채소를 키우는 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만약 굴파리 애벌레 수가 적다면 이주시거나 바늘 등으로 찔러 죽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수가 많다면 발생된 잎 전체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엑사큘(Exacum affine)꽃이 피었어요” 씨앗을 뿌려 꽃피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하는 이선영씨의 엑사큘. 지난해 10월 중순에 파종에서 5월에 핀 첫 꽃이다. 추운 겨울내 못 자라다 초봄에 병이 걸렸지만 이제는 회복되어 금성정 중, 씨앗은 작은 바람에도 날아갈 만큼 미세 씨앗이라 파종할 때 애를 먹었지만 발아율은 좋은 편인 것 같다고 한다. 독일제비꽃이라고도 불리는 엑사큘은 꽃에서 바닐라 향이 난다.

step by step

넓은 공간으로의 이동

루피너스 화분 옮기기



1 재사용품을 이용해도 충분이 가드닝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진다.



2 배수를 위해 못으로 구멍을 내는데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3 배수와 통기성을 위해 자갈 대신 스티로폼을 이용하는 지예를 발워해본다.



4 루피너스를 조심스럽게 배 낸 후 처음 심어 전 잎이 나올 때까지 물을 맞춘다.



5 적당히 물을 넣고 물을 배수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보이도록 뿌린다.



6 완성. 더 넓은 공간에서 루피너스가 꽃을 피우는 것을 기대해 본다.

Season Theme 베란다 꽃밭 관리

장마 오기 전 구근 수확해 보자

추식구근류 휴면기에 캐서 보관

구근류 식물들을 내년엔 꽃을 피우게 하고 싶다면 미리 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여름이 오기 전 구근을 캐보는 것도 좋다. 구근식물들은 온대 지방에서는 겨울의 낮은 온도에 대비하고, 열대지방에서는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는 생리적 반응을 갖고 있다. 이씨는 프리지아와 같은 여름에 휴면하는 구근을 수확해 보라고 권한다. 프리지아는 구근류 중 줄기가 양분을 저장해 줄기의 일부가 비대해진 '구경류'에 속한다. 특히 프리지아는 구근 아이리스, 스파락시스 등과 같이 가을에 심는 추식 구근류이다.

초여름인 6월에는 프리지아 구근의 생리 상태는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 휴면인 상태이다. 보통 25℃ 이상이면 휴면에 들어간다고 한다. 추식 구근류들은 적당한 저온처리를 받아야 정상적인 개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근의 저장은 가을에 재식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안전하게 휴면시키는 것이다.

휴면인 상태에서 건조한 곳에 저장하면 고온과 만나 8월에 완전히 휴면이 타파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구근을 캐서 보관하기 전에 구근을 소독하는 것. 이씨는 "습기가 마르는 동안이나 저장할 때 썩을 수 있다. 특히 장마기간의 습한 환경에 저장 시 부패가 일어나거나 곰팡이가 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구근 수확시 살균제 등으로 소독하는 것이 장기 보관에 좋다.

구근을 수확하고 그냥 바로 심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급하지 않다면 시원한 그늘에 보관해 휴면기를 늘려 10월쯤에 심게 되면 내년 봄에 아름다운 프리지아 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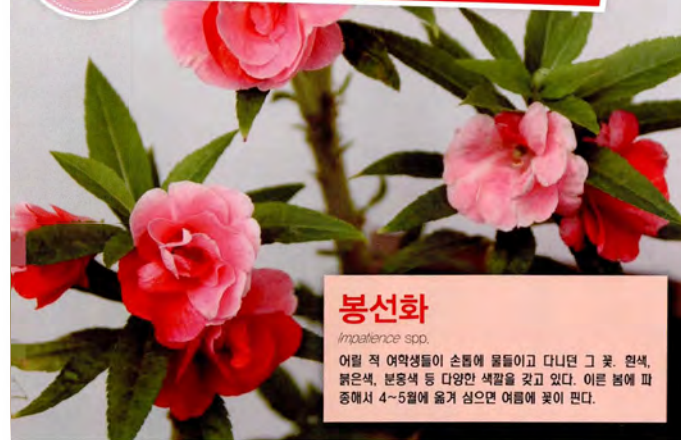
2012년 프리지아(Freesia spp.)



'순결'의 의미를 갖고 있는 프리지아. 절화용으로 쓰이는 구근식물이다. 꽃의 이름에 향기가 묻어나는 꽃이다. 꽃색은 노란색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핑크나 보라색 등의 품종이 나오고 있다.

5

BEST 이선영이 추천하는 이달의 꽃



봉선화

Impatiens spp.

어릴 적 여학생들이 손톱에 물들이고 다녔던 그 꽃. 흰색, 붉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다. 이른 봄에 파종해서 4~5월에 옮겨 심으면 여름에 꽃이 핀다.



레인보우데이지

Gleibionis carinata 'Rainbow Mixed'

첫 꽃봉오리가 피고 4개월만에 맺혔다는 레인보우데이지. 꽃피기를 바라는 사람은 꼭 볼피종을 해야 한다고 권한다.



버베나

Verbena spp.

초여름 베란다에 키우면 보라색으로 수놓는 꽃이다. 한 곳에 군락되어 핀다. 배수와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는 버베나는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면 늦가을까지 관상할 수 있다.



가자니아

Muscari armeniacum

크고 화려한 꽃이 이글대는 태양을 연상시킨다. 가자니아는 아침에 꽃이 피고 햇빛이 부족하면 옅어지는 햇빛을 좋아하는 꽃이다. 고온다습에 약하니 주의하고 화분 속 뿌리가 어느 정도 짙어 꽃이 잘 핀다.



샬비어

Salvia officinalis

튀어나온 꽃을 잡아당기면 꽃이 담겨져 있다. 고온과 습한 기온에 강한 우리나라에 알맞은 꽃이다. 씨앗은 뿌리고 나서 꽃이 필 때까지는 4개월이 소요된다.

step
by step

2014년 꽃을 위한 준비 프리지아 구근 캐기



1 꽃이 진 프리지아의 구근을 캐기 위해서는 망과 살균제, 가위등이 필요하다.



2 시든 줄기는 작업하기 편하게 가위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다.



3 잘 파 놓은 선분에 화분의 흙을 붓고 구근을 고른다.



4 간이 소독을 통해 벤레이트를 500~800배로 희석하고 구근 소독을 실시한다.



5 4~6시간 정도 구근을 말린 후 그늘막에 하나씩 놓는다.



6 내년엔 더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 시원한 번그늘에서 말려준다.

Season Item

순결한 아름다움

나리

6월 바람이 이제 여름의 향기를 싣고 불어오는 계절이다. 하늘하늘한 바람타고 향긋한 내음을 뿜어내는 유혹적인 나리. 초여름 햇살아래 선명한 나리의 자태가 눈이 부시다.

■ 글: 정지는 기자 / 사진자료: 단국대 서정근 교수



학명 *Lilium* spp.
영명 Lily
꽃말 순결, 깨끗한 마음
심는 시기 10월 ~ 11월
꽃피는 시기 6월~8월

나리는 백합(百合)의 순수한 우리말로 장미, 국화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리를 비롯하여 향기가 없고 화색이 다양한 꽃들을 '나리'라 지칭한다. 백합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오래전부터 나팔모양의 꽃이 흰색이므로 흰백자(白)의 백합으로 알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백합'의 어원은 흰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백백(百)자로 땅 속에 있는 저장양분을 보유하고 있는 알뿌리(구근)가 여러 개의 인편(비늘잎)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

6월 중순부터 개화

하늘나리를 선두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리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백합은 대부분 꽃다발, 신부부케, 꽃바구니 등 꽃꽂이나 화훼장식용으로 쓰인다. 대체로 향기가 강하고 꽃이 크고 아름다워 주재료로 이용된다. 화단 한 곳에 색깔별로 우리지어 심어두면 빨리 피는 것부터 시작하여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꽃을 볼 수 있다. 식물원이나 공원, 전원주택의 정원 같은 곳에서는 화단용으로 종종 애용된다. 우리 자생종과 함께 백합 품종들을 함께 심어두면 여름 내내 정원에서 백합을 즐길 수 있다.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 심자

나리의 구근은 가을에 심는다. 봄에 지상으로 싹이 나오고 잎이 20~30매 정도 되면 꽃눈이 분화한다. 나리는 보통 추위에 강한 편이며 여름에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나리는 대부분 반 그늘진 곳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참나리, 하늘나리, 땅나리, 종나리 같은 것은 별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다. 나리는 흔히 인편으로 번식하지만 종자 번식도 가능하다. 대부분 종자로 번식하면 2~4년은 지나야 꽃이 피지만 땅나리, 하늘나리, 솔나리, 털중나리는 2년 만에 꽃이 핀다.

스트레스 해소 효과 탁월

나팔나리

꽃향기를 맡으면 스트레스를 크게 감소시키는 꽃이 있다. 바로 나팔나리가 그것이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실험용 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그 효과를 입증했다. 농촌진흥청 김광진 박사는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실에는 나팔나리를 꽃이 두고, 다른 교실에는 꽃이 없는 상태에서 수학생들을 치루게 한 결과, 혈액 속의 코티솔(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성분) 농도가 꽃을 꽃아 준 교실의 학생은 20ng/mL 미만 반면, 꽃이 없는 교실의 학생은 50ng/mL로 나타나 꽃을 꽃아 놓고 시험을 치른 교실의 학생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팔나리가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리의 계통별 특징

오리엔탈

- 화색은 백색, 분홍, 적색 등이 대부분임
- 꽃과 잎이 크고 넓으며, 향기가 있음
- 재배기간이 길고 바이러스에 약함
- 측방개화형이 대부분이고 화형은 반곡형



스르본느



시베리아



라보나



트레서



화이트 헤븐



갤리아

아시아틱

- 화색이 다양함
- 향기가 없고, 꽃과 잎의 크기는 작음
- 저온 및 엽소현상에 약하나 바이러스에 강함
- 상향개화형이며 화형은 대부분 우산형

나팔나리

- 화색은 대부분 백색이며 화형은 나팔모양
- 구근이 성숙되기 전에 재출아 현상이 나타남
- 생육이 왕성함
- 최근 유색계통이 육성되고 있음

자생나리 15종

나리는 북반구의 아열대(산지)부터 아한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총 96종 중 아시아지역에 59종, 북미지역에 25종, 유럽지역에 12종이 자생한다. 일본에는 관상가치가 특히 높은 7종을 포함하여 15종이 있다. 중국, 한국, 시베리아지역에도 관상가치가 높은 것이 많고 화훼가치가 뛰어난 나리는 모두 이 지역에 분포한다. 나리류는 전 세계적으로 130여 종이나 된다. 이 중에서 7종이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 나리의 원산지 중 한 곳으로 변종을 포함 15종이 자생하고 있다. 그 종류는 참나리, 하늘나리, 종나리, 털중나리, 날개하늘나리, 솔나리, 땅나리, 말나리, 성말나리, 하늘말나리 등이다. 특히 국내에 자생하는 솔나리는 분홍색 꽃이 피는 나리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중요한 교배 모본으로 이용되고 있다. 울릉도에 자생하는 섬말나리는 희소가치가 매우 큰 식물이다.



개말나리



날개하늘나리



노랑땅나리



노랑털중나리



땅나리



말나리



성말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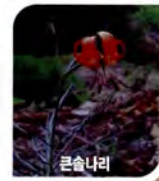
솔나리



종나리



참나리



큰솔나리



털중나리



하늘나리



하늘말나리



희솔나리

Season Item

베리

■ 글_정지는 기자

집에서 키운 베리로 화려한 식탁 완성



에는 블루베리의 용기를 나열해 차단막으로서의 기능도 활용해 보자. 작은 베리가 익을 때쯤 가족 모두가 새콤달콤한 열매를 즐길 수 있다.

작은 화분은 주방 가까이에 두어 키친가든을 꾸며보자.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블루베리, 가을쯤엔 크랜베리를 두어 사계절 베리로 식탁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베리는 다른 과실나무에 비해 병충해의 염려가 거의 없으며, 관리도 간단해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과실나무이다. 베리의 인기 비결은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과 그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키면서 자라는 열매, 그리고 새빨갭게 물드는 가을의 단풍 등을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점에 있다. 또한 율랑줄망 귀여운 열매는 미용과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산성토양에서 자라는 성질 때문에 정원에서 키우는 것보다 용기 재배가 간단하여 손쉽게 시작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안심맞춤인 가정 과실나무이다.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베리들 가운데 비교적 한국에서 키우기 쉬운 종류들이 있다. 작은 열매는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따서 먹는 즐거움도 있다. 각자 취향에 맞는 베리를 키워보자.



블루베리 *Vaccinium spp.*

미국이 원산지인 낙엽관목(높이 1.5~2m). 봄에는 종모양의 꽃이 피고, 초록색의 열매가 여름에는 청보라색으로 익는다. 겹집에는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색소가 풍부하다.

블루베리는 과실나무 중에서도 키우기 쉬운 식물로 작은 화분에서 키울 수 있고,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초여름에는 남보라 색의 열매를 맛 볼 수 있다.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재배용으로 품종 개량된 하이부시와 래빗아이 블루베리 그리고 돌이 섞여있는 가친 땅에서 자라는 야생 블루베리가 있다.

하이부시 열매가 크고 맛이 좋은 품종이 많다. 래빗아이 열매가 물들기 시작하면 토끼의 눈처럼 붉게 물든다. 하이부시 열매보다 작고 가지 끝에 방울처럼 달린다. 야생블루베리는 높이가 15~45cm 정도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블루베리는 산성화를 좋아한다. 산도는 pH3.4~5.5로 유지 하는 것이 좋다. 산성이 강한 피트모스를 주로 한 혼합토를 권장한다. 재배용 흙으로는 마사토와 혼합하거나 피트모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TIP 1 빗물을 모으자

블루베리는 물을 아주 좋아한다. 매일 물을 듬뿍 주어야하는데, 수돗물은 일반적으로 중성이므로 화분속의 pH수치가 상승하여 중성이 된다. 이럴 때 빗물을 모아서 물주기에 이용해보자. 빗물은 산성이기 때문에 흙의 산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조금 귀찮지만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다.

TIP 2 비료는 1년에 3회

1. 새싹을 틔우기 위해 준다.
2. 열매가 비대해질 무렵에 준다.
3. 수확 후에 준다.

Berry란...

우리가 많은 열매 과일에 베리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는데 베리라는 뜻은 포도알갱이 하나와 같이 과육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열매들을 총칭한다. 장과류라고 하고 종류에도 포도, 딸기, 오디, 버찌, 들깨(일반적인 블루베리등의 식물) 등이 있다.



스트로베리

Fragaria ananassa

우리나라에는 자생종이 없고 20C 초에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말기에 네덜란드인이 갖고 온 것에서 네덜란드 딸기라고도 불리는 다년생식물. 재배 품종도 많이 가정채소로 재배할 수 있는 기분이 된다.



와일드 스트로베리

Fragaria vesca

식용 딸기가 탄생하기 전부터 유럽에서 자생하고 있던 다년생식물(높이 25cm 전후). 열매는 작지만 향이 강하고, 온도만 맞으면 1년 내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한, 내한성 및 내서성도 강해 키우기 쉽다.



크랜베리

Vaccinium macrocarpon

미국 북동부에 자생하는 상록소관목(높이 20cm 전후). 냉랭한 기후를 선호하며 초여름에는 연분홍색의 꽃을 피운다. 9~10월에는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어 직경 1~2cm가 된다. 산미가 강한 점이 특징이다.



커런트

Ribes sativum

붉은색 열매가 가련하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재배된다. 열매 색은 붉은색, 핑크색, 검은색, 흰색이 있다. 레드커런트와 카시스라고도 불리는 블랙커런트는 주스 및 과자의 재료로도 익숙하다. 젤이나 쥬스로 만들면 좋은 향기를 즐길 수 있다.



구스베리

Ribes grossularia

유럽 및 미국 태생의 낙엽관목(높이 1~1.5m). 베리 중에서도 가장 추위에 강하다. 반대로 여름 더위로 건조한 것을 싫어한다. 반나절 그늘에서 키우는 등 통풍이 좋은 신선한 곳에 두도록 한다. 한 그루만으로도 결실을 맺는다.



멜베리(오디)

Morus bombycis Koidz

뽕나무과로 유럽과 미국 및 아시아에서는 가정에서 키우는 과실나무로 한국에서는 뽕나무 열매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풍토에 잘 맞아 키우기 쉽지만, 성장이 빠르다(높이 3m).



라즈베리

Rubus idaeus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야생종이 품종 개량된 낙엽소관목(높이 1~1.5m). 초여름에 꽃을 피우며, 7월경에 수확기를 맞이한다. 열매는 다양한 색이 있어 키우는 즐거움이 있는 베리이다. 재배가 쉽고 지주를 사용하여 좁은 장소에서도 키울 수 있다.



블랙베리

Rubus fruticosus

북아메리카 등에서 품종 개량된 낙엽소관목(높이 1~1.5m). 흰색과 핑크색으로 관상용으로도 좋다. 포복성, 덩굴성, 직립성 등 종류가 많아 준비하는 과정도 즐길 수 있다. 병충해에 강하고, 비교적 키우기 쉬워 가정재배에서 인기는 베리이다.



준베리

Amelanchier alnifolia

이른 봄에 작은 흰 꽃이 만발하고, 초여름에 붉은색과 흑자색의 열매가 익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다. 화분에서도 키우기 쉬워 최적의 심볼트(높이 3m 전후)라 할 수 있다. 열매는 잼으로 만들거나 생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

www.dailimseed.co.kr
☎ 02-575-5933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59-1번지
(대림씨앗농장대림단지)

대림원예종묘(주)

퍼플초크베리

기존의 블랙 초크베리의 맛을 변화시키는 신품종. 기존의 레드와 블랙 교배 선발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옅은 광택이 있다. 검정색 열매가 매력적이다.

1년생 포트	2000원
개량종포트	6000원
실생 1년	1500원
실생 2년	3000원

준베리

새롭게 쓰는 과수로서 농가 소득 작목으로 경제성이 높은 신소재 작목. 생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마그네슘 칼슘 아이노산이 풍부, 각종 웰빙 식품으로 최고다.

실생 1년 묘	3000원
1년 포트묘	5000원

6월은 가장 화려한 정원이 연출된다

■ 글_박공영 / 사진_정승환 기자

바야흐로 여름의 문턱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6월은 가장 많은 꽃을 피우는 계절이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6월 하순은 정원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바로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가장 많은 꽃을 피운다. 국내서 자라는 소산식물의 약 60%가 이 시기에 꽃을 피운다. 계절 중 가장 화려한 화색을 자랑하는 시기이다. 물론 식물의 자람도 그만큼 빠르다. 많은 식물들이 하루에 몇 cm씩 자라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관심 있는 몇몇의 식물 옆에 눈금자를 세워두고 확인해 보아라. 아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정원의 침략자 잡초 제거 빠른수록 효과적

불청객 잡초들의 발아와 성장 역시 이 시기에 매우 활발하다. 특히 덩굴식물들의 빠른 자람이 관찰되는데, 기르고 있는 정원 식물이 아니라면 곤란하다. 다른 식물의 성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덩굴성 잡초들은 자라기 전에 빨리 제거해 주어야 한다.

환상덩굴이나 박주가리, 메꽃 등이 이맘때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원의 방해꾼들이다. 환상덩굴의 경우는 특히 일년초이면서도 거칠고 매우 세력이 좋아 정원의 대표적 침략자로 간주된다. 보이는 대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잡초는 다른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특정 식물, 즉 바랭이 등 화본과 잡초가 발생한다거나 잔디밭에 망초나 쑥바귀 등 넓은 잎을 가지는 식물들이 자라는지를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이때는 특정 식물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제초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작은 정원이라면 제초제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힘들지도 모른다.

안정적 잡초 제거를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

잡초도 정원의 식물들만큼이나 빨리 자라게 되는데 정원 식물과 같은 자리에서 엉켜 자라는 잡초를 무리하게 뽑게 되면 뿌리가 뽑히면서 정원의 식물도 함께 뽑히거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잡초만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노하우를 길러야 하는 것도 정원사의 몫. 많은 포기를 이루는 잡초들은 보통 가장 아랫잎 밑에는 색눈이 없는 종류가 많다. 이들은 줄기가 땅에 닿는 지저부 아래를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잘라주면 쉽게 고사한다. 그러나 쑥이나 메꽃 등은 자상부의 줄기를 잘라내어도 뿌리줄기를 이용해서 다시 싹을 틔워 자라게 되므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많은 식물들은 줄기가 잘리면 고사하게 되므로 뽑은 잡초는 정원 식물의 뿌리 주변을 덮거나 노출된 토양을 덮어주는데 이용하면 잡초의 재발생도 막고 정원 식물의 뿌리에 적당한 수분과 온도관리가 될 수 있으니 피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쇠비름이나 바랭이 등은 뽑아낸 줄기도 땅에 놓아두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되므로 정원 밖으로 반드시 제거한다.

TIP 정원관리시 반드시 보호 장구 착용

정원의 관리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잡초의 강한 줄기와 잎에는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사초과나 화본과의 정원 식물도 날카로운 잎을 가진 것들이 많아 생체기를 내기 쉽기 때문이다. 완벽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긴소매와 장갑 등은 반드시 착용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제초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와 피부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바람이 없는 오전 중에 마치도록 한다. 작업 후에는 비누로 반드시 세척해야 한다. 물론 6월의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한 썬 크림이나 큰 채양이 있는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잡초와 병충해, 빠른 예찰과 방제 필요

모든 잡초와 병충해는 초기에 박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잡초 제거에 있어 아주 어릴 때는 호미로 땅을 긁어낸 해도 잡초를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이때 호미로 땅을 긁어주는 작은 행동이 식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양속 수분의 증발을 막아 가뭄을 견디게 할뿐만 아니라 통기성을 좋게 하고 토양의 온도를 식혀주며 잡초의 재발생도 막아주게 된다. 보통 텃밭을 일구시는 할머니들이 잡초도 없는 밭을 매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다.

6월은 식물의 자람이 빨라 줄기와 잎이 매우 연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진딧물과 응애 그리고 파밤나방 등과 같은 해충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정원을 살충제나 제초제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 관리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6월에는 되도록이면 빠른 예찰과 빠른 방제가 필수적이다. 응애나 진딧물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도 잘 띄지 않는다. 파밤나방 등 나방류의 유충은 하루에도 정원의 많은 식물들을 줄기만 남기고 모두 갉아 먹을 수도 있다.



Step by Step 삼색조팝의 모양잡기

삼색조팝의 도장지가 무성하다.



전통톱으로 자르기 힘든 위치는 전정가위로 잘라준다.



목표하는 수형을 정하고 우선 전통 전정톱으로 큰 골격을 잡아준다.



목표했던 원형의 수형으로 완성됐다.



따라서 정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 직접 잡아내거나 효과가 낮은 친환경 약 제를 이용하게 되면 아름다운 꽃도 피기 전에 정원이 망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발생초기에는 낮은 농도의 약제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관찰하고 한 가지 약제를 계속 이용하는 것 보다는 여러 종류의 약을 돌려가면서 적용하는 것이 약제 내성을 막는 길이다.

6월의 작업...꽃대 제거, 열매숙기, 철쭉 전정 등

올해 심어 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잎을 관상하기 위해 키우고 있는 식물이라면 꽃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잎을 보는 식물들은 꽃대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잎이 불품이 없어지거나 탈색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꽃이 핀 식물들의 2차 개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줄기 자르기는 것은 중요한 일과이다. 물론 추식구근의 열매 따기는 뿌리의 비대를 촉진해 다음 해의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이른 봄에 피었던 과일들이 이제 제법 모양을 갖추는 시기이기도 하다. 열매숙기를 지금껏 미루었다면 바로 시행해야 탐스럽고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참고로 열매는 잎의 개수를 기준으로 남길 수 있는데, 본지 5월호를 참고하면 된다.

텃밭의 많은 작물들의 지주대를 이용한 고정 및 오이, 참외 등 덩굴식물들의 줄기 유인, 순정리 등도 이 시기에 할 일이다.

이 시기에 잊어서는 안 되는 작업이 또 하나 있는데 수목의 순정리이다. 특히 생울타리의 전정은 아름답고 조밀한 울타리에 필수적이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조밀하고 아름다운 단정한 생울타리의 모습을 잇을

수도 있다.

특히 봄에 개화한 철쭉도 이시기에 전정을 해야 한다. 철쭉은 너무 늦게 전정을 하게 되면 다음해 꽃눈분화가 일어나지 않아 꽃을 못 볼 수도 있다.

생울타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큰 양손가위를 이용하거나 헤지커터(생울타리 정리용 전정톱)를 이용한다. 물론 헤지커터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예초기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고도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관목의 순정리 방법으로는 사각형 혹은 삼각형, 원뿔, 원기둥 혹은 동물이나 특정한 모양으로 할 수 있다.

장마철 대비, 철저한 배수로 관리 요구

이제 가장 위기인 장마철을 대비해보자. 장마철에는 배수가 우선이다. 침수는 많은 식물들을 쉽게 죽일 수 있다. 토양 자체의 배수성은 한번 정해지면 거의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나 빗물의 빠른 제거를 위한 잘 정돈된 배수로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 간단한 상식을 기본으로 하여 배수로를 준비하면 된다. 면적의 많고 적음과 수량의 유입에 따라 깊고 넓게 파주는 것이 좋다.

배수로가 준비되었다면 공기의 통풍에도 유의해야 한다. 바람의 통로가 되는 부분에 많이 우거진 줄기와 잎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햇빛이 약한 시기이므로 옷자란 가지나 줄기를 잘라 미리 빛의 양을 늘려 주는 것도 준비해야 할 일이다.

장마철 잠시 비가 멈춘 날을 기다려 병충해를 예방하거나 방제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Step by Step 생울타리 정리



생울타리용 조팝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도정지는 수형과 통풍에 영향을 준다.



각진 모양을 만들기 위해 옆면을 전동톱을 사용한다.



아래로 향한 가지는 수형을 해치므로 옆면의 도정지를 제거한다.



지나친 윗가지들을 가지런히 잘라준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다듬어 완성한다.



정원 규격에 맞는 울타리가 완성되었다.

6월의 체크리스트



잡초는 초기에 제거

잡초들은 자라기 전에 미리 제거해 주어야 한다. 다른 식물의 성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환상덩굴, 박주가리, 메꽃, 바랭이, 망초, 씀바귀 등이 정원의 침략자.



제거한 잡초 피복용으로 재활용

뽑은 잡초는 정원 식물의 뿌리 주변을 덮어주는데 이용한다. 잡초의 재발생을 막고 적당한 수분과 온도 관리에 효과적이다. 쇠비름이나 바랭이는 재활용 불가. 정원 밖으로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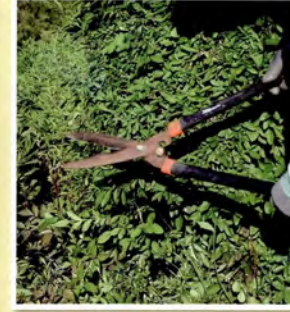
해충에 대한 빠른 예찰과 방제 필요

에나나 진딧물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파밤나방 등 나방류의 유충 피해는 생각보다 관리에 효과적이다. 쇠비름이나 바랭이는 재활용 불가. 정원 밖으로 제거한다.



꽃대 제거

잎이 초라해지거나 탈색되는 것을 막는다. 이미 꽃이 핀 식물들의 2차 개화를 위한 필수 전략. 추식구근의 열매 따기는 뿌리의 비대를 촉진시켜 다음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한다.



관목의 순정리

생울타리 정리 : 시기를 놓치면 아름답고 단정한 생울타리 모습은 영영 못본다. 철쭉 전정 : 늦게 전정하면 다음해 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장마철 대비

배수로 정리 : 면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유입량에 따라 깊고 넓게 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 통풍 : 바람의 통로에 줄기와 잎을 제거한다. 햇빛 조절 : 옷자란 가지를 잘라 빛의 양을 늘려준다.

New Trend



채소도 유행에 민감하다

Mini & Collar

글_소순복 기자 / 자료_사진_아시아종묘

먹기 좋고, 보기 좋고, 관리 쉬워...가정에서 키우기 좋은 웰빙 기능성 먹거리 Mini

채소도 유행이 있다. 패션이나 스포츠 음악 등 어느 문화처럼 식문화도 유행에 민감하다. 90년대 가정에서 녹즙을 갈아 마시는 것이 인기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새싹채소나 블루베리를 직접 키워 먹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 새싹 채소의 인기는 전반적인 미니 채소 바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크기는 작아지고, 컬러는 화려해지고 이른바 미니&컬러 채소시대, 이미 채소계에 만연한 이색 트렌드이다. 국내 종묘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아시아종묘의 육종가 이인호 박사와 함께 미니 & 컬러 채소, 그 작지만 화려한 그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작지만 기능성은 항상

미니 채소는 키는 작지만 일반적인 키 큰 채소보다는 기능성이 향상된 개량 품종이다. 채소는 처음 생장할 때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 농축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미니 채소를 개발한 이유이고 또 식탁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던 첫 번째 인기 비결이다. 기능은 향상되었지만 재배기간은 짧은 것이 두 번째 각광받는 이유이다. 굳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웰빙 먹거리인 셈이다.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 및 가치관의 전환은 미니 채소를 식탁의 부재료가 아닌 메인 아이템으로 부상하게 한 세 번째 이유이다. 작고 색깔도 화려해 관상용으로뿐만 아니라 아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도 이유이다. 더불어 아이들의 편식도 없애주고, 식습관 개선 효과도 가져오니 일석다조. 선진 음식문화의 국내 유입 역시 미니 채소가 각광받는 촉매 요인이다. 소비자 변화하는 입맛에 맞춰 육종가들도 알다시피 이색 미니 신작물을 내놓고 있다.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한 몫을 하면서 미니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제 거의 모든 채소에서 미니 품종이 등장했다.

같은 듯 다른 의미

새싹·어린잎·미니 채소

미니 채소는 재배기간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니 채소는 엄밀히 말하면 파종한 지 1달 이내 먹는 것을 일컫

는다. 유사한 의미의 '새싹'과 '어린잎' 채소는 다르다. 씨앗을 파종해서 갓 싹이 나와 1주일 이내 먹는 것을 새싹 채소, 15일 이내 먹는 것을 어린잎 채소, 그리고 이미 설명한 미니 채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아주 짧은 며칠차이인 듯 하지만 각 시기에 맞게 재배해야 하는 품종도 구분된다. 새싹 채소로 출하해야 하는 품종은 브로컬리싹, 무순, 보라싹, 배추, 양배추싹 등이며, 좀더 자란 어린잎 채소가 되어서야 최대의 맛과 영양을 줄 수 있는 작물은 빨간 배추, 빨간 청경채 등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인호 박사의 설명이다. 미니 채소로 재배해야 하는 품종은 샐러드용이다. 20일 적한무, 보라킹 등이 대표적이다. 미니 채소는 잎이 여리고 부드러운 샐러드로 먹기 좋고, 접시에 멋지게 플레이팅 하기도 좋다. 미니 채소의 수확은 단순히 먹기 좋고, 데코레이션 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키 큰 채소를 수확하면 채소의 절단면이 생겨 미네랄 등 영양분을 일부 잃을 수밖에 없는데, 미니 채소는 그대로 수확해 통째 먹기 때문에 채소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선진 유럽 식문화 영향

우리의 식문화는 유럽 선진문화 흐름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유럽에서는 식물체에 인위적인 행동, 즉 식물체에 칼을 대거나 열을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유럽 문화가 국내에도 유입돼 통째로 먹거나 손으로 찢는 생식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핵가족의 영향도 크다. 최근 1~2인 가족이 증가해 소량의 음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 역시 미니 채소 열풍에 한몫을 한다.

국내 미니채소의 등장은 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8올림픽 개최로 문화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이다. 새싹비빔밥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 때. 이 박사는 현대를 미니 채소의 정착기라고 설명했다. 미니 채소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장도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다. 농가에서도 재배기간이 짧아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해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이는 시장 다변화에 따른 틈새시장의 상품이다.

베란다에서 관리 쉬워 인기

그렇다면 가정에서 미니 채소를 키우는 것은 어렵까. 이 박사는 미니 채소 재배는 키가 큰 채소보다 가정에서 키우기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재배 기간이 짧아 무농약, 무비료 재배가



가능해 유기농 안심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상용으로 보는 재미 역시 솔솔하다고, 손바닥 크기보다 작고 어떤 것은 동전크기만한 크기여서 귀엽고 양중맛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그만이고 색깔까지 화려해 금상첨화다.

학습효과까지 있다. 식물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건강한 먹거리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중에는 베란다용 미니채소재배기, 재배백 등의 다양한 재배기가 판매되고 있다.

과채류보다는 엽채류 추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미니 채소의 종류는 다양하다. 당근 호박 가지 오이 배추 무 양배추까지 대부분의 채소가 미니 품종으로 개발되었다. 이중 가정에서 키우기 쉬운 것은 역시 엽채류이다. 과채류중에서는 미니 토마토 가지 고추 정도가 추천할 만하다고 한다.

호박이나 오이와 같은 덩굴성 작물은 미니 채소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키가 자라려면 많은 토양을 필요로 뿐만 아니라 과채류는 물 관리 및 영양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해충 관리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수확하는 재미를 보기에는 엽채류 만한 것이 없다는 것. 미니 오이 6그루를 심어야 하는 자리에 30~40그루의 엽채류를 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더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박사의 견해이다 in



도움말
농학박사 이인호
농업회사법인 아시아
종묘(주) 생명공학육
종연구소 책임연구원

아시아 종묘 추천 미니 채소

아시아미니관 (미니 단호박)

장기 다수확이 가능한 맛좋은 미니 단호박. 무게가 500g 전후로 흑록색 과피에 잔줄이 있는 작은 밤호박이다. 장기간의 수확이 가능한 다수확 품종이다. ●주의 보다 좋은 고품질의 단호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터널 지주를 이용한 망재배가 이상적이다. ●가격 3000원



피클관 (미니가지)

자주색 모양이 탐스러운 계란가지. 정식 45~50일 후에 첫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이다. 모양이 탐스러워 관상용으로도 인기. 평균 과중은 80~100g이고, 적응성이 뛰어나 재배가 쉽다. ●주의 지나치게 어린묘의 정식은 피한다. ●가격 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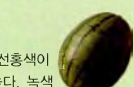
민묘관 (미니오이)

한입에 쏙 들어가는 생식용 오이. 과장 10~12cm, 과경 3cm, 과중 80~100g의 백다다기 과피색의 흑칠계 오이. 육질이 단단하고 아삭거려 맛이 좋다. 습해에 비교적 강한 편이다. ●주의 고온기에 육묘하면 암꽃 착생률이 50~60% 떨어지므로 약간 저온 육묘해야 한다. ●가격 4000원



프리카 (미니수박)

부드럽고 달콤한 미니 수박 타원형의 미니수박. 과육은 선홍색이고 섬유질이 적고 당도가 높다. 녹색 바탕에 호피무늬가 가늘고 과피가 얇다. ●주의 과피가 얇고 당도가 높아 열과상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토양 수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가격 3000원



이웃이웃미니 (미니배추)

초극조생, 만추대성, 미니 뽕배추 초장은 짧으며 외엽색은 진한 녹색. 추대가 안정되어 있어 이른 봄 재배에도 유리하다. ●주의 수확을 늦게 하거나 밀식재배를 하면 병충해가 발생하여 밑 부분이 썩어질 수 있어 적기에 1~2회 수확을 해주어야 한다. ●가격 5000원



이웃이웃배추 (미니양배추)

단맛이 풍부하여 샐러드에 적합한 한 극조생종 미니 양배추. 연육은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풍부하여 식감이 우수하다. 무게가 800g 정도로 백화점 납품용으로 인기이다. ●주의 비가 많은 시기의 노지재배에서는 외엽이 병충해에 약하다. 저온기에 생육기간을 길게 하면 추대가 빨라 상품성이 떨어진다. 위 가격은 인터넷 판매가입니다. 아시아종묘02-401-4303



꽃보다 채소

식탁 위 화려한 꽃이 되는 기능성 컬러 채소

"색깔은 주황색이고, 토끼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답은 당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에게 정답 당근을 이끌어내기 위해 던질 수 있었던 전형적인 질문 유형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색은 주황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토끼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정답 당근을 위한 질문 유형이다. 이제 '당근=주황색'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근이 다양한 색으로 재배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당근뿐만 아니라 밭에서 나는 모든 채소에서의 개량종 바람이 거세다. 흑색의 토마토가 등장했고, 노란 수박도 시장한 칸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초록 브로콜리 대신 컬러플라워(흰색)가 초고추장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채롭지 않고, 열무김치의 흰색 무는 보라색 무가 되어 보랏빛 물 향기가 가득한 식탁을 장식한다.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다 하지 않았던가.

개량종에 의한 화려한 색깔 변신 덕분에 식탁은 더욱 풍성해졌고 화기애애해 졌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편식도 사라졌으니 엄마와 아이가 식탁에서 반찬가지고 싸울 일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무엇보다 웰빙 식단이 완성됐다. 개량된 컬러 채소는 본래 채소에서 좋은 유전자만 쏙쏙 뽑아내 결합한 덕분에 맛도 영양도 뛰어난 품종을 탄생시켰다. 기능성을 강화시켜 부족한 영양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풍부한 당근이었지만 보라색 당근에는 안토시아닌 성분까지 강화돼 암과 바이러스, 심장질환에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웰빙 바람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컬러 테라피는 다양한 품종 개발을 통해 더 화려한 식탁의 꽃이 되었고, 가정에서 재배시에는 관상용으로도 인테리어 가치를 더했다.

기능은 확대되고, 식감은 살리는 컬러 푸드의 그 색채의 미술 세계는 신비하고 흥미롭다. 식탁의 신롱속도를 이끌고 있는 컬러 푸드, 그 주역들은 다음과 같다.



보라킹(큰무)

안토시아닌을 함유한 웰빙 적색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적색계 품종으로 적색발현이 우수하다. 내부에도 은은한 적색을 띠고 바람들이 현상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며 상품성이 우수하다. 동치미 등을 담그면 적색이 배어 나와 김치 국물이 매우 아름답다.

주의 종전토나 저습지, 척박지 등 불량한 환경에서는 재배를 피해야 한다.



홍빛 열무

예쁜 자송색이 입맛을 돋우는 컬러 열무

토양 적응성 폭이 넓고 연중 재배가 가능하며 생육이 왕성한 다수확 품종이다. 줄기, 종륜은 자송색이며 잎은 농녹색으로 선명해 색배합이 잘 어우러진다.

주의 고온기 재배시 한상사 피복을 해야 하며, 생육이 무척 빠르다. 여름철에는 고랭지 비가림 재배가 유리하다.



금강산

독특한 산모양의 녹색 컬러플라워

꽃봉오리가 진한 녹색이고 전체적인 선단부분이 뽕죽하여 청담모양으로 매우 아름답다. 꽃봉오리의 크기가 고르고 품질이 우수하다. 수확 후 생식용 및 가공용으로 이용 가능한 조생종이다.

주의 육묘 후 정식시 생육이 부진한 모정은 정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슈퍼골드수박

당도가 높으며 치감이 좋은 노란 수박

어린이로부터 노인분들까지 즐길 수 있는 소프트한 맛의 노란색 수박이다. 당도가 높고 치감이 좋은 맛있는 수박이다. 주의 불량 환경에서의 착과시는 변형과 과육 불량과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온하에서 꼭지 부위가 좁은 과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



레드링볼

붉은색 링이 속안까지 선명한 생식용 양파. 예쁜 생식용 품종으로 표피가 진한 적자색으로 매운맛이 적고 단맛이 있다. 재배가 쉽고 수량이 많으며 저장성이 우수한 우량종이다. 셀러드나 생식용으로 최적이며 속을 얇으로 자르면 속 안

링이 아름다워 생채나 장식용 채소로 좋다. 주의 적기보다 늦게 파종하면 비대하가 전에 도복되며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아시아퍼플

꽃봉오리 색깔이 아름다운 자색 컬러플라워. 매력적이고 고상한 색깔로 육종된 품종이다. 교배종으로 진한 녹색 잎에 짙은 자주색이 조화를 이룬다. 신선한 샐러드와 시원한 모듬 채소에 주로 이용된다.

주의 육묘 후 정식시 생육이 부진한 모정은 정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습해서 다소 약할 수 있으므로 배수가 잘되는 포장에서 재배해야 한다.



신흑수

라이코펜 함량이 높은 기능성 토마토

과피색은 초콜릿 색을 띤다. 절간과 수확 간격이 짧아 생산성이 매우 높다. 맛과 향이 매우 좋고, 라이코펜 함량이 일반 토마토보다 높은 기능성 토마토이다.

주의 당도 및 맛이 뛰어난 고품질 토마토를 다수확하기 위해서는 토양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초세를 충분히 유지시켜야 한다. 과도한 원숙은 피한다.



홍마 1호

내병성과 내도복성이 강한 흑찰옥수수

원추형으로 이삭 길이는 약 22cm, 이삭 직경은 약 4.5cm이다. 이삭립의 색은 검고 찰지며 내병성과 내도복성이 강한 다수확 품종으로 식용이나 가공용으로 적합하다.

주의 생육 초기에 온도가 내려가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육묘를 하여 정식하면 생육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 옥수수 키가 무릎 높이쯤 되었을 때 줄기지를 제거해주면 생육이 좋아진다. 기비와 추비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레드마트

더위에도 강하고 단단히 결구되는 양배추

숙이 빠르고 결구되는 중조생종이다. 초세가 강하며 비교적 재배가 용이하다. 특히 내서성이 강해 고랭지 여름재배에 유리하다.

주의 육묘시 생육이 부진하거나 약한 묘는 정식을 피해 쳐야 한다. 정식은 본엽이 4~5매 나왔을 때 해 준다.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피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한다.

다시 한번 꼭꼭

컬러 푸드의 효능

레드푸드 항암작용을 하는 라이코펜과 소염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 토마토, 사과, 딸기, 석류, 체리, 수박, 딸, 앵두, 대추, 홍고추, 오미자 등이 있다.

컬러푸드 항암, 항경맥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수용성 색소가 있어 검은색을 띤다. 블랙푸드는 노화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체내 활성 산소를 효과적으로 중화시키며 심장질환, 뇌졸중, 암 예방, 성인병에 좋다. 검은콩, 검은쌀, 검은깨, 김, 미역, 블랙올리브, 다시마, 메밀 등이 있다.

멜로우푸드 노란색 푸드의 대표적인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암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항산화제로 몸에서 합성이 안 되고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몸에 흡수돼 비타민A가 된다. 비타민A는 시각, 성장, 생식에 중요한 역할, 안구 건조증, 비염, 백내장을 예방한다. 바나나, 당근, 케일, 생강, 고구마, 옥수수, 호박, 자몽, 망고 등이 있다.

화이트푸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화이트 식품. 화이트를 만드는 안토키산틴 색소는 체내 산화 작용을 억제하여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와준다. 바이러스 저항력을 길러주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강하시켜 준다. 양파, 양배추, 버섯, 마늘, 연근, 감자, 배 등이 있다.

골드푸드 공해물질을 해독하는 작용과 세포재생을 돕는다. 신장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며 피를 새로 만들고 세포재생을 도와 노화방지에 탁월하다. 몸나 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암발생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녹차,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신선초, 매실, 키위 등이 있다.

바이올렛푸드 바이올렛을 띠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전 형성을 억제시키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한다. 심장병을 예방하고 눈 건강에 좋다. 소염작용과 살균작용이 뛰어난 바이러스 세균을 죽인다. 복분자, 포도, 블루베리, 붉은 양파, 보라 당근, 가지 등이 있다.

step by step

도전! 호박 골드볼 키우기



가든조아



1 호박 골드볼 씨앗, 주황색 씨앗은 오메 보관하기 위해 팔레트에 정리한 것이다.

2 작은 포트에 씨앗 파종. 뒷밭이 없어서 화분에서 골드볼을 기를 예정이다.

3 파종 후 8일이 지난 후 씨앗이 머고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4 새싹이 나오고 4일 정도 지나니 두 정도의 떡잎이 활짝 벌어졌다.

5 보통 우 잎은 컸지만 포트가 작아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었다.



6 분갈이 후 바로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7 꽃이 활짝 피었다. 누가 호박 꽃을 못생겼다고 했을까. 노랑색이 예쁘다.



8 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노란 호박이 모습을 드러냈다.



9 3월 2일 파종을 시작하여 4월 24일 탐스러운 호박을 볼 수 있었다.



10 첫 수확 성공. 귀엽고 탐스러운 호박 골드볼이 탄생했다.

가든조아 판매가 : 3000원

Season Item

신주처럼 모셔진 한국 토종 감자

가난했던 한국 역사의 동반자, 그래서 더 맛있다



■ 글 · 사진, 안완식 농학박사
(토종종자모임 씨드림 상임대표)

감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로 특히 온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며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17세기 말 아일랜드는 계속된 감자의 흉년으로 인구가 폭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6년 감자의 역병이 잉글랜드를 거쳐 만연하게 되자 감자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7년간에 걸친 '그레이트 형거스'라고 알려진 대기근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7년간의 대기근 동안 200만명 이상이 굶어 죽고 100만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주민들 가운데는 그 유명한 미국의 케네디 가문도 섞여 있었다. 우리나라의 감자 재배 역사는 길지 않다. 19세기 중엽에 청나라로부터 들어왔다. 순조 32년(1832년)에 영국 상선이 한국에 와서 전라도 태안에 1개월 정도 체류한 일이 있었는데 함께 타고 있던 네덜란드 선교사 찰스 구스라프가 의학 · 서적등과 함께 마령서의 씨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고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주요토종, 강원 중심 산간지역에 분포
한국 토종감자로는 중부의 산간부에서 재배되

어 왔던 춘천재래라는 자주감자가 있으며 경기도 화성지방에서 박기생 할머니가 한 평생 신주처럼 심었던 속이 노란 노랑감자, 강화도 교동면 지석리 강화옥 할머니가 심어온 분홍감자와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의 왕국옥 할머니



속이 노란 노랑감자. 청춘감자라고도 부른다.



울릉감자는 속이 붉다



아지(꽃포)에 뿌리고 해서 '아지감자'

니가 심어온 아지감자, 강원도 평창군 대화 3리의 김문기 할아버지가 심었던 묵발두지감자, 울감자, 돼지감자 등이 있다. 또 많지는 않지만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경북 산간지역에서도 더러 찾아볼 수가 있다. 그외에도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농업유전공학연구소 유전자원과의 협력 등으로 전국에서 붉은감자, 장관감자, 울릉감자, 청지감자, 춘천재래 등 70여 품종을 수집하여 보존 이용하고 있다.

신주처럼 모셔온 노랑감자

토질을 가리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하며 찌 놓으면 파삭하고 속이 노란,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노랑감자이다. 추수한 다른 곡식들이 모두 동이 나는, 고개 중에 넘기 힘든 고개 '보릿고개'를 넘을 때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찌 감자는 쌀밥에 못지않은 귀중한 먹거리였다. 강원도에 많은 토종 자주감자가 아린 맛을 지닌 반면, 노랑감자는 아린 맛이 없고 간식으로 써 뿐만 아니라 찜고추 따서 멸치를 조금 넣고 간장에 조리면 그 자체로 훌륭한 찬이 되는 여름 한철 미각을 돋구는 별미이다.

쫄득한 맛 '아지마'

새싹의 색깔이 온통 보라색을 띄고 있는 아지마는 아지감자라고도 부른다. 계란형으로 통을 면서 눈도 알아 모양이 예쁘다. 아지 때나 되어서 눈에 모를 내고 나서 캐내니 아지감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지 때 캐내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땅속에 묻어 겨울을 나면 이듬해 4~5월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저장성도 뛰어나다. 아지마는 찌면 육질이 쫄득하고 꼬득해서 반찬용으로 좋고 아린 맛이 전혀 없어 간식용으로 애용되었다.

토종감자의 대명사 자주감자

여주군 감천면에 사는 이연수님(74세)이 대를 물려온 자주감자이다. 임춘을 지나서 심으면 6월 초순에 캐는 빠른 감자이다. 보통 자주감자와는 달리 통고로 매끄러운 5~6cm 길이에 겹질색은 자주 빛이고 눈은 얇다. 파싯파싯하고 맛이 좋아 간식용으로 많이 먹었다. 현재는 춘천재래 등 자주감자의 지방종들이 30여 종이나 수집되어, 대관령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보존하면서 육종에 이용하고 있다.

속이 붉은 울릉감자

옛날부터 울릉도에서 심어왔다는 울릉감자는 홍감자, 양감자, 돼지감자, 자지(자주)감자, 분홍감자라고도 불려왔다. 울릉을 사동에서는 백무암(67세)은 파싯파싯하면서 맛이 좋아서 50여년을 심어왔었다. 울릉군 서면에 사는 김정수(84세)할아버지는 60여년을 심어왔으면서 씨를 안떨굴려고 계속 심는단다. 울릉감자는 길쭉하게 생겼으며, 속이 붉고 찌 놓으면 파그럽고 맛이 좋아 간식용으로 먹었다고 한다.

강화 분홍감자

강화도 교동면 지석리에서 강화옥 할머니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80여년 이상을 재배하여 왔는데 겹질이 분홍색이고 눈이 얇다. 꽃도 줄기도 보라색을 띤다. 늦감자로 5월초에 심는데 새끼감자가 많이 달린다. 술에 찌면 쫄득쫄득하며 맛이 좋고 작은 새끼감자로는 조림하면 반찬으로도 좋다. [in](#)



겹질색이 자주빛이고 눈이 얇은 자주감자



강화분홍감자 꽃



다이어트와 당뇨병에 탁월

감자는 양분을 줄기에 저장하여 모양이 변한 덩이줄기이다. 마령서로도 부르고, 영어로는 포테이토이다. 감자의 원산지는 페루, 볼리비아의 해발 4,000m의 안데스 고원지대이다. 남미에서는 잉카제국에서 1,000여 년 전부터 재배되었다고 한다. 감자는 가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로 키는 50~100cm 정도이다. 줄기의 땅속마디에서 기는줄기가 나와 그 끝이 비대해져서 덩이줄기인 감자가 된다. 줄기 끝에서 꽃대가 길게 나와 지름 2~3cm 정도 되는 별모양의 엷은 자주색, 흰색, 청백색 꽃이 핀다. 꽃이 진 다음에 작은 토마토와 같은 예쁜 열매가 달린다. 기온이 10~14℃ 정도

이고 낮의 길이가 8시간 정도로 짧아야 감자가 잘 난다. 그래서 감자를 이른 봄에 땅이 녹는데로 일찍 심는다. 유럽에서는 전해진 최악의 선물은 담배이며 신의 선물은 감자라고 이야기 할 만큼 유럽 사람들은 육류와 함께 감자를 제1가는 주식으로 먹으며 요리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자밥, 감자국, 감자떡, 감자수제미, 감자범벅, 감자조림, 감자 부침개 등 다양하게 조리해 먹거나 굵거나 술에 찌서 간식으로 이용 하지만 주식의 개념은 되지 못한다. 여러 가지의 식품들 중에서 감자만큼 좋은 효능을 갖는 것도 드물다.

고혈압 및 동맥경화 예방효과

감자는 밥의 16배나 되는 칼륨의 보고로 칼륨은 수분을 적절히 조절 해주므로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한다. 혈압강화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천연식품인 감자를 통해 칼륨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당뇨병 환자에게 효과

감자에는 탄수화물의 양이 쌀밥이나 고구마보다도 적고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치를 급상승시키지 않는다. 또한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

위궤양 치료 및 예방 효과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해독작용을 하며 세포조직의 재생기능 촉진작용이 있다. 판토텐산은 체내점막을 강하게 해주며 생츄름과 같이 마시면 위궤양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변비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빈혈 예방

감자에는 비타민 B1, B2, C 등이 매우 풍부한데 그중 비타민C는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항암 효과

슬라닌은 우리 몸 속에 있는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포의 유사분열을 막아서 암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포 독성 작용이 있다. 또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들을 억제하는 항진균 작용과 항균 작용이 있다.

다이어트에 효과 및 피부미백효과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조절과 다이어트에 좋다. 또한 감자속의 칼륨은 노폐물을 체내에서 배출해주므로 자연적으로 피부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달의 텃밭 농사 길잡이

과채류 지주대 세우기 및 유인하기

텃밭에서 나는 채소는 어느 것보다 견줄 수 없는 맛있는 신선한 농산물이다. 정성훈 농촌지도관은 36년간 농업기술지도도를 통해 터득한 농사기술의 편리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자신의 농사에 적용하고, 농민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그가 전하는 쉽고, 편리한 농사법을 주말농장 및 텃밭농사 가드너들에게 전한다.

■ 글·사진_ 정성훈 기자 / 자료협조_ Daum 카페 '농사길잡이'

고추·가지 지주...이렇게 세우자

고추 정식이 끝나면 지주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고추 키가 크고 열매가 많이 달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쓰러지거나 줄기가 부러질 수 있다. 그래서 정식 후 15일 전후에는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지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한다.

지주 설치 방법은 고추포기마다 지주를 세우는 '개별지주방법', 일정한 포기마다 지주를 설치하고, 양끝의 줄로 매어주는 '줄지주' 등이 있다. 그리고 정성훈 지도관이 추천하는 V형 지주가 있다. 정성훈 지도관은 "V형 지주법을 사용하면 채광이 양호하고, 관리가 편리해 현재 농민들에게 기술지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가지 같은 경우는 고추보다 줄기의 생육이 크기 때문에 고추에 준한 지주를 설치하되 지주크기가 1.5m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 첫 번째 착과고추(방아다리)는 따주는 것이 좋고 착과고추 밑 잎은 노화될 때 제거해 준다.

토마토·오이 지주는 조금 다르게

토마토는 개별지주를 설치해 재배하는데 지주의 길이는 150cm를 방울토마토는 지주의 길이가 180cm 이상인 것을 이용한다. 또 노지에서 오이를 키우려면 바람에 잘 견딜 수 있는 합장식 지주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합장식은 1~1.5m간격으로 지주를 비스듬히 꽂고 뒷부분을 서로 묶어준다. 오이는 덩굴성이므로 망 또는 줄을 이용해 설치하며 유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결순 제거...작물의 통풍과 수량 증대를 위한 필수 작업

지주 설치를 마쳤다면 결순을 제거해야 한다. 결순을 제거해야 고추가 잘 자라고 통풍이 좋아져 병충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수량을 높일 수 있다. 그는 "첫 번째 분지 밑(방아다리) 결순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정식 후 15~20일 경 줄기가 30cm정도 자라면 디딜방아처럼 두세 줄기로 나눠주는데 이것을 '방아다리'라고 한다. 보통 방아다리 자리에 꽃망울이 맺히고, 몇 일 지나 꽃핀 자리에서 고추가 달리게 된다.

웃거름 주기도 방법이 있다

밭에 작물 정식 전 밑거름(시비)을 줬다면, 작물을 심고 나서 웃거름(추비)을 줘야 한다. 보통 정식 후 3주차부터 비료를 주기 시작한다. 2주가 지나면 싹뿌리가 왕성하게 뻗어 뿌리 활착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웃거름은 요소와 가리를 보통 같이 준다. 이유는 양분의 특성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요소는 토양에서 NH₄⁺, 즉 암모니아 이온으로 바뀐다. 바뀐 암모니아 이온은 음이온인 토양입자에 붙었다가 미생물에 의해 NO₃⁻로 바뀌어 떨어진다.

남은 칼륨(K)과 인산(P)은 토양표면에 붙어 있어 뿌리가 흡수할 수 있지만 질소(N)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고추는 요소와 가리를 정식 후 일정에 따라 3번을 나눠 주는 것이 좋다고 그는 말한다. 토마토의 웃거름은 제 3회방 꽃이 피고, 1회방 열매가 탁구공 만할 때 준다고 한다. 단 초기에 많은 비료를 주게 되면 도창해 열매가 잘 안 맺힐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6월의 텃밭 Check list

■ 고추·가지 지주 설치 세 가지 방법

- 개별지주_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고추
- 줄 지주_ 5 포기 내외마다 지주를 설치해 줄을 양쪽으로 늘려주고 끈으로 매어주는 방법이다.
- 줄 지주_ 5 포기 내외마다 지주를 설치해 줄을 양쪽으로 늘려주고 끈으로 매어주는 방법으로 편리하다.



Point !

- V형 지주_ 두 개의 지주를 비스듬히 꽂았다 해서 'V형지주'라 한다. 지주를 양쪽으로 설치하고 줄을 2단으로 늘려준다. 중간에 한번 내지 두 번 묶어주는 방법으로 채광이 양호하고 관리가 편리한 지주설치법이다.



V형 지주 설치



지면에 세운 V형 지주. 많은 고추가 달렸다.

■ 오이의 지주 설치

합장식(A)지주를 주로 이용하는데 1~1.5m 간격으로 지주를 비스듬히 꽂고 위 부분을 서로 묶어주고 망 또는 줄을 이용해 설치한다. 재식거리는 180cm이랑에 45cm전후가 적당하다.



음료수병 이용



추비기구 이용

■ 가지과 작물의 웃거름(추비) 시기

- 고추_ 1회는 포기사이에, 2회 이후부터는 고랑에 주는 것이 좋다. 보통 포기당 3~5g의 N-K복합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추비 줄때는 1.5L 음료수병 밑 부분을 자른 것을 이용하거나 '추비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차_ 정식 후 15~20일경(요소 6kg, 가리 3kg/10a)
2차_ 1차 웃거름 후 35~40일경(요소 7kg, 가리 4kg/10a)
3차_ 2차 웃거름 후 35~40일경(요소 6kg, 가리 4kg/10a)

- 토마토_ 웃거름은 제3회방이 꽃이 피고, 1회방 열매가 탁구공 만할 때 10a당 요소 5kg, 가리 5kg을 준다.
- 오이_ 첫 웃거름은 정식 후 열매 비대가 시작되는 30일경에 주며 이후에 초세를 보며 10일 내외에 한 번씩 준다.

■ 가지과 작물의 결순 제거

- 고추_ 첫 번째 분지 밑 결순은 모두 제거 하는 것이 좋다 (좌). 초세 및 동종이 좋아 병해충 발생이 줄어든다.
- 가지·오이_ 줄기 아래 부분 노화된 잎부터 따주고, 과실 수확하면 밑에 잎을 제거한다.
- 토마토_ 초기에는 결순이 10cm정도 되었을 때 제거하고, 이후 발생 즉시 제거한다.



고추의 결순을 제거한다.

Step by Step

깔끔한 상추 수확법

수확 시 잎의 밑부분을 잡는다.



잡은 상추 잎을 밑으로 살짝 누른다.



밑으로 누름과 동시에 앞으로 당긴다.



깔끔하게 상추 잎이 떨어진 올바른 수확상태이다.



상추 밑둥이 지지분에진 잘못된 상추 수확상태

파 리 모 기 초 파 리 의 포 식 자

식충식물

식충식물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꽃이 화려해 관상 용으로도 인기이다. 특히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방제용으로도 효과가 높아 다른 화초류와 함께 키우면 더 이롭고, 집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에 꼬이는 초파리까지 해결해 주는 고민 해결사이다. 일찍 찾아 드는 여름을 대비하기 위한 베란다 정원의 필수 아이템으로 꼽을 만하다.

■ 글_소순복 기자/ 사진_자료_한국식충식물연구소



사라세니아

해충 방제 및 학습효과 탁월

사람들은 반신반의한다. 식충식물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국내에 식충식물을 널리 알리는 데에 공헌한 식충식물학계의 대부 장기완 농학박사는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힌다. “유기농 재배를 하는 하우스에 끈끈이주걱을 갖다 놓으니 벌레가 많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식충식물을 가정에서 키우면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제효과도 있어 다른 식물과 함께 키우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베란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충해. 특히 여름이 되면 병충해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식충식물은 식물에 꼬이는 해충 방제자로서 탁월하며, 먹다 남은 과일 찌꺼기에 달라드는 초파리도 해결해 준다. 특히 생김새가 특이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끈끈이주걱이나 파리자옥 등은 아이들에게 식물을 관찰하는 학습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더욱 좋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벌레 유인하기 위한 화려한 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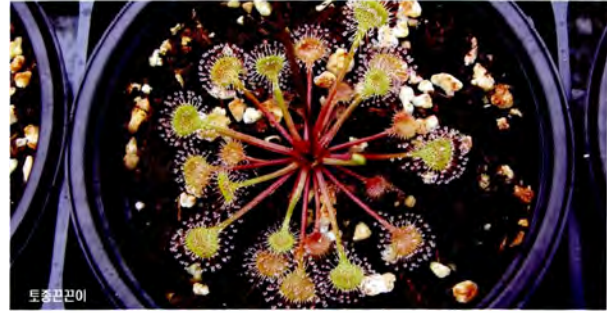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왠지 소름이 끼친다. 그래서 식충식물은 벌레잡이식물 또는 육식식물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무시무시한 식성과는 달리 겉모습은 화려하다. 식충식물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식성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된 것이다. 식충식물의 자생지는 산성 토양의 습지.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충식물은 벌레를 잡아먹으며 생존하게 된 것이라고 장 박사는 설명한다.

전 세계 600여종 식충식물 서식

식충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600여종이 있으며, 국내에는 11종이 있다. 식충식물은 끈끈이주걱과 파리자옥 외에 사라세니아, 벌레잡이제비꽃, 네펜데스, 세파로타스, 비브리스, 다윈토니아, 통발, 캔리시아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도 식충식물이 자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내에 자생하는 식충식물들은 끈끈이주걱·끈끈이귀개·땅귀개·이삭귀개 등 4종. 이 중 끈끈이귀개는 원도에서 일부 발견했을 뿐 자생군락지가 거의 드문 멸종 위기 식물로 환경부 지정 1급 보호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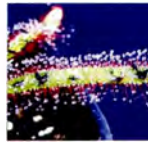
끈끈이귀개



도롱끈이

먹이를 잡는 방법에 따라 끈끈이형과 포낭형으로 구분

식충식물은 향기와 색깔, 이슬처럼 빛나는 달콤한 꿀을 가지고 벌레를 유인한다. 먹잇감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먹잇감을 잎에 달라붙게 하여 잡는 끈끈이형과 함정에 빠뜨려서 잡는 포낭형이 있다.



끈끈이주걱(끈끈이형)



네펜데스(포낭형)

끈끈이형은 벌레를 잡아 채액만을 흡수하고 껍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정에서는 떼어내 주어야 한다. 포낭형은 잎이 시들 때까지 잡은 벌레가 포낭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일반 화초보다 키우기 쉽다

식충식물은 일반 식물보다 관리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 원예식물처럼 재배하면 잘 자라지 않고 죽게 된다. 고온 다습한 초원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배하는 장소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저면관수해야 하며, 식충하기 때문에 비료를 줄 필요는 없다. 봄부터 가을까지 저면관수로 항상 물에 담가두면 되고, 겨울에는 물이 마르면 물을 채워주는 정도면 된다. 낮에는 베란다에 두었다가 밤에는 음식을 쓰레기통 옆에 놔두면 더욱 잘 생육하고, 실내는 더욱 쾌적해진다. 다년생이 많고 1~2년 후 화분만 갈아주면 된다.

꽃대는 잘라주는 것이 벌레잡이에 효과적

식충식물은 종자에서 2~3주면 발아하고, 1주일 만에 건열이 나오기도 한다. 건열이 나오면 바로 벌레잡이가 가능하다. 꽃을 보기위한 것이 아니라 벌레를 잡기 위해 식충식물을 키우는 것이라면 꽃대는 꼭 잘라주어야 양분이 꽃대로 이동해서 식충식물이 약해지거나 죽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식충식물의 재배 및 관리

용토 ▶ 양분 없는 혼합토 좋다

식충식물은 비옥한 토양일지라도 식충을 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시중에서 판매되는 원예용 토양은 식충식물이 자라는데 양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뿌리가 썩고 죽게 된다. 각 종류마다 생육환경이 다르지만 산성이며 양분이 거의 없는 피트모스와 모래를 1:1 혼합한 용토가 좋다.

물 ▶ 저면관수로 항상 촉촉하게

식충식물은 물을 좋아하며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토양은 생육기간동안 촉촉하게 유지해야 한다. 일반 원예에서는 물을 위에서 뿌리지만 식충식물은 점액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저면관수로 해야 한다. 자연에서는 생육이 왕성해 비가 와도 무관하다. 물은 정수기물이나 빗물이 좋다.

화분 ▶ 플라스틱 및 유약 점도 화분으로

플라스틱 화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유약을 바른 점도 화분도 좋다. 그러나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점도 화분은 증발이 잘되고, 토양에 축적될 수 있는 해로운 무기염을 흡수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햇빛 ▶ 생육환경서 햇빛이 가장 중요

햇빛은 식충식물의 생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동쪽 방향의 베란다나 돌이 좋다. 오전에는 햇빛이 충분히 비치고, 오후에는 그늘이 지는 곳이 최적이다. 햇빛이 불충분하면 약한 식물이 된다. 끈끈이주걱의 경우 햇빛이 불충분하면 잎이 착색되지 않고 녹색을 띠며, 사라세니아의 대부분은 포충낭의 두껍기 열리지 않고 빨강색으로 착색되지 않는다.

화원보다는 농장 및 인터넷 구입

식충식물의 시중 판매 가격은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천차만별. 희소성에 따라 가격차가 있고 끈끈이주걱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식충식물은 전문 농장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 화원은 햇빛이 들지 않아 생육환경이 좋지 못하다. 집에서 키우다가 시들해지면 농장에 갖다 주어 A/S를 받을 수도 있다.

도움말



장기완 농학박사
한국식충식물 연구소(www.sundew.co.kr) 소장
파리자옥 신동중(Korea melody shark)을 미국 ICPS에 국내 최초 품종 등록
특허: 끈끈이주걱의 조직배양법
저서: 식충식물 재배(산보출판사)
인터넷 식충식물마트(www.carnivorousplantfarm.com) 운영



끈끈이주걱의 벌레 잡는 과정

식충식물 종류와 특징



끈끈이주걱

과 명 끈끈이주걱과(Droseraceae)
속 명 끈끈이주걱속(Drosera)
종 수 120여종
자생지 전 세계
일반명 Sundews
한국 자생종 3종

잎이 주걱모양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끈끈이주걱은 이슬 같은 끈끈이액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며 벌레를 유인한다. 여러 식충식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종으로 전 세계에 120여종이 분포해 있다. 크기가 매우 다양해 몇 mm부터 1m까지 혹은 그 이상인 것도 있으며 관목처럼 자라는 것도 있다. 긴 잎끈끈이주걱이 식충식물중 가장 해충 방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네펜데스

과 명 네펜데스과(Nepentaceae)
속 명 네펜데스속(Nepenthes)
종 수 80여종
자생지 동남아시아의 열대 지방
일반명 벌레잡이통꽃, 벌레잡이덩굴,
Tropical pitcher plants, Monkey cups

네펜데스속은 분류학적으로 8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200여종의 변종이 있다. 보르네오나 말레이시아의 고산지역에 다양한 네펜데스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네펜데스속은 17세기 중엽 무렵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식충식물이라는 것을 안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네펜데스 잎은 녹색에서 황록색이며 잎보다 더 긴 덩굴손을 만들기 위해서 잎 끝에서 계속자라 나오는 주맥을 가지고 있다.



파리지옥

과 명 끈끈이주걱과(Droseraceae)
속 명 디오니아속(Dionaea)
종 수 1종(Dionaea muscipula ELLIS)
자생지 미국 캐롤라이나(Carolina)
일반명 Venus Fly Trap

파리지옥은 파종해서 개화까지 약 4~5년이 걸리고, 약 20년~30년 동안 산다. 포충 활동이 빠른 탓에 있기 때문에 식충식물 중에서 가장 호기심과 신비감을 준다. 조개껍질처럼 2개의 열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덩이 있고, 열편의 외부 가장자리에 가시가 있다. 열편 위에는 중앙 가까이에 매우 민감한 3개의 감각모(感覺毛)가 있다. 벌레가 감각모를 건드리면 덩이 1/2초 만에 닫힌다.



벌레잡이제비꽃

과 명 통발과(Lentibulariaceae)
속 명 벌레잡이제비꽃속(Pinguicula)
종 수 50여종
자생지 전세계에 넓게 분포
일반명 Butterworts

끈끈이주걱이 섬모나 덩이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벌레잡이제비꽃은 움직이지 않고 벌레를 잡는다. 열 전체에 끈끈이액이 붙어있는 섬모가 있다. 그러나 섬모가 작아 초파리나 모기정도만 잡을 수 있다. 때문에 작은 해충이 많은 농가에서 방제 효과가 크다. 꽃이 예쁘고, 개화기간도 한 달 이상 지속되어 베란다 정원에서 인기. 다른 꽃이 피지 않는 늦겨울부터 이른 여름까지 꽃을 피 더 사랑받는다.



사라세니아

과 명 사라세니아과(Sarraceniacae)
속 명 사라세니아속(Sarracenia)
종 수 8종
자생지 미국의 동남부, 캐나다의 동남부
일반명 American pitcher plants,
Trumpet pitcher plants

사라세니아는 섬유근을 가진 근경(根莖)과 포충낭이라 불리는 속이 빈 튼튼하고 같은 병 모양의 잎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포충낭은 길이가 보통 20~50cm정도 되며 1m까지 자라는 종류도 있다. 포충낭은 포충시 움직이는 부분은 없으며 벌레가 포충낭 안으로 들어오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수단만을 가지고 있다. 포충낭은 봄부터 늦여름 혹은 초가을까지 나온다.



세파로타스

과 명 Cephalotaceae
속 명 Cephalotus
종 수 1종
자생지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
일반명 Australian Pitcher Plant

네펜데스와 같이 안에 소화액이 있는 포충낭이 있다. 벌레잡이 목적 외에도 아름다워 관상 가치가 높다. 포충낭을 크게 만들려면 반그늘에 갖다 놓으면 녹색을 띠면서 포충낭이 커진다. 다시 밝은 장소로 옮겨주면 진한 자주색으로 착색되는 신비의 식물이다. 관상 가치가 높아 시중 판매가도 비싼 편이다. 작은 것이 1만5000원 선이다. 꽃은 6~8월에 자주색, 보라색, 파랑색 그리고 노랑색 등으로 핀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번식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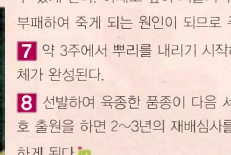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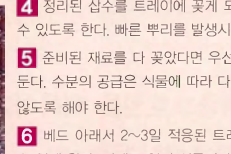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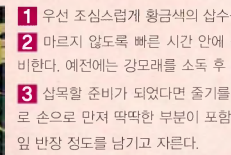
간단한 삼목으로 이루는 육종가의 꿈

우리는 보통 DNA를 일컬어 유전자의 본체라고 말한다. 생물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로 이루어진 유전적 정보는 생물의 생명 유지 및 자기 복제(複製)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때 만약 하나의 유전적 정보가 상실되거나 변형되지만 해도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간혹 식물의 종류 중에서 부모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모양이나 색, 크기 등을 나타내는 것들을 발견하곤 한다. 현재까지 발전된 과학에 의하면 식물은 동물과 달리 특정한 질병이 아닌 유전적 변형, 혹은 변이에 의한 경우 그 변이된 종류를 잘라내어 삼목이나 접을 붙이거나 조직을 배양하는 방법 등으로 영양체를 번식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변이된 유전적 정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누구든 변이된 새로운 식물체를 이용해 신품종을 육종할 수 있는 '육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면 간혹 식물의 돌연변이에 의한 무늬 식물을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잎의 아름다운 무늬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이 된 것이다. 신품종 등로는 국립종자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신규성, 균일성, 안정성, 구별성이라는 4가지 항목에 모두 적합해야 등록 가능하다.

Step by Step ▶ 골든라이트 변종 삼목법



신품종 보호가 필요하다

국내 종자가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가. 우리가 먹고 보는 채소나 화훼류 중 외국에 로열티를 줘야 하는 것들이 있다.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2년에 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조약 때문이다. 한국은 가입 10년이 되는 지난해부터 모든 신품종에 대해 로열티 지급이 의무화됐다. 가뜰스스로 우리 품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감을 지녀보자.

■ 글_정승환 기자/ 자료_협조_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기획과 이승인 박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김원희 연구관

종자는 금보다 비싸다?



우리가 잘 아는 파프리카(착색단고추)는 1립에 500원 수준이다. 1g에 200립 기준이면 최소 10만원. 금액이 3.75g당 21만원(5월 14일 현재)정도이다. 1g당 약 5만7천립 정도이면 파프리카 씨앗이 금보다 약 2배정도 비싸다는 말이다. 토마토와 같은 미세 종자들은 1g당 종자수가 많아 종자가격이 금값의 최대 6배정도 되는 것이다.

국립종자원 이승인 박사는 “파프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소 씨앗은 1대 잡종 이후 더 이상 같은 형질의 종자를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채소 씨앗들은 종자 특성상의 이유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매년 외국계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품목별 재배 면적 기준으로 로열티 지급액은 지난해 20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로열티 주도권 경쟁

하지만 점차 로열티문제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아 가고 있다.



말기는 2004년 국내 재배 작물 중 순수 국산은 4.6%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는 70%이상까지 국산 말기종자의 유통율이 올랐다.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말기인 장화, 육보 등의 일본산 말기가 주류였지만 이제 매향, 실향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윤우경 과장은 “채소종자의 경우 로열티와 같은 연구개발비가 종자금액에 포함되어 로열티에 관한 갈등은 없다. 또 올해 1월 7일로 품종보호기관이 경과되어 로열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국내 종자들이 종자 한류를 퍼뜨리기 위한 노력도 만만치 않다. 국내 종자 기업인 (주)농우바이오는 미국과 중국에 국내 우수 종자를 육종해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고 있다.

사이의 ‘젠틀맨’과 식물신품종보호

사이의 신곡 ‘젠틀맨’의 일명 ‘시간방춤’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 춤은 어느 안무팀이 개발한 것으로 월드스타 사이도 안무사용을 위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는 지식재산권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의 품종적 특징을 인정하고, 새로운 품종에 대한 안전보호장치를 만든 것이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이다. 즉, 새로운 품종을 육종한 사람에게 상업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해 협약에 따라 2012년 1월 7일자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로 지정됐지만 2012년 1월 7일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초류가 포함되면서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이 되었다.

신품종이 되려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한 개의 품종 명칭 등 5가지 품종보호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5가지가 종자산업법에 규정한 출원방식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품종보호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농작물과 산림작물, 수산작물로 나눠 작물분야별 3개 기관에서 심사를 나누고 있다. 국립종자원이 농작물과 원예작물(채소, 버섯, 화훼·특용·사료·식량) 등을 담당하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임목·산림작물을 품종보호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해조류바이오센터가 김·미역 등을 담당 운영할 예정이다.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

농진정이 개발한 필레드(Peral red)



- 구별성(D). 화색(적색45B), 꽃잎수(약 34장), 꽃 형태(고심형) 등 16개 특성에서 구별성이 인정된다.
- 균일성(U). 1년차 재배시험 결과 변이가 없어 1년차 재배시험 결과 안정성이 인정됐다.
- 안정성(S). UPOV 회원국의 영양번식법을 심사기준으로 1년차 재배시험 결과 안정성이 인정됐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화훼류



피치젠(Peach Zen)
검꽃으로 꽃잎 수는 중간, 꽃색 그룹은 분홍색



와이트젠(White Zen)
꽃잎수는 매우 적고 꽃 색은 흰색, 꽃잎 모양은 원형.



핑크걸(Inky Girl)
꽃잎 표면 기부에 밝은 황색의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



백마(Baekma)
백색의 겹꽃 스탠드드립종으로 9월 하순에 자연 개화하여 만생 이후주.



일월(Ilweol)
왕색꽃잎과 적갈색 꽃술의 스프레이드립종으로 10월 하순~11월 상순에 개화하는 절화용 중생주목.



핑크프라이드(Pink Pride)
옐로우 또는 반겹꽃 품종으로 착색된 꽃의 수는 많고, 꽃은 산화시형이다.



FA종간잡종나리 ‘그랜스타’
꽃잎 화피색은 연두색의 단색이고 꽃색은 끝으로 갈수록 더 밝다. 수술대 및 암술대는 황녹색, 먹은 옅은빛 갈색이다.



FA종간잡종나리 ‘핑크펄’
꽃이 진분홍색이고, 초장이 길어 절화로서 가치가 높은 품종이다. 2011년 일본에 오리엔탈나리 경매 단가 수준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OT종간잡종나리 ‘릴리펄’
꽃병으로 주요색은 분홍색이고, 꽃 형태는 올꽃, 꽃잎 가장자리의 물결경도는 중간이다. 꽃잎 변점의 색은 빨강색이고, 수술대의 주요색은 녹색이다.

품종보호등록을 위한 조건이 있다. ▲품종이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 4년 이상 이용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은 ‘신규성’,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한 가지 이상 품종 특성이 명확히 다른 ‘구별성’(Distinctness),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예상되는 변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균일한 ‘균일성’(Uniformity), ▲식물이 계속 새로운 번식을 해도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안정성’(Stability), ▲다른 품종과 식별될 수 있는 한 개의 고유한 ‘품종명칭’(Denomination) 등이 있다. 등록 구비요건 중 구별성(D), 균일성(U), 안정성(S)은 사실 또는 표징에 해당 품종의 1~2년간의 재배시험을 통해 직접 특성검정이 실시된다. 이를 ‘DUS 검정’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로열티를 꽃 피우는 우리 야생화



표레우리 우리드림 오렌지



상록잔디 패랭이



가우리베이비



031-634-0326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 길 87

New Item

클레오파트라&네로 황제의 Loveholic Rose

‘가장 흔한 듯 하지만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꽃’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꽃’ 이런 이중적 매력을 갖고 있는 대표 꽃이 바로 장미가 아닐까. 고고학자들은 장미의 역사를 3천만년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인들의 장미사랑은 시들지 않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그 오랜 역사만큼 고대부터 장미와 얽힌 이야기도 수백가지는 될 듯. 그래서 농가는 물론 각 기관에서도 장미의 신제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 고양국제꽃박람회(4월 27~5월 12일)에서도 역시 주요 신제품의 화두는 장미가 장식했다. ■ 글 소순복 기자 / 사진 각 농업기술원



Story Tip

장미 이야기

역사 속 장미...

장미가 미용에 쓰인 것은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의 귀족 여자들은 장미꽃을 주름을 없애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미의 여인 클레오파트라라는 장미향수 장미목 육은 물론 그녀의 연인 안토니우스가 자기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거처를 장미 잎으로 가득 채웠다고 한다. 네로황제 역시 장미 애용가였는데, 축하연 때 장미로 목을 장식하고 하룻밤 사이에 15만 달러 상당의 장미를 소비했다고 한다.

장미를 살 때...

가정에서 꽃병에 꽃을 꽂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개화 상태가 20% 정도이면 적절하고, 꽃바구니용이나 선물을 꽃 다발은 30~40% 정도 핀 상태가 좋다. 말릴 수 있도록 길게 만든 꽃다발이나 벽에 걸어 두어 말릴 목적으로 구입하는 꽃은 50~60% 정도 피어있는 것이 적절하다.



화훼 중 장미 신제품 최다 등록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이 최근 2013년 4월 품종보호 동향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국내 품종보호출원 누적건수는 총 6,532품종, 세계 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12년 동안 등록된 품종은 53종인데 이중 화훼 32, 식량 12, 채소 4, 특용 3, 과수 1, 버섯 1품종 순으로, 화훼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장미’가 23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화훼 재배면적의 6.7%

또 소비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장미는 국내 화훼 재배면적의 6.7%, 절화류 생산액의 3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다드 장미가 90% 이상 재배되며 적색 60%, 분홍색 품종이 20% 내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녹색, 복색 등 다양한 화색과 화형이 소개되어 재배되고 있다. 국내 품종 개발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00년 ‘미향’(Kim 등, 2001) 품종을 시작으로 전남도원, 경기도원 등 6개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화색의 신제품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장미사업단이 구성되어 활발한 품종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만난 장미 신제품



이노센스 <전남농업기술원>

- 분홍·녹색 절화용, 스탠다드 계통임
- 줄기가 곧으며 절화수명이 우수함
- 향기가 있으며 절화지 중간 윗부분의 가시가 거의 없음
- 화형이 우수하여 부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하트온 <전남농업기술원>

- 적색과 백색이 혼합된 복색 정미로 색상이 화려함
- 절화수명이 길며 꽃이 크고 가시가 적은 편
- 수량성이 우수하여 재배농업인과 소비자로부터 호평



플레버언 <전남농업기술원>

- 연황분홍색의 절화용으로 대형계 스탠다드 품종임
- 줄기가 곧고 긴가시가 중간보다 많은편
- 잎 녹색정도와 광택이 중간정도이며 향기가 강하고 절화수명이 김



탐핑크 <전남농업기술원>

- 분홍색 절화용 스탠다드 계통으로 화색이 선명함
- 줄기가 곧고 가지 굵기가 일정함
- 향기가 있으며 흰가루병에 강하고 수량성이 우수함
- 꽃봉오리 화색은 주홍이나 만개하면서 분홍으로 변함



미소 <충북농업기술원>

- 삼복번식이 용이하고 병해충에 강
- 꽃잎수가 많고 두꺼우며 저장성 습진(곰팡이병)에 강함
- 절화수명이 길고 수량이 많음



그린펠 <충북농업기술원>

- 초세가 강하고 절화장 큼
- 녹색색 화색이 꽃대 및 꽃목이 굵어 상품성이 높음
- 가시가 없으며 향이 강함



우아미살몬 <경북농업기술원>

- 꽃잎수가 적당하고 고심형으로 화형이 우수함.
- 측지 발생이 적고 줄기가 곧게 자라며 절화수명이 김



미리내골드 <경북농업기술원>

- 화심에 황색빛을 띤 백색 스탠다드형 절화 장미
- 꽃잎이 정연하게 밀리는 고심형으로 줄기가 곧게 잘 자라고 꽃목이 강건하며 절화품질이 우수



러빙하트 <경북농업기술원>

- 선명한 진분홍색의 스탠다드형 절화
- 수세가 강건, 절화품질 우수
- 흰가루병에 강하고 측지 발생이 적음
- 줄기 윗부분에 가시가 없어 꽃잎의 손상이 적음



탐그레이스 <경북농업기술원>

- 연한 살몬 빛을 띤 오렌지색의 대륜 스탠다드 장미
- 고심형 화형의 다수성 품종으로 흰가루병에 강함
- 줄기가 곧게 잘 자라고 꽃목이 강건하며 절화품질이 우수

장미 꽃말

적색	열렬한 사랑
백색	결백, 비밀, 사랑의 한숨
황색	질투, 부정
적황색	물타는 사랑
핑크색	감정, 사랑의 맹세
보라	영원한 사랑

젊은이들 사이에 장미 선물 의미

1송이 (별강)	당신은 캣카입니다.
1송이 + 안개꽃	이대로 보낼 수 없다.
3송이 I LOVE YOU	
20송이	열(10) 열(10)히 사랑합니다.
22송이	둘만의 사랑
35송이	사모합니다
44송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100송이	100% 완전한 사랑

식물 건강과 병해충

화분에 있는 식물의 잎이 처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물을 한 주전자 받아 와 화분에 부어 준다. 팔팔팔, 소리마저 시원하다.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하다. 화초도 이제는 목을 충분히 축였으리라 생각하며 만족해 한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화초는 점점 더 시들어만 간다. 화분 때문에 삶의 기운을 느낄 수 있던 집안이 화분이 시들면서 생기도 사그러드는 것 같다.



곰팡이의 지체부 감염에 따른 지상부 시들음



잎에 나타난 종재벌레의 식은



곰팡이에 의해 지체부에 감염된 근주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잎에 나타난 가락지 무늬



충북대학교 식물학과
차병진 교수

또는 '병해'라 하고, 해충 때문이었을 경우에는 '충해', 그리고 환경요인 또는 생리적 문제였을 경우에는 '장애'라고 부른다.

관심과 사람만이 식물건강을 좋게한다

화분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환경조건을 잘 맞추어 준다면 식물은 해를 넘겨가며 잘 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잘 맞추어 준다는 것이 단순히 물과 비료를 적당히 주고 해가 잘 들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식물이 잘 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애정이다. 병이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지, 생육조건은 적당한지 언제나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그 병해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식물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광합성, 흡수와 증산, 호흡 등 삼박자 맞추야

뒷밭의 고추를 기꾸거나 화단의 채송화 밭을 돌보는 것이 화분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뒷밭이나 화단의 식물들은 대개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내의 화분 식물들은 때와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기 있던 식물이 오늘 갑자기 기운을 떨구기 시작한다. 잎을 뒤집어 보면 하얗고 조그만 벌레들도 붙어있다. 식물들 건강하게 키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식물이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 대사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식물의 주요 대사활동이라면 크게 광합성과 흡수와 증산, 그리고 호흡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들 문제없이 수행하는 식물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이 중 하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물은 건강하게 살 수 없다.

물관리 실패는 감염으로 이어진다

흔히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숨은 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식물도 숨을 쉰다. 식물도 숨 쉬지 못하면 질식사하여 죽는다. 잎이 질식사하여 죽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흙 속에 있는 뿌리는 배수가 좋지 않을 때는 물에 잠겨 숨을 못 쉬고 죽는 일이 상대적으로 흔하다.

뿌리가 죽으면 지상부도 따라 죽는다. 따라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관리'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물관리가 잘못 되었을 때 나타나는 피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감염에 의한 병'의 위험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병원균에 따른 방제력 찾아야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 즉 병원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곰팡이인데, 최근에는 곰팡이 이외에도 바이러스나 세균, 파이토플라스마 등에 의한 병도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선충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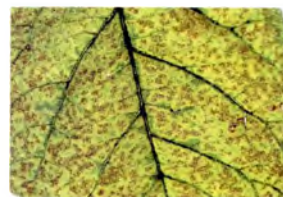
곰팡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생물로서 주로 바람이나 물에 의해 전염되며, 세균과 파이토플라스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으며 세균은 주로 물에 의해서, 그리고 파이토플라스마는 주로 흡즙성 해충에 의해서 전염된다.

바이러스는 매우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도 없으며 접촉이나 해충 등에 의해서 전염된다. 선충은 지렁이 모양의 동물인데 길이가 1mm 이하이고 투명하여 맨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이 그 원인들이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특성이 병 방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곰팡이에 의한 병은



식물의 벗자루병을 일으키는 파이토플라스마



물푸레나무 잎에 나타난 오존 피해

가장 흔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살균제 등 방제할 수 있는 약제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곰팡이 병에 대해 서안 효과만 있을 뿐, 나머지 원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제약제가 거의 없다. 바이러스 병은 병든 식물들을 없애버리는 방법 이외에는 방제법이 따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세균과 파이토플라스마의 경우에는 마이신의 항생제들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방제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저항성이 나타나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선충도 역시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방제법이 없는 실정이다.

예방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필요

따라서 식물병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이며, 예방의 기본은 식물들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물의 재배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광합성을 위해서 충분한 빛을 받아야 하며, 질소와 무기염류의 흡수를 위해 토양에 수분과 비료가 적당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식물들 건강하게 관리한다면 해충의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다. ■

실내 식물들 건강하게 유지하는 다섯 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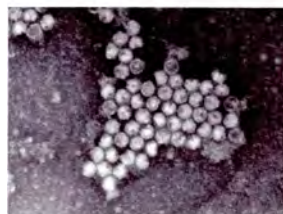
1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식물과 화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만약에 벌레 또는 벌레 알 같이 생긴 것이 보인다면 병의 징후가 보인다면 폐기하거나 소독한 이후에 들여와야 한다. 식물체에 붙어 있는 벌레 또는 알은 손으로 떼어내거나 물로 씻어서 없앨 수 있으며, 병반이 생긴 잎이나 가지는 잘라 없앤다. 화분은 옥살용 락스를 5배로 희석한 용액에 몇 시간 담갔다가 꺼내어 깨끗한 물로 잘 헹구고 말려서 사용하면 된다.

2 문제가 될 만한 장소를 피하여 식물들을 재배한다. 라디에이터 등 난방기 옆에서는 건조피해를 입기 쉬우며, 에어컨덕터 근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다. 또한, 겨울철에 창 옆에 놓았을 경우에는 동해를 입기도 한다.

3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은 남향의 창가에서 키우고, 음지식물들은 북향에 놓는 것이 좋다. 어두운 곳에 있던 식물들 갑자기 밝은 태양광 아래로 옮기는 것은 벌딤(일스트, 피스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4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에 의해 실내습도가 매우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난방기나 냉방기를 가동하는 시기에는 가습기를 작동하거나 식물체에 수시로 물을 분무해 주는 것이 좋다.

5 식물들 심는 토양은 항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배수가 잘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식물들을 재배하였던 토양, 특히 키우던 식물에 곰팡이가 피거나 무르며 죽었던 토양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양란에 점무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한 질엽성 탄저병

계란(卵)과 유(油)의 만남

난황유



기상청에 따르면 6월의 기상은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인다고 한다. 장마도 평년과 마찬가지로 6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예보되었다. 장마가 오기 전에는 진딧물을 비롯한 식물을 기주로 하는 해충들이 월동을 끝내고 번식하기 시작한다. 유기농이라는 흐름에 가드너로서 단순히 마트나 농약사에 가서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고민할만 하다. 베란다 또는 텃밭에서 일하는 초보 유기농 가드너들에게 친환경 대표 자재인 난황유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글 · 사진_ 정승환기자/자료_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고양시농업기술센터

2006년도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난황유는 여러 친환경 경자재를 갖고 실험을 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지형진 연구관은 “유기농자재 목록으로 인정되는 화합물을 분류하고, 연구한 결과 계란 노른자의 레시핀(Lecipin) 성분과 기름과의 조화가 병해충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난황유가 개발될 당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뿐 아니라 가정에서 화초를 키우는 가드너들에게도 획기적 발명이었다. 특히 난황유는 인체와 인축에 무해하고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평균적으로 일반적 인 농약보다 가격이 1/5 수준이니 농민들에게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을 물과 섞이게 하는 ‘계란노른자’

기름은 화학적 구조와 비중으로 인해 물과는 섞일 수 없다. 화학농약을 제조할 때 지질성 성분인 유제를 물과 섞일 수 있도록 기름성분을 분해하는 유화제인 계면활성제를 혼합한다. 이런 점을 식물성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식용유와 계란이다. 즉 유제는 식용유가 되고, 계란노른자가 유화제가 된다. 계란 노른자의 레시핀이라는 성분이 인지질 역할을 해서 식용유를 물과 혼합하게 하는 계면활성제, 즉 천연유화제 작용을 하는 것이다.

HOW TO

친환경 농자재 ‘난황유’ 만들기



1 난황유와 식용유는 필수, 용량을 재기 위한 눈금 있는 용기를 준비했다.



2 물 100ml에 계란 노른자 한 개를 넣고 2~3분간 믹서나 기구를 이용해 혼합한다.



3 계란 노른자 물에 식용유 60ml를 첨가해 다시 2~3분간 혼합한다.



4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면 혼합물에 물 20L를 채워 0.3% 용액을 만든다.



5 난황유를 분무기에 담는다. 병해가 발생한 곳에 뿌려준다.

살균 · 살충 작용이 있는 난황유

난황유는 거의 모든 작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형진 연구관은 “난황유는 거의 모든 병해에 억제 효과가 있다. 난황유는 직접적으로 살균과 살충작용을 갖고 있다. 병원균의 세포벽 및 원형질의 파괴, 해충의 호흡 및 지방대사를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름은 응애류 등의 호흡을 방해하고 해충의 피부를 파괴시킨다. 간접적인 효과는 작물표면에 물리적 피막을 만들어 병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식물체 표면에 병원균 발아를 막고, 침입을 억제한다. 난황유는 거의 모든 작물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히 오이, 상추, 장미의 흰가루병, 노균병, 점박이응애를 실험한 결과 최고 98%까지 억제 효과를 보이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단 토양전염성병은 억제가 쉽지 않다. 배추잎벌레와 같은 몸집이 큰 해충은 직접 효과보다는 산란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적당한 희석배수를 사용해야 효과 증대

난황유는 기온이 낮은 겨울보다는 봄이나 초여름에 효과가 크다. 한겨울에 살포할시 증발효과가 떨어져 결빙되어 악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온건조시에는 기름과 물의 수분 스트레스가 높다. 병해충의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알맞은 희석배수로 만드는 것이 좋다. 지형진 연구관은 “농도가 너무 진하면 작물의 호흡과 대사를 방해해 생육을 억제할 수 있다. 또 희석배수가 크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희석배수로 희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병 발생 전에는 0.3%(약 330배)의 희석배수가 적당하고, 병이 발생하고 나서는 0.5%(200배) 희석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한다. 예방적 살포는 10일~14일 간격으로 살포한다. 또 병 발생 후 치료를 위해서라면 5~7일 간격으로 살포한다. 잎 앞뒷면에 골고루 문도록 충분한 양을 살포해야 효과가 높다.in

〈시기별 · 물양에 따른 희석배수〉

재료별	병 발생 전(0.3% 난황유)			병 발생 후(0.5%난황유)	
	1말(20ℓ)	10말(200ℓ)	25말(500ℓ)	1말(20ℓ)	10말(200ℓ)
식용유	60mℓ	600mℓ	1.5mℓ	100mℓ	1mℓ
계란노른자	1개	7개	15개	1개	7개

난황유로 방제되는 주요 병충해



흰가루병



응애류



노균병



탄저병



온실가루이



진딧물

정원 속 작은 생명체 다육식물

습한 시기 다육 키우기

부천의 어느 다육 식물판매장. 다육식물이 바닥부터 선반 등에 빼곡히 들어앉았다. 하우스 안은 다소 후끈거려지만 타식물에 비해 온도의 영향이 둔한 다육식물에게는 알맞은 기온이다. 다육식물은 경제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정재운 박사는 “다육식물은 경제가 어려우면 손이 많이 가는 초화류 보다 관리가 편리해 인기가 높다”라고 말했다. 인기 높은 다육의 6월 관리를 알아본다.

■ 글·사진 정승환 기자
자료 협조_ 조슈아 다육식물(031.671.3835), 경기도농업기술원 정재운 연구관

6월은 기온이 오르고 햇빛이 다소 뜨거워지고 6월 하순은 장마가 시작되어 다육식물에게 중요한 시기이다. 햇빛이 강해지는 6월은 다육식물이 직접적으로 노출 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온도에 있어서 다육식물의 자생지는 더운 기후이지만 야간 온도는 우리나라 여름철보다 낮다. 또한 장마가 시작되면 높은 습도로 인해 자생지 기후와 다르다. 이런 차이를 염두해 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 관리의 가능한 식물을 약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오니움 속은 여름에 휴면하는 다육이



휴면기에 들어간 다육식물은 물을 줄이고, 통풍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에오니움과 같은 동형다육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은 휴면 생리에 영향을 줘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된다. 에오니움은 9월 말에서 이듬해 6월 정도가 낮씨가 다소 선선해 질 무렵부터가 생육기이다. 반면 휴면기는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온도가 높은 시기이다. 휴면기에는 월 2회 정도 물을 주는 것이 좋다. 조슈아다육 조숙자 대표는 “6월과 같이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석 달까지 물을 안줘도 된다”고 말한다. 배수가 잘되는 흙에 심은 다육식물에게는 적정량의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6월 중순 이후 가급적 물은 저녁에 주도록 한다.

6월은 고온과 다습의 시작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병충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에 생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6월의 환경에서는 접목 부위에 줄기썩음병, 햇빛곰팡이병 등 발생이 많이 생기므로 가능한 통풍을 잘 시



6월의 다육 관리

1. 휴면기 다육은 물을 주지 않는다.
2. 비를 많이 맞았다면 선풍기로 말린다.
3. 햇빛이 강하다면 차광을 해준다.

켜줘야 한다. 또한 6월은 고온에 따른 식물의 호흡작용이 증가되는 시기다. 호흡의 증가는 식물체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쇠약해질 수 있다. 이때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장마기를 제외하고 6월부터 9월까지의 하루 종일 차광막을 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습기가 많고 고온인 환경에서의 분갈이는 위험

고온 다습한 시기에는 가급적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분갈이 이후 물을 바로 주면 뿌리를 썩게 한다. 분갈이를 했다면 1주일 후에 물을 주는 것이 좋다. 또 6월 하순부터 비가 오는 장마철에 접어들면 가급적 비를 맞지 않는 것이 좋다. 비를 많이 맞았다면 빨리 말려준다. 고온 천으로 닦아주거나 선풍기 등으로 말리면서 통풍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정재운 박사는 “환풍기를 이용해 일정 온도 이상시 통풍을 해주면 무패나 도장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노지에서 키운다면 비닐 등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다. in

에오니움(Aeonium) 속

에오니움(Aeonium)은 그리스어의 ainos(영구(永久))에서 유래되었는데 ‘끝없이 오래간다’는 의미이다. 모로코와 카나리섬 등에 분포되어 약 40종이 밝혀져 있는 에오니움 속은 출기가 목질화 되어 있고, 줄기 끝에 잎들이 달려있는 모양이다.

총상화서(무리져 피는 꽃이 짧은 꽃자루에 달려있는 꽃의 모양)로 노랑색, 빨간색, 백색 등의 꽃이 핀다. 잎이 약해 잎에 상처 나기 쉬운 에오니움은 동형다육이지만 겨울철 추위에 매우 약하므로 동해에 유의해야 한다.

약 5℃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 품종은 여름을 거치는 데 어렵지 않지만 다슬, 아슬디, 소인제 등의 경우 고온다습한 여름에 취약하므로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물을 아껴서 하는 것이 좋다. 물은 월 2회주는 것이 좋다.



명경

Aeonium tabulaforme
식물체 지름이 13cm이고, 꽃색이 노랑색인 명경은 잎이 나선상 방사형이다. 선명한 녹색 잎이 촘촘하게 겹쳐져 있고 노란색의 꽃이 핀다. 더위에 약해 차광이 필요하다.



청법사

Aeonium arboreum
동아프리카와 모로코에서 자라고, 잎이 녹색으로 분지가 잘되고 노란 꽃이 핀다. 꽃색은 노랑이고, 더위와 추위에 약한 편이다. 번식은 줄기로 한다.



흑법사

Aeonium arboreum 'Atropurpureum'
흑법사는 여름에 잎이 짙고, 색이 짙다. 하지만 겨울에는 잎이 길어져서 잎색도 옅다. 색이 검은 흑법사로 '블랙로즈'나 '진흑법사'가 있다.



흑사

Aeonium 'Gold Medal'
여름에는 밤색 줄이 보이나 겨울에 밤색으로 물들면 밤색 줄이 보이지 않는다. 꽃색은 노랑이고 번식은 줄기로 한다.



캐시미어바이올렛

Aeonium 'Velour'
캐시미어바이올렛은 흑법사와 비슷하나 광택이 더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잎이 도란형으로 끝이 둥글고 뾰족하며 잎에 털이 나 있다.



알월금

Aeonium haworthii 'Variegata'
잎이 로제트상으로 자라는 알월금은 잎 가장자리가 붉은 테두리로 되어 있고, 바탕은 녹색이다. '까라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버스트

Aeonium urbicum 'Moonburst'
방사상 형태로 잎 중앙이 노랑색이고 주변은 초록색인 문버스트는 계절에 따라 색이 짙고 흐려짐의 변화가 적다.



일월

Aeonium haworthii
식물체 지름이 10cm정도 되고 수축 형태로 자란다. 잎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들고, 줄기에서 기근이 나오는 형태이다.



노빌레

Aeonium nobile
'노빌'이라고도 부른다. 큰 하나의 꽃송이처럼 보이고, 잎이 두툼해 에오니움의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꽃색은 황색이고 번식은 줄기로 한다.



린들레이

Aeonium lindleyi
하나하나의 작은 송이로 이뤄진 린들레이는 꽃색은 노랑이고, 번식은 줄기로 한다. 냄새를 맡으면 솔향기가 난다.

GARDENING DIY

다육식물을 이용한

Special Mini Gardening



Wreath 리스

맨 처음 방문객을 맞는 현관문, 초록의 산뜻함으로 기분 좋게 첫인사

■ 글·사진·정지는 기자

정원가꾸는 일이 일상인 영국에서는 정원 꾸미는 일이 여의치 않으면 현관문 앞을 리스로 장식하는 것이 예의라 생각한다. 현관문도 하나의 정원이 되는 셈. 리스만들기는 결코 어렵지 않다. 양재꽃시장이나 반포 고속터미널 2층의 꽃시장을 가면 리스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다. 꽃시장까지 가기 번거롭다면 집 근처의 마트에서도 손쉽게 자재들을 구입 할 수 있다. 몇 종류의 식물만 있다면 가능한 리스만들기에 도전해 보자.

승리자의 영광을 상징

리스란 꽃과 부소재를 이용하여 둥근 형태로 만든 꽃 장식물을 말한다. 한자로는 꽃 花(花), 돌릴 환(環)을 쓰고, 영어로는 리스(wreath)라 한다. 기원전 776년 고대 올림픽게임에서 마라톤 선수의 승리를 축하해 주고, 그의 헌신적인 행동에 감사의 뜻으로 월계수 잎으로 월계관을 씌워 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인들은 꽃관을 만들어 올림픽 경기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 영광을 상징하고 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리스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도입된 후 처음에는 원래의 형태 그대로 사용되다가 1970년대 이후 점점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영원의 의미, 윤회사상 포함

처음과 끝이 없는 원을 기본 틀로 하는 것은 태양의 움직임을 나타냄으로써 신의 무한성, 불멸성, 즉 영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연의 혜택을 감사하고, 인생을 상징하여 재탄생이라는 윤회사상도 포함되어 있다.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위로, 사랑의 의미도 포함하여 원 모양으로 만들어 장식하는 것이다. 어떤 화훼장식품보다 상징성이 강한 분야이고, 형태상은 중앙의 원이 비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틀은 그대로, 소재만 바꿔 재활용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스는 주인이

방문객을 환영하는 뜻으로 문앞에 사용하는 것에 서부터 개업, 축일, 선물 등의 축하용, 크리스마스 장식용, 장례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틀이 녹색의 플로랄폼으로 만들어진 것은 생화를 꽃고, 갈색의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것은 건조화나 조화로 장식한다.

모든 장식 목적에 응용이 가능하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다. 이동성이 높고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소재만 교환하여 분위기를 바꾸어주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되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리스는 또한 문 앞, 벽면 등에 장식하는 것으로 다른 장식품보다 공간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step
by step

3만원으로 다육식물 리스 만들기

준비물

리스틀(2,000원), 이끼(5,000원), 다양한 다육식물(한 포트당 1,000원), 테이프(1,000원), 가위(2,000원), 지칠사 및 와이어(2,000원), 각종 인테리어 소품(5,000원 내외)



준비된 리스틀에 이끼를 소시지 모양으로 돌돌 말아 틀 위에 얹어가면서 와이어를 이용하여 잘 묶어준다.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잘 다듬어준다.



다육식물들을 포트에서 꺼내어 물을 털어준다. 뿌리는 잘라 사용해도 되지만, 그대로 사용하면 뿌리가 보존되어 조금 더 오래 관상할 수 있다.



반으로 구부린 지칠사를 이용하여 식물줄기를 리스틀에 고정시켜준다. 자리를 잘 잡아가며 식물들을 배치한다. 밑에 빈 공간을 포트로 포인팅 준다.



다육식물 아나는 포트에 심겨진 채로 리스에 달아준다. 지칠사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포트에 고정시킨 다음 남은 밑 공간을 채워준다.



나머지 공간은 각종 인테리어 소품을 적절히 배치한다. 소품은 각자 취향에 맞게 인형이나 말린 과일 혹은 조개껍데기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소품을 단단히 고정시킨다. 현관문이나 손님맞이 공간에 고정 고리를 부착한 후 완성된 리스를 단다.

헌 액자를 활용한 액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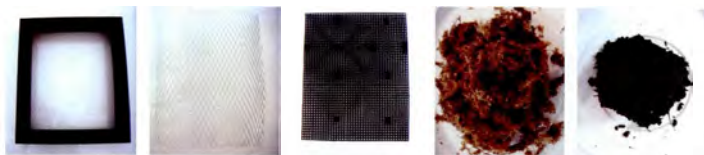
우리가 깨져서 버려지는 액자를 이용해서 벽면에 포인트를 주거나 미니 이젤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자투리 공간에 그린으로 인테리어 해보자. 액자 정원은 물을 일반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나 건조에 강한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좋다. 잎이 두꺼운 관엽 식물이나 다육 식물 등을 이용해 실내에서도 벽면 녹화를 할 수 있다.

■ 글·사진_우정아 가든디자이너(경기조경가든대학 강사)



재료

헌 액자
치킨 와이어
화분망
수태
생명토 반죽



식물
피토니아 레드스타
피토니아 화이트스타
호야
페페로미아



step by step

헌 액자를 활용한 액자정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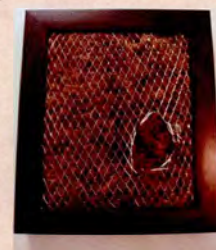
1 헌 액자를 깨끗이 손질한 후 액자에 치킨 와이어를 틀을 만든다.



2 틀 안에 물에 불린 수태를 물이 배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짜서 채운다.



3 수태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정리한 후 화분망을 넣고 액자의 뒷면을 고정시킨다.



4 완성된 액자에 식물을 식재할 위치를 잡고, 치킨와이어를 식물이 들어갈 만큼 절단한다.



5 피토니아 레드스타, 피토니아 화이트스타 등 식물에 붙은 흙은 털어낸다.



6 생명토 반죽으로 뿌리를 감싼다. 생명토 반죽이란 생명토 5:마사토3:백태2로 섞은 것이다.



7 식물의 뿌리반죽이 들어갈 만큼 수태를 덮어 낸다. 식물을 고정시키고 치킨와이어를 덮어서 눌러 준다.



8 식재 후 스프레이로 식물 잎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씻어내면 완성된다.

수분 및 영양관리에 세심한 주의 필요



액자정원은 일반적인 관수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자주 스프레이를 해주어야 한다. 영양의 공급도 따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식재 시 생명토 반죽 겉 표면에 완효성 고체 비료를 박아 주어야 한다.

또한 스프레이 물에 액체 비료를 1000배 희석해 식물의 잎 뒷면까지 엽면 시비한다. 엽면 시비는 식물의 성장이 왕성한 봄 여름 가을에는 한 달에 2~3회 해주고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준다.

우리와 함께 꽃의 세계로

백합, 튜립, 칼라, 글라디올러스, 초화 종자, 화훼플러그 묘

우리화훼종묘(주)
02-503-9094
www.wooriseed.co.kr
FAX 02-503-9097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84-1

아름다운 도시농부가 될 수 있는 방법 나도 키친가든 꾸며볼까

몇해 전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직접 삼을 들고 '키친가든'을 가꾸기 위해서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파헤쳤다. 몇 년째 완전 유기농으로 운영되는 백악관의 키친가든에선 씨앗과 농기구 값을 포함해 연간 200달러(약 22만원)의 예산으로 상추·토마토·시금치·양파 등 각종 채소와 샐러드용 허브를 길러낸다. 이처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셀처럼 텃밭을 가꾸거나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도시 농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키친가든이란 용어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 글_정지은 기자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만드는 정원

키친가든이란 이름 그대로 먹을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채소와 허브, 꽃과 열매 등으로 꾸민 정원이다. 그러나 먹을거리만을 위한 텃밭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부엌에서 조리해 이용할 먹거리를 키우는 단순한 텃밭에서 벗어나 채소의 색채와 형태, 질감까지 고려해 정원으로서의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키친가든은 채소나 허브, 과수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초화류와 정원수 등과 함께 구성된다.

굳이 텃밭과 차이점을 두자면 텃밭은 '먹을 것'을 기르는 공간, 키친가든은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만드는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키친가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텃밭과 달리 다양한 정원의 형태 가운데 하나의 유형으로 봐야 한다.



최상의 영양 상태 그대로 내 식탁에

키친가든의 가장 큰 매력은 건강한 채소와 과일을 수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마트나 시장에서



사는 채소와 과일에 비해 내 집에서 직접 수확한 열매가 맛있는 이유는 농약의 사용 여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통되는 농작물들은 후숙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따거나 유통과정에서 얻어지는 노화호르몬 등을 통해 농작물들의 맛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직접 기른 채소들은 자연그대로의 완숙된 상태로 바로 식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영양 상태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이러한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직접 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 손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작물을 길러 먹을 수 있는 기쁨까지 선사하고 있다.

텃밭이든만 있으면 나도 도시농부

키친가든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땅이 반드시 필요한 정원이 아니라 작은 화분에서도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해 도시농부가 되기에 적절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도시인들의 관심은 커져 가지만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국의 주거환경상 텃밭은 물론 키친가든을 가지는 힘들다.

키친가든의 매력속으로..

- 다양한 꽃을 혼식함으로써 생물다양성 효과를 낸다
- 키친가든에는 있는 꽃의 방향성과 방충성으로 인한 벌레들과의 상호작용
- 키친가든은 꽃꽂이를 위한 절화용 정원이 될 수 있다
-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 거기에 건 강한 원예활동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



정원이 없는 사람들도 한편 앞, 창가, 베란다, 그리고 옥상 등 해가 드는 작은 공간 어디라도 키친가든을 만들 수 있다. 주방에서 다 쓰고 버릴 냄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커다란 플랜터 박스를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작은 화분이나 천막, 냄비 등을 이용한 것을 컨테이너 키친가든이라한다.



키친가든을 꾸미려면

어떤 식물을 수확하고 키우고 싶은지 결정하는게 제일먼저 할 일. 채소와 과실수를 결정한다. 땅에 정원을 꾸밀 경우에는 땅을 갈아주고 거름을 주어 땅심을 키우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제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초화류와 각종 정원수를 위치에 맞게 구상하여 키친가든을 꾸미면 된다.

키친가든에서 배우는

재배 노하우

그룹별로 돌려심어준다
채소의 경우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임채소, 뿌리채소, 배추류, 콩과 식물)



각각 네 종류의 채소류를 구별해 모아 심고, 다음 해에는 한 칸씩 자리를 바꿔 다시 심어준다. 모든 작물들이 같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심기를 해주면 거름의 양을 줄이면서 특정 병충해의 공격도 피할 수 있다.

실수 밑이나 콩과 식물 등 높이 자라는 식물의 옆에 심어주면 반그늘을 만들어 주어 최적의 장소이다.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영양분을 듬뿍 주자
임채소와 뿌리채소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목적 거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오이, 호박 등의 식물은 열매를 맺는 데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 때문에 동물의 분을 이용하거나 혹은 꼭 썩혀 영양분이 많은 거름을 별도로 써주어야 양질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재배키트 하나면 나도 도시농부 내 방에서 기른 채소

■글·사진_정지은 기자



최근 들어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예코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초록식물을 집안에서도 가까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상품이 재배키트이다. 베란다 텃밭이나 주말농장 등 나도 해보고 싶은데 도통 방법도 모르겠고, 원예에 원자도 모르는 초짜들을 위한 매우 쉬운 아이템이다. 요즘은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만원을 넘지 않으니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가드닝의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키트는 구성품이 다 구비되어 있고, 별도로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간도 제약 받지 않아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키울 수 있다. 아이들은 집에서 자연스레 자연관찰도 하면서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재배키트들을 만나보자.

집앞 마트에서 손쉽게 구하자 다이소 재배키트

모든 상품이 1000~2000원 안팎인 다이소에서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온갖 생활용품들 다 파는 잡화점답게 허브류부터 시작해서 채소, 꽃, 새싹채소 기르기 등 다양한 종류의 재배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초보자들이라면 부담 없이 구입해서 한번쯤 시도해 볼 만 하다.

세트구성_플라워 백 또는 캔, 화분, 씨앗, 배양토

소비자가격_3,000 ~ 7,500원

사이트_www.daisomall.co.kr

재배방법

1. 플라워 백을 자른다.
2. 종이컵 한컵 정도의 물을 부어준다.
3. 씨를 1~2cm로 심어준다.
4. 겉흙이 약 2cm 깊이까지 말라 있으면 물을 준다.
5. 약 1주일 후 싹이 트면 해가 잘드는 곳에 놓아 준다.



네이버 파워블로거 바키의 노하우 브이가든 채소재배세트

파워블로거 '바키'로 활동하고 있는 박희란 씨의 베란다 텃밭 가꾸기의 노하우가 집약된 브이가든의 재배세트. 패키지 자체가 아기자기하고 여러 채소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인테리어 개념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직접 자신이 키워보고 베란다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선정하여 초보자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재배키트이다.

세트구성_크라프트 또는 알루미늄백, 흙 1.5리터, 씨앗 3회분, 가드닝가이드

소비자가격_6,500원

사이트_www.vgarden.co.kr

재배방법

1. 개봉 전, 용기 바닥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2. 절개선을 자른 후 흙을 고르게 한 다음 물을 뿌린다.
3. 가로로 두 줄의 고향을 만들어 씨앗을 2cm 간격으로 2~3개씩 넣는다.
4. 흙을 덮고 실내에 두고 싹을 틔운다.
5. 흙이 마르지 않게 하루 한 번 촉촉하게 물을 준다.
6. 싹이 나면 바로 햇빛에 내놓아 키운다.



매달 당신의 품으로 애완텃밭을 배달해 드립니다.

브이가든 자매사이트 GARDEN IN BOX

■글_황주리 기자

'월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어딜 가서 뭐라도 물어 볼 텐데, 무엇을 물어볼지도 모르고 물어봤다가는 오히려 창피만 당할까 두려운 예비 소심 원님들 분이 분명 숨어있을 것이다. 어떤 식물을 언제 어떻게 키우며 또 키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지 만 선 뜻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다면 올 봄부터 매달 가정으로 애완텃밭을 선물받아 보자.

전문가가 직접 필요한 도구와 씨앗 그리고 자세한 설명서까지 묶어 배송해 준다고 하니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절호의 식물가꾸기의 첫걸음의 기회이다. 어떠한 식물을 기를지조차 고민하는 이들에게 매달 테마에 맞춰 배달되는 GARDEN IN BOX는 초보 중에서도 초보인 가드너들의 '식물 중 선택'의 고충마저 덜어주는 똑똑한 키트이다. 감자, 바실, 셀러리, 벼, 쑥갓에서부터 느타리버섯까지 다양한 식용작물도 키우고 또 직접 재배한 작물을 요리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세트구성_매달 테마에 맞는 도구와 씨앗, 설명서 등 묶음 배송

소비자가격_23,500원

사이트 http://gardeninbox.co.kr



Container gardening Idea

생활의 재발견 드럼통이나 바구니도 화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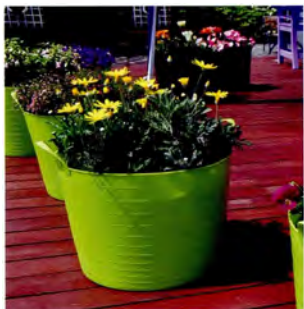


손환 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 플로리스트리 전문)
http://sohn.yonam.ac.kr



식물을 심어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실외용 컨테이너(화분)는 크기가 클수록 토양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 식물을 관리하기 편리하고 복본식물도 심을 수 있다. 그러나 크기가 큰 화분은 비싸고 운반하기 어려운 데다 서늘이 아닌 지방에는 판매처가 적어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릇가게나 철물점에서 볼 수 있는 갈색 고무통에 정원수를 심거나 채소를 심어 여기저기 배치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장식 효과와 있으면서 저렴하고 구하거나 만들기 쉬운 소프트 플라스틱 바구니와 가방형 컨테이너, 그리고 드럼통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구니 가볍고 다양한 컬러의 '실속형' 화분



전 세계적으로 다양도로 이용되는 소프트 플라스틱 바구니(soft plastic basket)는 정원용 물품을 담거나 제거한 잡초를 담기에 편리한 정원용품으로도 이용된다. 가볍고 부드러우며 크기와 색상이 다양해 바닥에 배수구를 뚫으면 좋은 화분이 될 수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구비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대형 화분으로 이용하기에 저렴하고 아름다우며 실용적이다. 이왕이면 크기가 가장 큰 43L가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대형이 잘 팔리지 않아 원하는 색상이 품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4개 정도 뚫고 숟가락 같은 부직포를 바닥크기에 맞게 잘라 깔고 토양을 채운다. 43L 정도의 용량이므로 초화류나 채소용으로 나오는 상태로 채우면 가볍고 배수도 잘 되며 충분한 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데이지, 제라늄, 장미, 라벤다 등 다양한 초화류와 화목

류를 심을 수 있다. 상토는 가까운 농자재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데 여러 업체의 제품들이 있다. 소프트 플라스틱 바구니의 색과 질감에 맞추어 꽃을 선택해보자.

천막지 가방 저가부터 고급형까지, 대형 화분 대응

소프트 플라스틱 바구니는 43L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화분이 필요할 경우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는 천막지로 만든 큰 가방이다. 외국에는 채소와 꽃을 심기 위해 이러한 가방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품에 따라 매우 비싼 고급형도 있고 일회용으로 저렴한 제품도 있다. 아직 국내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아 수입되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국내 제품도 크기와 색이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인터넷으로 판매업체를 찾아보아도 되고 원하는 크기로 만들기 위해 천막 제작소를 방문하면 된다. 모든 천막 제작소에서 만들어 주진 않으니 주문을 받는 곳을 찾아야 한다.



이 비닐 가방은 바닥에 배수구를 뚫는 것보다 옆 부분의 가장 아래쪽에 구멍을 돌아가며 4개 정도 뚫는 것이 배수에 유리하다. 이용할 토양

은 가벼운 것이 좋지만 비닐 가방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토양이 무거워도 큰 문제는 없다. 가방의 색과 식물 색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만 지방의 천막집엔 다양한 색의 천막지가 부족할 것 같다. 흰색과 녹색이 식물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 비닐 가방은 정원수를 심기에는 가벼운 토양을 이용해 무게를 조절해야 한다. 초화류나 채소류를 심기에 더 좋은 것 같다. 토양은 소프트 플라스틱 바구니와 마찬가지로 영양분이 함유된 인공토양, 즉 상토만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면 무겁지만 자연토를 이용할 수 있다. 바닥에 부직포를 깔아 배수구를 덮어주고 알갱이가 굵은 배수용 펄라이트를 1/2 정도 채우고 그 위는 알갱이가 작은 육성용 펄라이트와 퇴비를 1:1 정도 혼합하여 가벼운 토양을 만들 수 있다. 배수가 잘 되면서 충분한 양분과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토양을 배합해도 된다. 펄라이트 대신



모래나 마사토를 배수층으로 이용하면 무겁지만 더 저렴하고, 윗부분의 토양도 일반 토양과 모래, 그리고 퇴비를 혼합해 줄 수 있다.

드럼통 주변에서 쉽게 구입, 색깔 통은 화물 택배도 가능



드럼통은 강철판으로 만드는데 에나멜이나 기타 재료로 도장한 도장 드럼통과 아연으로 도금한 아연도금 드럼통이 있고 스텐으로 만든 드럼통도 있다. 금속 화분은 토양 수분과 반응하면서 성분이 녹아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저렴한 드럼통을 이용해도 식물을 키우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드럼통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까운 판매처

가 없다면 인터넷으로 주문해 화물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비를 포함한다 해도 크기에 비해 저렴한 화분이다. 빨강색이나 파랑색 등으로 칠해져 있는 드럼통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화려한 색으로 페인팅할 수 있다. 저렴한 페인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좀 더 아름다운 색을 원하면 비싸지만 인터넷의 색상표에서 색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는 외국의 친환경페인트도 있다. 물론 외

국산 친환경페인트는 드럼통 가격보다 더 비싸다.

드럼통 바닥에 구멍을 여러개 뚫어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흙이 빠져나가지 않게 부직포를 깔아 준다. 비닐 가방의 토양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한다. 드럼통은 크고 깊이가 깊으며 무게가 있는 편이어서 초화류는 물론 정원수를 심어도 되고 채소를 재배해도 된다. 이왕이면 드럼통의 색에 맞추어 식물을 심어보자.

말기대까지 10,500원
대기대까지 10,500원
대기대까지 10,500원
대기대까지 10,500원

말기대까지 10,500원
대기대까지 10,500원
대기대까지 10,500원
대기대까지 10,500원

도시, 정원을 꿈꾸다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정원. 그러나 많은 이들은 딱딱한 삶으로 그런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삶은 좀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배란다에 미니 정원 하나 정도 가꿔보는 것은 어떨까. 그 누군가는 이미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산다. 보는 것만으로 삶의 위안이 될까. 아니면 부러움만 남을까.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올해로 세 번째 도심속 숲은 아름다운 정원을 공모해 우수 정원들을 선정했다.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 함께 즐겨보자. 그리고 가꿔보자. 식물 하나라도... ■ 자료·사진 경기농림진흥재단

자연과 함께 하는 정원

주 소 : 양평군 서종면
면 적 : 4,528㎡
정원을 가꾼 기간 : 10~20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수종과 함께 연못, 분수, 파고라, 데크, 조형물, 퇴비통 조성
주인장이 꿈꾸는 정원 : 캐나다의 부차트 가든을 수차례 방문하며 느꼈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자 시작했던 정원. 지금은 벽계계곡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정원이 되었다. 우수한 계곡을 배경으로 한국고유의 나무와 야생화로 자연이 어우러지는 정원의 풍치를 조화시키고자 한다.

개인정원부분
대 상

장려상



WATER GARDEN & OUT DOOR LIVING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면 적 : 117.1㎡
정원을 가꾼 기간 : 10~20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함께 연못, 분수, 데크, 파고라, 조형물, 퇴비통, 노천스파, 캠핑텐트, 바비큐
주인이 꿈꾸는 정원 : OUT DOOR LIVING을 꿈꾸는 별장개념의 공간정원을 꿈꾸며 욕심에 이를 구현하였다. 이름하여 도심 속의 별장 '위터가든'이다.

장려상



순향기 정원

주 소 : 안성시 금광면
면 적 : 4,500㎡
정원을 가꾼 기간 : 3~5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연못, 데크, 파고라, 조형물, 퇴비통
주인이 꿈꾸는 정원 : 소나무 향이 그윽한 정원이다.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정원을 꿈꾸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정원이기를 바란다.

최우수상



드림 하트

주 소 : 남양주시 와부읍
면 적 : 400㎡
정원을 가꾼 기간 : 3~5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연못, 분수, 데크, 파고라, 조형물, 그네, 원탁
주인이 꿈꾸는 정원 : 정원 이름처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었으면 한다. 한쪽으로 연못위에 작은 폭포가 흐르고, 그 옆엔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푸르른 잔디 안에서 음악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옆에는 사랑하는 진돗개를 키울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

장려상



자연사랑 놀이터

주 소 : 양평군 서종면 / 면 적 : 700㎡
정원을 가꾼 기간 : 5~10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함께 연못, 분수, 데크, 퇴비통, 비닐하우스
주인이 꿈꾸는 정원 : 할 수 있을 때까지 건전한 노동력을 투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원

우수상



소나무동산

주 소 : 화성시 매송면
면 적 : 3,000㎡
정원을 가꾼 기간 : 5~10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현황 : 다양한 식물과 함께 연못, 분수, 데크, 조형물, 퇴비통
주인이 꿈꾸는 정원 : 주어진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고 인공적이지 않은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더욱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원예치료 및 쉼터로도 활용하고 싶다.

장려상



비비 뜰, 살롱

주 소 : 파주시 아동동
면 적 : 257㎡
정원을 가꾼 기간 : 20년 이상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데크
주인이 꿈꾸는 정원 : 살롱은 히브리어로 안락이라는 뜻으로 정신적, 물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말한다. 뜰을 찾는 모든 이들이 살롱하기를 바란다.

장려상



히어리

주 소 : 고양시 일산동구
면 적 : 40㎡
정원을 가꾼 기간 : 10~20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퇴비통, 통학, 물동
주인이 꿈꾸는 정원 :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빈 공간에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꽃이 다양하게 필수 있도록 하고 싶다.



최우수상

알토 공장 옥상정원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면 적 : 692.16㎡
정원을 가꾼 기간 : 3년 이내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연못, 데크, 파고라, 조형물, 수목등, 벤치, 테이블
주인이 꿈꾸는 정원 : 올해는 허브식재를 중심으로 향기가 나는 테라피정원을 계획 중이다. 임직원들이 휴식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더욱 쾌적해지는 것을 도모한다.

우리꽃 사랑

주 소 : 가평군 북면
면 적 : 450㎡
정원을 가꾼 기간 : 5~10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연못, 분수, 데크, 파고라, 조형물, 퇴비통, 직접 만든 도자기 소품, 현무암 석부작
주인이 꿈꾸는 정원 : 가족뿐만 아니라 정원을 다녀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편안한 정원을 꿈꾸고 있다.

우수상



옥상 하늘 공원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면 적 : 2,485㎡
정원을 가꾼 기간 : 5~10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파고라, 그림벽화, 정자
주인이 꿈꾸는 정원 :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운동 조깅코스로 활용, 상주 인원 모두가 휴식을 즐기고 편하게 산책할 수 있으면서 도심속에서 건강을 행기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으면 한다.



향기나는 뜰

주 소 : 양평군 양서면
면 적 : 6,600㎡
정원을 가꾼 기간 : 5~10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연못, 분수, 데크, 파고라, 조형물, 퇴비통, 야외무대 등
주인이 꿈꾸는 정원 : 자연과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향기나는 정원 이기를 바란다.



꿈이 있는 동산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면 적 : 1,050㎡
정원을 가꾼 기간 : 3~5년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데크, 퇴비통
주인이 꿈꾸는 정원 :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다양한 식물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정원. 여백의 땅에 지금보다 더 다양한 소재류와 허브를 심어서 나눌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



성남시 용동생태학습원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용동 359
면 적 : 360㎡
정원을 가꾼 기간 : 3년 이내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연못, 데크, 퇴비통, 치료교실(사무실, 테이블, 의자, 창고)
주인이 꿈꾸는 정원 : 이곳은 장애인들에게 원예와 영농등의 수업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과 일반시민이 함께 즐기고 가꾸어 나가는 사회통합의 장이 되길 원한다.



목터초등학교 학교커뮤니티 가든

주 소 : 시흥시 정왕동
면 적 : 3,000㎡
정원을 가꾼 기간 : 3년 이내
주요 식재 및 시설물 : 다양한 식물과 데크, 파고라, 퇴비통, 간이온실, 텃밭, 빗물저장통
주인이 꿈꾸는 정원 : 목터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함께 가꾸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정원으로 꾸며나가고자 한다.

정원문화의 새 패러다임 제시 '자연과 함께 하는 정원'이 대상의 영예를...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도내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고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3회째 '경기정원문화대상'을 공모하여, 17개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개인정원·공동정원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모두 35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장기영씨가 출품한 '자연과 함께하는 정원'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수상한 개인정원의 수상작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 꽃과 나무의 적절한 배치, 다양한 정원시설과 디테일한 정원 소재 도입, 세심한 관리가 돋보이며 평균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인 보원과 조성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양상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작품성 높게 평가

대상을 수상한 장기영씨의 '자연과 함께하는 정원'은 부부가 매일 2시간 이상 13년 동안 손수 가꾼 정원이다. 주변 계곡의 자연과 가꾸어진 정원의 조화는 전문가 수준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정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알토공장 옥상정원(용인 처인구)'은 회사사옥에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공간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영희씨의 '드림하트(남양주 와부읍)'는 교목과 관목, 초본류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으며 데크, 연못, 바비큐장 등 정원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배치가 돋보였다.

수상자들의 열망과 수준이 입증된 대회

정원문화위원회 방광자 위원장(상경대 환경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해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까지는 공동정원보다는 개인정원의 유형이 더 많았으나, 공동정원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졌다. 정원의 전체 디자인이 훌륭했으며 세심하고도 꾸준한 관리가 돋보여 시민들의 녹색생활에 대한 열망과 수준이 입증된 대회였다"고 총평했다. in

(주) 조아 이앤디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 디자인

- 공원 · 옥상정원 · 주택정원 · 벽면녹화 등 일체 조경 설계 취급.
- 관공서 · 민간 조경 설계 전문 업체.

조아이앤디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설계하고 계절별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며, **자연 · 인간 · 환경**이 하나되는 공간으로 책임지고 바쁘게 드리겠습니다.

TEL 031-726-0610
Fax 031-726-0620

(주) 조아 이앤디 JOA E&D co., Ltd

지구를 살리는

청소년 농부

_모종 심기 편

■ 글 · 사진_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_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흠만지고,
모종 심고...
'청소년농부'
프로젝트



'열대성 농부되어보기' 실험 주인공 김선호 군도 옥수수 심기에 열중이다.

청소년들이 농부가 흘린 땀을 알 수 있을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지난 3월 23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와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농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얻고자 1318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청소년농부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직접 농부가 되어 밭에서 작물을 직접 키우는 것이야 말로 청소년의 정서적 공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광주시도시농업연구회도 힘을 보탰다. 5월의 태양이 뜨겁지만 광주시 중부면 하변천리의 밭에는 아이들의 작물 심는 소리가 시끌시끌하다. 오늘은 모종 심는 날이다.

태양의 고도가 서서히 오르는 정오쯤 광주시도시농업연구회 강의실에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인다. 학생들이 오기 전 정식할 모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달에 파종한 가지, 고추, 옥수수, 토마토, 호박 등 과채류 모종이 한 뽕 정도 자랐다. 이 날은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했던 박홍식 씨가 청소년농부프로젝트를 위해 잠미 묘목을 기부했다.



시작 전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농부프로젝트 철학을 낭독한다. 중간고사 시즌이 끝난 학생들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농부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눈빛은 빛났다. 도시농업연구회 박정현 회원의 모종 심는 강의가 시작됐다. 이랑, 고랑 및 모종 재식 간격부터 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이론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학생들 또한 어떻게 정식할 것인지에 경청하는 모습이 가득하다.

모종 심으면서 '생명의 가치' 이해

드디어 모종을 심는다. 옛것에 비가 온 터라 흙이 비로 인해 습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다. 밥으로 비유하자면 '찰지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다. 연구회 회원들이 각각 구획된 텃밭에서 조별로 위치하고, 학생들이 자기 조로 이동한다.

어른 회원들의 구체적인 모종 심는 설명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이론을 들을 때보다 더욱 관심 있게 귀기울인다. 질문이 시작된다. "그냥 심으면 되나요, 흙을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어른들이 모종의 재식거리를 설명하면서 적당한 간격에 구멍을 내고 모종을 심는 것을 보이니 금세 학생들은 따라하기 시작한다.



육묘판에 지란 모종들을 본뜬으로 옮기는 학생들. 정식의 시작이다.

이날 청소년농부프로젝트 교재인 '열대성 농부되어보기' 심화디자인서 김선호 군도 참석했다. 이 군은 "내가 신청을 했지만 참여하고 보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농업을 하면서 정서적 만족감이 큰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신다는 김고은 양(15, 경화여중)은 날랜 몸으로 상추 속에는 열중이다. 힘들지만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부모님이 집에 화초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박소은(14, 경화여중)양도 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모종 심기에 참여했다.

농업을 통한 '멘토링'

청소년 농부프로젝트가 학생들이 농업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정서적 교감이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이 텃밭활동을 하면서 어른들과 고민을 나누고, 비슷한 또래끼리 힘들지만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도시농업연구회 심은숙 회장은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선생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특히 인생의 선배로써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멘토인 셈이다. 또한 학교와 학원에 얽매인 학생들에게 '농부되기'라는 프로젝트가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안겨주는 선물 같은 것이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 설문조사를 끝으로 모두 박수를 친다. 연구회 회원들은 학생들을 보내

고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자체 평가 등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실내 강의보다는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한 강의를 지향하자는 내용이다.

취재를 마치고 학생들과 어른들이 교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 농부의 모종심기(정식)



준비된 모종들(가지, 고추, 토마토, 호박). 보통 먹일을 제외한 새잎이 4~5매 정도 나왔을 때가 적당하다.



모종간격은 25cm 정도 띄고 5~10cm깊이로 구멍을 판다.



구멍에 물을 가득 채워준다.



물이 스며든 것을 확인했다면 모종을 세운다. 이때 포기 아래가 조금 높아지도록 모아준다.



모종이 바로 시계 심은 후 가볍게 눌러준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지막으로 정식 후 물을 더 주면 모종 심기 완성이다.



Garden Tool

텃밭상자의 혁명

베란다 텃밭의 필수 아이템

맛춤형 재배백

■글_ 소순복 기자

당근은 깊이 있는 뿌리 채소백에서, 딸기는 딸기 재배백에서 키워요

베란다 정원의 한계가 무너지고 있다. 기존 베란다 정원의 터줏대감이었던 고추나 방울토마토, 엽채류 위주의 재배에서 벗어나 깊이가 있거나 넉넉이 있는 작물까지 베란다 재배가 가능해졌다. 딸기도 키울 수 있고, 뿌리채소인 당근도 가능하다. 텃밭상자가 도시농부의 니즈 변화에 맞춰 기능화 되고 실속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이 앞다퉈 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 신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꼼꼼히 따져 더 편리하고 간편한, 그리고 재배에 유용한 아이템을 선택해 나만의 베란다 텃밭을 완성하기만 하면 된다.

옥상이나 가정의 작은 공간에 안성맞춤

재배백은 그동안 주로 옥상텃밭이나 학교에서 단기간 교육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되어 왔던 아이템이다. 빠른 설치 및 수거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베란다 정원이나 텃밭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배백의 인기 비결은 우선 텃밭이 없을 때 옥상이나 가정의 작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양한 규격과 모형으로 재배 특성에 맞는 작물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인가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다. 시중에는 PP 또는 PE소재로 사각이나 원통형 등 다양한 규격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매일매일 신선한 야채를 먹기 원한다면 사각 채소백을 선택하면 된다. 당근이나 감자를 키우고 싶다면 감자 전용 뿌리 채소백을, 딸기를 재배하고

싶다면 주머니가 달린 딸기 전용 재배백을 구입해 키우면 된다. 재배백의 크기도 가족 구성원의 수나 작물의 양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설치 및 해체 간편, 인테리어 효과까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설치 및 해체가 간편하고 재배 후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재배백의 매력이다.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작물도 제법 잘 자란다는 것도 신기하다. 가격도 착하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규격 및 용도에 따라 구입 가격이 다르지만 1만원 내외로 저렴하다.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 공간 예술미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도시적 감성을 충족시켜주기도 그 만이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정서적 효과는 물론 작물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학습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9개의 포켓이 달린 딸기백, 재미까지 솔솔

작물에 따른 재배백의 특성을 잠시 들여다볼까. 감자 재배백의 경우 감자를 심은 후 복주기를 할 필요 없도록 깊이가 깊고, 아랫부분의 지퍼를 열어 손쉽게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도시에서의 텃밭 가꾸기를 한층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딸기재배백은 PE커버에 9개의 포켓이 몸통에 달려 있어 더욱 유용하고 흥미롭다. 딸기를 심어 조랑조랑 열린 딸기를 시즌 내 감상할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농촌 생활을 꿈꾸는 도시인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딸기뿐만 아니라 세덤 및 화훼류의 수직화분으로 활용, 인테리어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일석다조 실용 효과 '작물 재배가 쉽다'

재배백은 이외에도 봄철에 땅에서보다 화단의 토양이 빨리 따뜻해지므로 보다 빨리 재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텃밭은 쉽게 단단해져서 갈아엎기가 수월치 않은 반면에 토양이 부드럽고, 배수환경도 일반보다 좋다. 따라서 도시에서 보다 쉽게 원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추천 아이템이다.

Step by Step 채소백에 배추 묘종 심기



배추 묘종 구입. 유기농이어서 그런지 벌레가 많이 먹었다.



점보백 준비. 전면 실종제와 토양 미생물을 중간 중간 켜씩 깔아줘도 좋다.



80~90도 굵은기. 점보백인 만큼 많은 양의 흙이 필요이다. 중간 중간 물도 뿌려준다.



묘종 위치 잡기. 흙을 채웠으면 묘종 심을 위치를 잡아준다.



조심스럽게 묘종판에서 옮기. 서두르면 뿌리가 잘라가니 흙이 없어진다.



배추 심기. 뿌리가 바로 반도씩 심는다. 너무 얕게 심으면 부러진다.



양양배주는 거운데 줄 4포기, 일반배주는 위 아래 2줄에 3포기씩.



마무리 물 뿌리기. 물을 충분히 준다. 흙이 들러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재배백의 종류

샐러드 채소 재배백 사각

(소형 55×15×15cm)

텃밭이 없을 때 옥상이나 가정의 작은 공간에서 활용하기 좋다. 설치 및 해체가 간편하고 접어서 보관이 용이하다. 사각형태로 대종소 3가지 크기가 있다. 대형: 45×45×45cm, 중형: 55×35×20cm

당근 뿌리 채소백 (45×40×27cm)

당근이나 뿌리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깊이감이 있는 재배백이다. 다른 재배백보다 많은 흙을 담을 수 있어, 약 55ℓ의 흙을 채울 수 있다.

감자 고구마 재배백 (23×48×28cm)

깊이가 있어 감자 고구마 무 등의 뿌리채소 재배에 용이하다. 특히 백의 하단에 개폐 기능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간편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한 실용 아이템이다.

베란다 채소 과일 재배백 원통형

(대형 38×30×27cm)

단단한 PE소재를 사용하였고, 바닥에 배수 구멍이 있다. 천으로 된 베이지색 톤의 컬러백이 고급스러워 인테리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양 사이트에 손잡이가 달려있다.

재배백을 놓는 위치

집 베란드의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습기가 잘 차는 편인지, 아닌지, 어느 쪽에서부터 해가 드는지, 맑은 날 하루 중일 몇시간쯤 밝이 드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해가 잘 드는 창가에는 열매채소나 넉넉 채소를 키우고, 그늘지는 쪽에는 상추와 같은 쌈채소를 키우면 좋다. 하루 중일 햇볕이 잘 드는 정남향 고층이라면 햇볕을 잘 받아 하는 작물들을 동쪽으로 배치한다.



약이 되는 잡초음식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뱀딸기

뱀딸기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산딸기 그리고 시장 딸기

뱀딸기

Duchesnea chrysantha (Zoll. & Mor.) Miq.
장미과. 다년생 초본이며 근경이나 종자로 번식한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의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산 가장자리나 들의 풀밭에서 자란다. 4~6월에 개화하며, 꽃은 노란색이다.

들꽃 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본다.

“딸기는 언제 나오죠?”

아이들은 한창 생각하다가 “겨울이요!”한다. 이쯤에서 나는 다시 묻는다.

“그럼 어디서 나오죠?”

“E마트요.”

E마트가 슈퍼마켓이나 시장. 물론 사는 곳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는 일화이다. 마추앙이 와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듯이, 그나마 부모와 함께 뒷밭을 가꾸러 다니는 아이들은 행운이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딸기 모종을 사다 심어 놓는다. 4월에 딸기 모종을 사다 심으면 6월경에 딸기가 열린다. 그러면 아이들은 태양빛 아래서 딸기가 언제 열리는지 알게 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뱀딸기가 사라지면 산에 가서 산딸기를 따먹었다. 하지만 찔레꽃이 지고 나면 줄기를 따먹는 찔레순. 6월 상순이 찔레꽃 사이로 하얀 꽃이 핀다. 7월에 산에 올라가면 하얀 꽃은 간데없고 빨간색이 잎 사이로 문득문득 보이기 시작한다.

딸기나무다. 한 손을 뻗어 딸기를 따서 먹다가 나중에는 두 손으로 따먹는다. 그러다가 딸기 군락지 ‘딸기 천지’를 만나면 한 손으로 딸기를 따서 먹다가 나중에는 두 손으로 따먹는다. 그러다가 딸기 군락지 ‘딸기 천지’를 만나면 한 손으로 딸기를 따서 먹다가 나중에는 두 손으로 따먹는다.

무산에도 가득 담았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에서 자란 산딸기는 몇 개씩 밖에 못 먹지만 산에 가면 사방이 산딸기이다. 6월 즈음, 산딸기가 일어서는 때 아주 토실하고 예쁜 뱀딸기도 모습을 드러낸다. 뱀딸기는 산딸기와 달리 3~4월에 노란 꽃을 피운다. 도통하며 둥글고 탐스럽다. 5~7월에는 붉게 성숙한다.

“저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독이 있어서 죽어.” 어른들은 뱀딸기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나 역시 뱀딸기를 보면 지레 겁을 먹고 피해서 가곤 했다. 행여나 몸에 독이라든가 물을까봐. 뱀이 먹는다고 해서 뱀딸기일까? 아니면 뱀에게 유독적인 성질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 아무튼 이런 학습 때문에 산딸기와 달리 뱀딸기는 아주 편하게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적이 많은 도심의 길가에서도 뱀딸기를 볼 수 있는 게 아닐는지.

뱀딸기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뱀딸기를 하나 따서 아주 조금 떼어내 입에 넣는다. 딸기씨앗이 입에 씹힌다. 맛은 달지만 당도는 높지 않다. 차고 맛있다. 그렇지만 먹기에 그리 나쁘지는 않다. 임상실험 중인 나는 ‘예이. 병원이 코앞인데!’ 하면서 한 개를 더 따서 아예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뱀딸기를 먹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살아 있다. 특별한 증세도 없다. 뱀딸기에는 사람을 죽일만한 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단, 산딸기나 딸기보다 맛은 떨어진다. 아마 사람들이 뱀딸기를 찾지 않았던 것도 바로 맛 때문이라. 그것이 나중에 ‘독이 있다’로 확대되었



뱀딸기꽃

던 것일 테지. 원래 소문이란 그런 거니까. 사람은 알파해서 허균으로 먹지만 뱀은 사람보다 영리하게도 천연약재를 찾아 먹은 셈이다.

뱀딸기는 ‘사매(蛇梅)’라고 부른다. 약초명은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을 번역한 것이 한국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뱀열매(딸기란 원래 열매라는 뜻이다)인 셈이다. 뱀처럼 유독적인 열매인 하지만 실제로 맛은 없고 서늘하다. 사매는 그 서늘한 맛으로 인해 가슴과 배의 열이 계속 되는 것을 다스리는데 효용된다. 찬 기운이 뜨거운 열을 식히는 것이다.

뱀딸기는 이른바 ‘항암효과가 있다’는 학계의 보

고나 나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 위상이 달라졌다. 복수암에 걸린 쥐를 실험한 결과였다. 하지만 복수암에 걸린 쥐는 쥐일 뿐이다. 암에 걸린 쥐를 실험한 것이지 사람을 실험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경우는 병이 비단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나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구나 마음은 질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복수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자. 뱀딸기를 많이 먹으면 나을 것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을 수도 있지만 낫지 못할 확률도 있다. 환경과 마음가짐 그리고 관계의 역학 때문이다. 또 당사자의 체질도 문제이다. 사람마다 기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먹자!

뱀딸기는 주로 어린잎과 열매를 먹는다. 상용하는 음식에는 뱀딸기를, 약으로 잎과 줄기를 이용한다.

1. 음료

여름에서 초가을에 이르기까지 뱀딸기의 잎과 줄기 뿌리까지 전체를 채취하여 말린 뒤, 문근하게 다려서 음료수처럼 먹는다.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후두염, 기관지염 등에 효과가 있다. 잎과 줄기에는 각종 항암작용 외에도 항균작용, 면역기능 증강작용이 있다고 한다.)

2. 치료

곤충에 물린 상처, 종기, 습진에는 생약을 짓찧어 붙이고 안질에는 뱀딸기 즙을 짜 넣으면 효과가 좋고, 당굴을 삶아 김이 날 때 좌욕을 하면 치질에 좋다.

3.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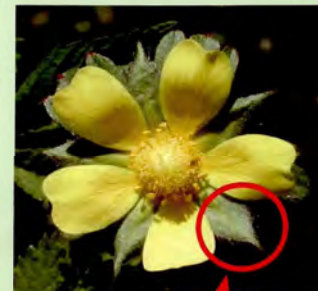
뱀딸기를 따다가 꿀이나 설탕을 넣고 문근한 불에 달여 잼을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거나 그냥 물에 타서 먹는다. 딸기요구르트나 딸기잼처럼 딸기를 먹는 요리를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기운에 따른 몸과 마음이 다 제각각이니 어떤 것이 뒤에 좋더라는 말을 맹신할 게 아니라 약이 되는 음식을 생각해서 먹는 것이 좋을 것이다.

뱀딸기꽃? 양지꽃?

길을가다 보면 양지꽃과 뱀딸기 꽃이 혼동되고 한다. 구별하는 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꽃받침이 크것이 뱀딸기 꽃



꽃잎이 둥글고 꽃받침이 꽃보다 작으면 양지꽃.

지피식을 종자와 묘종의 모든 것

땅끝야생화

문의전화

061-535-0045 / 010-4284-2655

FAX_061-535-0048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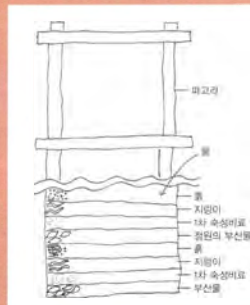
송주호 '뜰 안의 정원'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꾸고 또 키우며 산다. 이 코너를 통해 정원을 꿈꾸고 정원으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의 정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 사진_우정아 가든디자인(경기조경가든대학 강사)

뜰 안의 정원, 그 비밀 속으로...

정원 내 퇴비장 두어 친환경 비료 자급자족



뜰 안의 정원만의 특화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친환경 비료의 자급자족이다.

송씨는 정원은 2개의 퇴비장이 있다. 제1 퇴비장과 제2 퇴비장으로 나누어지는 퇴비장은 숙성을 두 번 거쳐 친환경 비료로 재탄생시키는 곳이다.

제1 퇴비장은 정원 구석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게 되어 있으며, 제2 퇴비장은 파고라 밑으로 저장고를 만들어 자정이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다.

제1 퇴비장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염분을 제거한 뒤 모은 것과 정원에서

의 부산물(점초, 낙엽 등)과 주민들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의 배변을 쪼개어 쌓고 지렁이를 행사하여 1차 숙성을 거친다.

이렇게 1년간 모은 것을 제2 퇴비장으로 옮겨서 정원의 부산물과 1차 숙성된 퇴비를 넣고 흙을 넣어 지렁이를 행사시켜 2~3단으로 쌓은 뒤, 물을 가득 채우고 흙을 덮어 1년간의 숙성 과정을 더 거친 후 비료로 사용하게 된다. 이 비료를 지렁이 배변토, 배분토 또는 토통토라고 한다.

시중에서 상품화 되어 있던 가지런한 점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에서의 부산물, 강아지 배변으로 만들어진 지렁이 배변토는 환경 문지에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 친환경 비료는 1년에 한 번 가을에 웃거름으로 쓰며 일체의 다른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아도 식물의 생장이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다고 한다. 자연에서 나온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 과정이 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법이다.



그 첫 번째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천지구의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송주호 씨 집을 찾았다. 송주호 씨 집은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만큼 형형색색의 꽃들이 담장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봄을 즐기는 듯하다.

"우연한 기회에 해르만 헤세의 '정원인의 즐거움'이란 책을 읽은 것이 정원을 만들기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는 송씨는 "정원에 관련된 서적, 인터넷, 박람회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하며 2005년도에 지금의 정원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원을 조성하면서 나만의 정원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원으로 행복을 전파하고 싶어서 어른과 아이들 모두의 눈높이에 맞게 조성하게 되었다고도 밝혔다.

주변과 하나되는 정원

송씨의 정원은 주변에 공원의 경관을 차경으로

이용해 사계절 정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 차경의 색상과 동떨어지지 않는 식재를 이용해 자연스러움과 원근감을 주어 정원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

건물에서 바라본 주정원의 시야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옮겨가 또 다른 정원이 존재하는 듯 느껴지고, 시선의 흐름이 주정원에서 차경으로 이어지면서 차경까지 정원의 일부분으로 통합되는 하나의 정원이 완성되었다.

하나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세 개의 정원

250m²의 정원은 한반도 모양의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한 주정원, 공간과 시각을 이용한 모란 정원, 식용 가능한 식물들을 식재한 텃밭 정원 등 3개의 테마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원은 가운데 한반도 모양으로 식재되어 있다.

잔디 주변으로 주목, 목련, 단풍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백일홍, 보리수, 소나무 등의 교관목과 모란 24종, 작약 26종, 수선화 10종, 튜립, 크로커스, 히아신스, 아이리스, 백합, 매발톱, 산세베리아, 사계패랭이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사이로 수련이 식재된 조그만 연못도 조성되어 있다. 파고라 옆에는 엘로키위를 식재해 휴식 공간의 아늑함을 유도했다.

모란 정원은 주정원에서 보았을 때 침상 정원이다. 일본식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물 공간을 자갈로 형상화하여 깊이감을 줬고 모란 군락을 섬으로 형상화하여 입체적인 정원을 조성했다. 여러 종류의 모란과 철쭉, 비타린 나무, 말발도리, 꽃잔디 등도 식재되어 있다.

텃밭 정원은 모란 정원 뒤편으로 조성해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 파, 상추, 콩, 부추, 마늘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가정의 먹거리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Garden in life

정원의 연장 벽면 녹화

대문을 들어서면 담쟁이가 건물을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고 대문 기둥에 줄사철이 기둥을 감싸고 있다. 건물을 이 정원을 연장해서 하늘까지 바라보게 만들어 눈이 정화되는 듯 시원해 진다. 벽면 녹화는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주지만 건물의 실내 온도를 여름에는 낮게, 겨울에는 높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 산성비 및 자외선 차단으로 벽 표면의 온도의 변화, 습도 변화가 적게 되어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과 침식이 방지되는 등 건축물의 내구성도 향상되는 효과도 가져온다.



교감하는 정원

송주호씨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만들어진 정원이라 항상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한다. 식물들마다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꽃이 피었을 때 색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색한 경우도 있다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다른 식물로 대체하거나 옮겨 심어 주고, 잔디의 경우 일주일마다 한 번 정도 깎아주며 관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과실수의 경우에 벌의 개체수가 줄어서 꽃의 수분도 인공적으로 해 준다. 그는 "늘 자식 같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식물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꽃과 잎으로 보여 준다"며 정원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했다.

방문하는 이들을 돌 안으로

그의 집 대문 옆 기둥에는 경기정원문화대상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

그의 정원은 지난 2011년 제2회 정원문화대상에서 돌 안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수상한 바 있다.

그 덕에 입 소문을 타고 동네 주민은 물론 타지에서 많은 이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 관심을 가져 주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싶어서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정원에 대한 정보와 꽃에 대한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 정원에 대한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라고, 이같은 그의 고운 마음과 정성이 식물들을 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황환주 신구대 교수의 꼭 가 봐야 할 세계의 식물원



원예적 아름다움과 자연적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250년 역사의

Jardins Botaniques du Montet

▲ 펠라고니옹 화단



몽프식물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독일과 국경지대인 프랑스 동북쪽 로렌지방의 주도 낭시(Nancy)에 있다.

27ha 면적에 12,000종류 이상의 다양한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열대지방의 숲속 같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는 2,500m²의 온실에서는 다양한 열대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남시 시가지를 굽어보는 몽뜨 영지에 1758년에 세워진 250년의 역사를 가진 몽뜨식물원은 정형적으로 조성된 장미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다.

식물원 입구를 지나면 우선 그리 크지 않은 연못이 눈에 들어오는데, 수생식물과 수중식물들이 식재되어 있고 작은 계곡이 넓어지면서 연못으로 흘러드는 지역에 있는 습지의 생태학적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연못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면 다섯 개의 현대식 온실로 구성된 큰 유리온실이 나타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식물세계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섯 개의 온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관람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 된다. 첫 번째 온실에서는 이 식물원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빅토리아 수련을 포함한 수생식물과 착생식



습지생태원의 관람로

몽뜨 식물원의 여러 식물 수집군 중에서 다알리아도 유명하다. 분류원에서 약초원으로 가는 중간 위치에 다알리아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3,500주 이상의 다알리아가 식재되어 여름과 가을에 화려한 경관을 만든다.

이 밖에 신석기 시대에 재배하였던 식물들을 포함하여 서로마제국 시대, 중세, 르네상스시대 및 18~19세기에 재배하였던 식물들을 연대순으로 식재하여 놓은 식물역사 전시원도 볼만하다.

다양한 주제원이 비교적 넓은 면적에 조성되어 있어 여유로운 느낌이 들지만 식물원을 관람하고 나면 하루 또는 반나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만족감이 드는 식물원으로 기억된다.

본 기사의 내용은 신구문화사에서 출간한 <꼭 기억아할 세계의 식물원 61>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저자가 재편집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다알리아 전시원

수련(Water lily, 睡蓮)

학명 *Nymphaea tetragona* Georgi
분포 아시아
서식 물 위
꽃말 깨끗한 마음, 청순한 마음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밑 부분에서 많은 뿌리가 나온다. 꽃은 6~7월에 흰색으로 피는데, 밤에 꽃잎이 접히므로 수련이라고 한다. 꽃은 3일 동안 피었다 닫힌다. 열매는 꽃받침에 싸여 있으며 물속에서 씨를 발출한다. 시든 꽃은 물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열매도 물속에서 맺어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연못의 관상식물로 적합하다. 민간에서는 지혈제로 이용한다. 뿌리를 나눠 심거나 씨를 파종한다.

수련의 속명 님피아(Nymphaea)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물의 여신 님프(Nymph)에서 유래되었다. 수련속 식물은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에 40여 종(種)이 있는데, 한국에는 수련과 애기수련(N. minima)이 서식한다.



온실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대한 빅토리아 수련

물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온실에서는 카카오와 같은 열대성 경제식물들을 볼 수 있으며, 이어서 열대우림 온실, 선인장과 다육식물 온실이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온실은 열대지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온실이다.

다음으로 원추리 수집원과 아이리스 수집원을 지나면 암석원이 나타난다. 세계의 여러 고산지대에서 수집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어 계절별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있다.

고산식물원 옆에는 식물분류원이 조성되어 있다. 피자식물을 현대적 분류체계에 따라서 식재하여 놓아 관련 대학 학생들의 학습에 이용되고 있다.

불철의 화려한 붓꽃을 비롯하여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 등과 같은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 일반인들도 관람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식물원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다. 식물분류원 위쪽으로는 수목원과 만병초원이 조성되어 있다.



다알리아(Dahlia)

학명 *Dahlia pinnata* Cav.
분포 북아메리카
크기 약 1.5m~2.0m
꽃말 화려함, 감사

국화과에 속하며 12~20종으로 이루어진 속.

이중 6종은 관상용으로 교배된 것이다. 이 속의 식물은 덩이뿌리를 가진 풀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고지대가 원산지이다. 잎은 흔히 갈라지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거나 찢어져 있다.

야생으로 자라는 종류는 두상화에 통상화와 설상화가 있지만 다알리아와 같은 많은 관상용 품종들은 설상화가 많다. 2,000가지 정도에 이르는 원예품종은 홑꽃종·겹꽃종·쇼우다알리아·팬시다알리아·볼핀다알리아·선인장형다알리아·피어니형다알리아 등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꽃은 흰색·노란색·빨간색·자주색이다. 화단에서 잘 자라며 꽃은 늦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피어 있다.



식물재배역사 전시원



고산식물원



열정민, 여름초화원



Garden Tour

초록숲에서 온 메시지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만하면 됐다. 추운 겨울 포근히 나고, 더운 여름 시원히 지내니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행복이다.’ 식물원에서 만났던 詩(이만하면 됐다-손철 作)의 한 구절이다.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도 있다. 세상에 있는 꽃들이 모두 모인 듯 한바탕 꽃 잔치가 한창인 고운식물원은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강한 삶의 교훈도 담겨 있다. 눈과 마음을 청화시켜주는 힐링 식물원, 그곳이 바로 고운식물원이다. ■ 글·사진·소문복 기자

국내 식물학계 대부들이 선택한 보증수표

볼 햇벌이 조금은 덩게 느껴졌던 5월 중순, 본지에서 주관하는 도시원예아카데미의 교수님들과 함께 식물원 답사를 떠났다. 2박3일 일정 중 그 첫 번째 여정지로 선택한 고운식물원. 국내 식물학계를 대표할 만한 교수님들이 직접 선택한 곳인 만큼 이미 보증수표를 갖고 첫 방문길에 나섰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가든인 본사에서 출발하여 2시간여거리, 청양의 알프스라 불리는 침강산의 품안에 오롯이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온통 꽃 세상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부터 시야에 펼쳐지는 꽃의 향연, 숨이 막힐 듯 화려하고 탐스럽다. 교수님들조차 감탄사를 연 발하며, 그들의 선택에 기대 이상의 비경으로 환대해준 식물원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는 듯 서로 교감했다.



첫 방문객은 오죽하겠는가. 탄성이 절로 나온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품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삶의 점표를 찾아 나선 이들에게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8600여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寶庫

진입로 끝 터널을 통과하니 주차장에서 본 비경은 서막에 불과했다. 주렁주렁 겹겹이 핀 겹벚나무의 분홍색 화려함은 봄 햇살아래 눈이 부시다. 때마침 불어주는 봄바람의 센스. 흠날리는 꽃잎 아래서 40대 중년은 잠시 소녀가 된다.

암술이 꽃잎으로 변해서 열매를 열지 못한다는 벚나무의 사연을 애써 마음에 새기며 아파한다. 말뚝만 굴러가도 웃음이 터져나왔던 10대 소녀처럼, 자연현상에 웃고 우는 그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면서 말이다. 잠깐이지만 행복했던 시간여행을 뒤로하고 매표소 옆 식물원 안내 지도를 살펴본다. 식물원 안내지도라기보다는 등산 이정표처럼 등산을 따라 다양한 길이 들어서 있는 것이 놀랍다. 규모가 11만3000여평에 이르고, 식물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식물이 8600여종에 달한다고 하니 이 식물들을 제대로 다 돌아보려면 하루가 모자랄 듯하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발길 닿는 대로, 꽃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나를 맡기기로 했다. 발길 닿는 곳이 무슨 테마정원인지 이름을 모르든 어떨겠는가. 눈에 호사요, 마음까지 꽃물이 드니 이만하면 된다하지 않았던가. 식물원 곳곳에 식물 이름표가 친절하게 붙어 있으니, 그만하면 됐다.

야생화, 희귀식물들의 꽃마중 ‘힐링 식물원’

식물원 초입, 거대 비너스상이 아름다움을 뽐

내는데, 그 아래 라널쿨러스가美를 건준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자태이다. 미인의 꽃 리빙스턴데이지가 이끄는 꽃길을 따라 가다보면 나무데코의 서정적인 산책길이 나오고, 일본원숭이가 있는 동물 사육장도 만난다.

온실 광장에 도달하니 월동을 한 만병초가 시선을 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만병초로 꼽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처음 만난 만병초, 역시 그 자태가 꽃중의 꽃답다. 그래서일까, 보호분봉도 타고났나보다.

한방에서는 많은 병을 치료하는 약재이지만 잘

고운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

희귀식물



만병초 *Rhododendron brachycarpum*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진달래목 철쭉과의 만병초는 우리나라 지리산, 울릉도 등에 분포하며 주로 고산지대에서 서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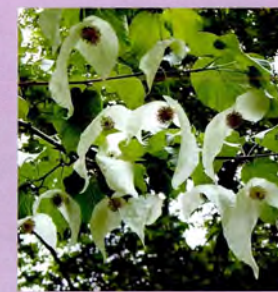
한방에서 많은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여 만병초라고 이름 붙였지만 맹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안드로메도독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할 경우, 사망하기까지 한다. 꽃은 6~7월에 핀다.



광릉요강꽃 *Cypripedium japonicum*
뿌리에서 지린내가 나서 광릉요강꽃이라 불린다. 큰복주머니란이라고도 하고, 깊은 산속이나 구릉의 나무 아래 또는 대나무 숲 속에서 난다.

좌우에 부채를 펼친 것처럼 두 개의 잎과 봉지 모양의 꽃은 야생란 중에서도 한층 개성적이고 아름답다.

이 꽃을 야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개화기는 4~5월.



손수건나무 *Davidia involucrella Bail*

4~6월 사이에 흰색의 꽃이 피고 10월이면 열매가 열린다. 꽃이 피어있는 모습이 많은 손수건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듯이 보여 손수건나무라고 불린다. 또 잎개를 달았다하여 비둘기나무, 유령나무라고도 불린다. 하얀 꽃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작고 둥근 노란 꽃송이를 감싸는 흰색 포엽. 꽃잎은 짙은 것과 건 것이 각각 하나씩 총 2개이다.

못 섭렵하면 소량이라도 독성이 강해 죽기까지 한다니 과연 최고급이다. 탭스레게 피어난 스토크 화단에 눈길을 끈다. 키가 큰 소나무아래서는 조각상들이 인사를 건넨다. 가로수길 따라 도달하니 돌담길이 이어지고, 갈림길에 들어선 다. 전망대와 잔디광장으로 가는 길, 전망대쪽을 향했다. 꽃 마중이나 꽃 배웅이 아니더라도 가는 길 중간 중간에 걸려있는 나무 조각에 새겨진 명언들이 길동무가 되어주기도 한다.

다양한 소원, 각양각색의 화려한 꽃의 군무

전망대는 식물원의 화육점정,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린 다른 소원과 달리 정원의 세심한 정성과 손길이 느껴지는 전망대이다. 좌우측 격자 모양의 화육목 사이로 야생화들이 계절별로 식재되어 있고, 그 주위를 전통 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전통의 한국 정원의 진수를 보여준다.



Mini interview

“모두가 행복한 식물나라를 꿈꾼다”

이주호 원장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연은 10일을 주기로 변화한다.”

고운식물원 이주호 원장은 변화하는 자연에서 산책과 명상하며 자연과 동화된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한다. 그는 식물원을 통해 자신처럼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그 숨은 노력은 예견되는 바, 이 원장의 차림새에서부터 그의 식물원에 대한 열정과 노력, 자연에 묻어난다. 쉽게 그을린 모습, 작업복 차림이다. 식물원 구석구석까지 직접 쟁기고 있는 이 원장, 이곳이 학생들에게는 연구학습의 장이 되고, 일반인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힐링 갤러리가 되고자 한다고 밝힌다.



고운식물원이 개원한지는 10년째, 개원을 위해 준비한 시간은 1990년부터 약 13년이 걸렸다. 그는 산악지형을 그대로 살린 자연생태식물원을 완성하고자 했다고 한다. 총 11만3000평 규모의 식물원에는 기존 자연림을 제외하고도 8000여 종에 달하는 수목과 꽃이 서식하고 있다. 야생화원과 조각공원 등 모두 33개 소원과 더불어 생태체험학교, 연장형 물러슬라이드 등 특별관람시설, 방갈로(수박시설) 등이 있고, 희귀종과 멸종 위기에 놓인 식물 유전자원도 보존하고 있다.

철쭉과 어우러진 단풍나무원의 절경도 압권이다. 고운식물원에는 총 300여 종의 단풍나무가 식재돼 있고 국내 최대 수종을 가지고 있다 한다.

이외에도 꽃 봉오리가 옛날 선비들이 쓰던 붓을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진 붓꽃들이 군락을 이루는 붓꽃원과 튜립 화원, 작약원, 장미원 등 다양한 소원들이 즐비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 사전 조사는 필수

발길 닿는 곳마다 풍성했던 고운식물원에서의 여정은 그렇게 마무리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씨는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을 인용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고 했다. 어떻게 식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느냐 하는 독자들의 질문에 한 그의 대답이다.

준비 없이 나선 답사길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 사전 조사를 하고 왔더라면 좀더 많은 것을 눈과 카메라에 담지 않았을까. 그러나 서두에 그러지 않았는가. 이만하면 됐다. 충분히 행복했다. 훗날 두 번째 만남을 기약하면 더 즐겁지 않았는가. 

고운식물원

방문정보

www.kohwun.or.kr / 041-943-6245
운영시간 : 하절기 8~18시/동절기 9~17시
입장료 : 어른 8,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4,000원

가는 길

1. 서울 - 당진JC - 신양 IC - 고운식물원
2. 서울 - 천안JC - 공주JC - 청양IC - 고운식물원

주변관광지 및 숙박



천장호 출렁다리 갑산 천장호 출렁다리는 총길이 270m, 폭 1.5m의 국내 최장 출렁다리로 천장호수를 가로지르며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이색영물이다.



냉천골 칠갑산 자락에 있는 계곡. 한여름에도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열을물에 담근 것처럼 얼어붙는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울창한 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



고추문화마을 고추를 테마로 한 체험학습 문화공간이다. 고추전시관을 비롯한 고추박물관, 펜션(14동), 자연생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갑산자연휴양림 울창한 천연림이 아름답다. 통나무집 12동, 원두막 4동, 아영장, 산림문화휴양관 3동, 전망대,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변 먹거리



고운식물원 고운정
청양군 식물원길
041-943-2202

주메뉴
얼나무 백숙 45,000원
보리밥 7,000원
들깨수제비 7,000원



까치내 흥부가든
청양군 청평면 치천리
041-943-8640
주메뉴
민들레매운탕 40,000원
쏘가리 매운탕 80,000원
매기 매운탕 中 50,000원
참깨장떡반 2인 20,000원



1박2일에 나온 별장가든
청양군 청평면 학당리
041-942-3312
주메뉴
한우 갈비정식 25,000원
한우 불고기 정식 16,000원

11

이 계절 고운 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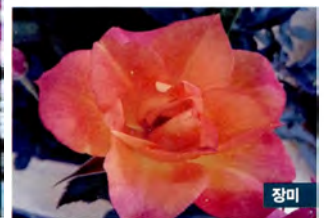
무스카리



리빙스틴데이지



스톡크



장미



향달맞이꽃



마가렛



피나플



아네모네



산작약



메발름



라넡클러스



Garden Tour

휴양지에서 본격 가든시티로 거듭나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싱가포르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큰 동남아국가들 여행패키지에 끼여져 잠깐 쇼핑과 휴양에 활용되곤 하는 곳이다. 물론 싱가포르의 하루면 차로 다 둘러 볼 수 있는 작은 도시다. 그러나 주말간산 격으로 싱가포르를 스치고 지난다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싱가포르에는 그 어떤 거대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매력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그 중 싱가포르를 '정원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대규모 인공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심층 소개해 본다.

■ 글_김지태 / 사진 자료_싱가포르 관광청



200m 높이에 조성된 거대 공중정원

오래 전에 싱가포르를 찾았던 사람들이 최근 그곳을 다녀온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머리동질할 것이다. 그만큼 싱가포르의 변화 속도는 빠르다. 그 변화를 상징하며 싱가포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곳이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다. 최신식 컨벤션 센터, 극장, 아트 갤러

리, 쇼핑몰과 미술관 스타워프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카지노까지 갖춘 이 호텔은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호텔 공간이다. 특히 57층 규모의 건물 3개 동이 대형 선박 모양의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독특한 외관은 2010년 오픈 이후 현재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선박 모양 구조물은 1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데 무려 200m 높이의 거대공간에 놀랍게도 공중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공중정원은 에펠탑을 가로로 늘린 것보다 200m나 더 긴 규모를 자랑한다. 공중정원에는 싱가포르의 명물이 된 유선형 수영장 인피니티 풀(Infinity Pool)과 아웃도어 레스토랑 겸 클럽, 쿠데타(KU DE TA) 등 위락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200m 상공 위에서 펼쳐지는 싱가포르의 시원한 전경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다.



TOUR TIP

Skypark At Marina Bay Sands
이용 안내

오픈시간

10:00 ~ 22:00 (금, 토, 일 23:00까지)

주소

10 Bayfront Avenue, Singapore

가는방법

Promenade 역에서 도보 10분

공식홈페이지

www.marinabaysands.com

가드닝 기술과 첨단 조형 예술의 접목

싱가포르의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마리나 베이 샌즈 옆에 '정원 속의 도시'를 본격 표방하는 대규모 인공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들어섰다. 싱가포르의 지속 가능한 자연 자원과 친환경 첨단 기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조성된 이 정원은 크게 베이 사우스, 베이 이스트, 그리고 베이 센트럴 세 구역으로 나뉜다. 각각 독특한 테마를 적용해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 정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베이 사우스만 오픈한 상태이고 베이 이스트와 센트럴은 아직 조성 중에 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단순한 식물원이나 여타 테마파크와는 차이가 다르다. 가드닝 기술에 첨단조형 예술을 접목시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황홀감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물의 다양성과 식물 및 원예학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교육적 요소를 적절히 배려했다.

첨단 기법으로 식재된 슈퍼트리

특히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야외 정원을 지키고 있는 슈퍼트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식물원이다. 25~50m 높이로 수직으로 뻗은 슈퍼트리에는 높게 휘감아 오른 열대식물, 착생식물, 고사리 등 총 200여종 162,900 개체 식물들이 첨단 기법으로 식재되어 있다. 상부의 가지처럼 생긴 캐노피는 집열판 역할을 하고 아간에는 조명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한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다.

외부 정원은 오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실내 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MRT 베이 프론트 역 8번 출구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 어디에서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0m 높이의 슈퍼트리 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인공정원은 물론 마리나 베이 지역 주변 전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매일 저녁 7시 45분과 8시 45분,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생명의 나무'를 타이틀로 한 10분간의 라이트 쇼도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들과 연결된 곳에는 OCBC 스카이웨이이라는 128m 길이의 산책로가 펼쳐져 있어서 한가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해 놓았다. 



TOUR TIP

Gardens By The Bay
이용 안내

오픈시간

야외정원 05 : 00 ~ 02 : 00

내부정원 09 : 00 ~ 21 : 00

공식홈페이지

www.gardensbythebay.com.sg/en/home.html



한여름 밤의 꿈 그 주인공이 되는 정원 카페

뜨

■글: 정지는 기자 / 사진: 정승환 기자

팔달산 능선을 따라 수원화성의 성곽둘레를 걷다보면 산 중턱에 자리한 카페 하나. 심플한 외관을 뽐낸 도통 이곳이 금연 카페라는 것 밖에 알 수가 없다. 상큼한 애니시타의 노란 꽃들이 반갑게 인사를 먼저 건네는 카페 입구를 들어서면 마치 마녀의 옷장을 연 듯한 기분이다. 동화 속 몽환적 세계에 발을 디디듯 외관과는 전혀 다른 반전 매력에 사람들이 연신 탄성을 내지르며 들어온다.

이곳이 식물원인지 혹은 열대우림 속으로 순간이동을 한 것인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입구에 놓인 연꽃 조형물과 함께 예쁜 등으로 꾸며진 연못에는 새가 찌르르 울고 있다. 곳곳에 배치된 작은 연못들과 숲을 연상시키는 식물들의 아름다움에 눈이 호사롭다. 몇 개 안되는 테이블에 앉아보니 더욱더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다.



물고기 비늘로 만들어진 동화 연못으로 꾸며진 연못



식물에게 좋은 건 사람에게도 좋다



카페의 자랑인 요커트 아이스크림과 여브티

웰빙으로 시작해 힐링 카페로 더 인기

요즘 모두의 관심사가 힐링이다.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건강에 좋은 곳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 이제는 웰빙을 넘어서 힐링이라 한다.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받고 싶어 한다.

카페 '뜰'은 평소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았던 윤희영씨와 그녀의 남편이 직접 꾸민 공간이다. 부부는 우연히 산책로를 걷게 되었고 산중턱에 위치한 이곳에 식물을 기르면 딱 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윤 대표와 남편은 처음 아가를 갖기 위해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식물에

도 자연스레 많은 관심이 갖고, 사업을 하던 윤 대표의 남편과 지금의 실내정원을 테마로 한 카페를 차리게 되었다. 이곳을 차리기 위해 윤 대표는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 많다. "첫째가 금연 카페이고 둘째가 바로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이 좋은 초록 냄새에 음식냄새가 퍼지면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식물을 위한 배려, 참나무 장작 난방

윤 대표는 모든 것을 식물에 맞춰서 카페를 오픈했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식물을 1순위에 두고 모든 자재와 인테리어까지 부부의 손을 거쳐 탄생시켰다. 무독성 페인트를 사용하였고 인테리어 또한 직접 하여 식물이 좋아할 수 있는 환기와 아가자기함으로 공간을 꾸며나갔다. 100평이나 되는 공간에 테이블 수는 고작 15개 정도이다. 공간의 반이 식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식물에 위한 공간이다. 또한 식물들을 위해 인위적인 건조한 난방 대신에 참나무 장작을 때서 겨울을 나고 있다. 난방비 절감효과도 있다.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온도를 올려주는 식물의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다.

뿌리내리기까지 공들인 기간만 2년

윤 대표는 이곳이 식물이 자라는 최고의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고 말한다. 세 개의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일조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식물을 잘 키울 수는 없었다. 뜨는 해를 좋아하는 식물, 지는 해를 좋아하는 식물이 달랐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수도 없이 식물의 위치를 바꿔줘야 했다. 이제는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식물도 자리를 잡았고, 사람도 자리를 잡았다. "나도 식물에게 식물도 나에게 서로 습관이 들어야 한다." 키우면서 노하우가 생겼다. 아라우카리아같은 키가 큰 식물은 지는 해 방향으로 놓고, 해를 좋아하는 크로톤 같은 식물은 키가 더디게 자라 동쪽 방향에 놓는다. 각각의 식물의 일조량을 맞추기 위해 2년의 세월이 걸렸다. 처음부터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직접 발품 팔아 하나하나 들여와 정성껏 가꾸었다. 그중 애정이가는 식물이 별 탈 없이 쑥쑥 자라는 스킨딕서스인데 입구 쪽 기둥을 타고 이 카페의 천정을 다 덮고 있다. 놀랄도록 굵고 잎도 크다.



가장없이 자라는 장기의 스킨딕서스 줄기가 나무와 같이 굵다.

이렇게 식물들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끊임없이 관심을 쏟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 환기는 겨울에도 매일 해주며 선풍기를 틀어놔야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한다. 물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흘려주고, 건조한 실내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분무를 해주어야 한다고 윤 대표는 말한다. 가장 키우기 까다로운 아이차카는 여러 개 심어놓았는데 그 중 이 온도도 이 자리가 가장 잘 맞는지 하나만 살아남았다.

이색 밤 풍경 '마법 같은 동화 세상'

카페 뜰은 이곳만의 친목정이 있다. 바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할머니를 모



카페공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 식물을 배경 삼아 결혼, 나도 동화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고 오는 손녀, 부모님과 함께 오는 딸, 어린 아이와 손 붙잡고 오는 어머니들, 연애를 막 시작한 파릇한 연인들 등 다양한 연령층과 세대들이 함께 한다.

카페 뜰만의 이색풍경은 밤에 더 빛난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 주인공이 된 듯한 이 공간은 밤이 되면 더욱 아늑해진다. 천장에 달려있는 주황색 등이 이러한 몽환적인 느낌에 한 몫 하는 것 같다.

여름밤엔 별레와 습한 더위로 바깥에서 자연을 즐기기는 여간 쉽지 않다. 하나 이곳은 별레도 막아주고 분위기까지 로맨틱하다.

또한 사계절 푸르름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역시 카페 뜰만의 매력이다. 겨울이 되면 동화 같은 또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터. 온통 새하얀 창밖 세상과 초록이 가득한 실내풍경이 대조를 이루며 겨울 신비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기둥을 아이차카, 손이 닿아가는 식물로 예쁜만큼 까다롭다.



식물 '사이사이' 놓인 작은 연못, 금붕어가 산다.

머리를 더 맑게 해주는 실내 정원

카페 뜰은 새소리와 물소리, 좋은 공기 삼박자가 맞는다.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향기로운 차를 마시자.' 윤 대표가 이 공간을 꾸미게 된 이유이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은 남들도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다. 애네들을 위해 정성을 쏟다 보니 애들도 잘 자라주고, 손님들도 그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며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말한다. 오히려 산속보다 이곳이 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윤 대표도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의아했지만 바람이 부는 산보다 늘 산소가 머물러 있는 실내정원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었다. 숲속만큼의 효과가 있다. 어쩌면 숲속보다 더 효과가 좋다. "식물에게도 좋은 것은 사람에게도 좋다"라고 윤 대표는 말했다. in

어린열무잎 김치 & 새싹비빔밥

베란다에 심어 놓은 열무 뿌리가 아직 탱탱하게 자라지 않았다. 잎사귀들만 무성하게 자라나서 처치 곤란이 되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큰 잎사귀하고 설 자라는 것들은 통째로 뽑아서 나물을 해 먹던가 비빔밥 용으로 먹으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열무와 고추, 근대, 아욱 등 이파리들을 따서 김치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싱싱한 어린 채소들이다. 군침이 돈다. 바로 도전.

■ 글·사진·윤자영 요리연구가



Kitchen TIP

허브 말리기

허브하면 흔히 상큼살 등 고기 구워 먹을 때 첨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허브의 효용도는 의외로 많다. 고기 뿐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에 향신료로 사용할 수 있고, 차로도 끓여 마실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라벤더 같은 허브는 차로 끓여 마시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잠을 잘 자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모로 유용한 말린 허브 말리는 팁을 소개하기로 한다.

1 바실이나 로즈마리는 잘 안자라는데 민트와 라벤더는 신기할 정도로 잘 자란다. 아래부분 이파리들기를 따서 말리기로 했다. 말리는 과정은 간단하다. 그냥 싱에 묶어서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걸어두기만 하면 된다.

- 2 바삭 마른 민트, 부피가 적어도 1/5은 줄은 거 같다.
- 3 철구에 석석 끓여주니 가루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부피와 노동력 대비 산출량은 초라하지만 왠지 이 민트 가루가 고맙다.
- 4 라벤더는 민트보다 더 잘자라서 이파리들이 두어배는 더 되어 보인다.
- 5 길고 보니 민트보다는 재법 양이 꽤 된다.
- 6 오래가노, 라벤더, 민트 허브가루 상형제가 생겼다. 민트들은 각종 요리와 상급살 구이 등에 요긴하게 쓰인다. 특히 라벤더는 잠이 안 올 때 차로 끓여 마시면 효과가 좋다고 한다.



만드는 법



1 우선 열무 잎을 따서 깨끗이 씻는다. 씻은 열무잎에 굵은 소금을 척 척 뿌린 후 절인다. 어린 잎이니까 많이 절일 필요는 없다.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데 15분 정도에 한 번 뒤집어준다. 골고루 숨을 쉬면서 절여지게 하기 위해서다.

2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 참살 혹은 밀가루를 이용해 물을 우려둔다. 참살 맛을 좋아하면 참살만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밀가루에 참살을 약간 섞는 정도로 한다. 밀가루로 물을 쓸 때는 반드시 차가운 물에 개어야 한다. 더운 물에 넣으면 뭉쳐서 잘 개지지 않는다. 잘 갠 후 살짝 끓인 후 식힌다.

3 절여진 열무잎을 깨끗이 씻은 후, 고추잎, 근대, 아욱 등 다른 어린채소들과 양파, 파, 고추 등 양념 야채를 넣는다.

4 다진마늘, 다진생강, 고춧가루 등 양념을 넣는다. 취향에 따라 새우젓이나 멸치액젓, 매실, 설탕 등 좋아하는 양념류를 함께 넣는다. 맛을 내기 위해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함께 넣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만 넣는 게 좋다. 함께 넣고 싶다면 많이 짜질 수 있으니 주의해서 적당히 넣는 것이 좋다. 매실과 설탕도 마찬가지로. 매실만 넣다가 설탕만 넣다가 판단해서 한 가지만 넣는 게 좋다. 맛을 내려고 둘 다 넣어버리면 너무 달아지거나 고유의 입맛을 잃을 수도 있다. 손으로 버무린다. 김치의 맛은 버무림의 맛이다. 과감하게 벽벽 버무린다.

5 완성된 어린열무잎김치.

6 김치는 아무리 맛있어도 메인이 될 수 없는 음식. 김치를 먹기 위해선 밥을 해야 한다. 밥을 하는 동안 새싹채소를 다듬는다. 새싹채소는 영양가도 좋고 식감도 부드럽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발아가 빨리 집에서도 손쉽게 빨리 길러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싹채소를 잘 다듬어서 떠끈한 밥 위에 얹기만 하면 새싹채소 비빔밥 완성. 채식단이라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참치를 밥 위에 살짝 올렸다. 참기름과 초고추장을 섞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미리 냉지 말고 따로 옵션으로 준비해 둔다.



2013
6월 축제

장미의 바다에 빠지다

6월 봄바람에 여름밤의 향기가 실렸다. 시원한 밤바람을 타고 달큰한 장미향이 코끝을 황홀하게 하는 6월의 어느 밤, 설렘을 가득 안고 곳곳에 장미축제가 한창이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사랑하는 이의 손을 꼭 잡고 장미축제 속으로 빠져보자.

■ 글 · 사진: 정지은 기자

서울대 공원 옆 장미축제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서울동물원 옆 장미원축제'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테마가든에서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개장과 함께 축제의 진수를 뽐낸다.

장미원에는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가 무려 300여종이나 되는데, 골든 모니카, 퀸 엘리자베스 등 형형색색 화려함의 극치가 장관을 이룬다. 양귀비 꽃물결이 출렁이는 꽃무지개원에선 야생화가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축제를 위해 특별 조성된 풍차, 허브화단, 꽃탑 등의 유럽풍의 조형물이 장미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장미사랑', '남자를 유혹한 최초의 여자인 클레오파트라', '장미가시에 찔려 죽은 시인 릴케' 등 장미에 얽힌 흥미로운 사연들과 꽃말 또한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온도에 따라 빛깔이 변하는 마술장미는 사랑을 고백하러 온 남녀에게 특히 인기

있는 화귀꽃으로 장미축제의 이색 볼거리이다. 장미축제의 백미는 단연 월드댄스 페스티벌이라 할 수 있다. 유럽과 중남미의 춤이 한데 모인 이 공연은 장미원 전역을 뜨겁게 달구며 축제의 절정을 보여준다. 난타퍼포먼스와 비보이의 춤사위가 어우러진 퓨전 공연 ROSE&LOVE 콘서트는 열정적인 무대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관람객들이 직접 악기를 배우고 공연단과 함께 연주해 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통기타의 은은한 선율 속에 장미와 어우러진 장미와 통기타 이야기도 놓치기 아까운 공연이다.

특히 이국적인 프로방스풍의 가옥을 장미의 집이란 포토존으로 연출했는데, 다른 곳에서 찍기 힘든 나만의 특별한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 꽃향이 가득한 장미 터널과 향기 만발한 장미정원으로 지금 바로 가보자.

기간 2013. 06. 01 ~ 2013. 06. 30

장소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장미원, 꽃무지개원 일대)

사이트 www.grandpark.seoul.go.kr



놀다 보면 꽃이 될까? 에버랜드 장미축제



기간 2013. 05. 10 ~ 2013. 06. 16

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일원

사이트 www.everland.com

백만송이의 로맨틱한 장미의 향기가 가득한 장미원. 각양각색의 850여 종 장미를 만날 수 있는 유럽풍 정원에서 에버랜드가 16일까지 장미 100만 송이와 함께하는 '장미축제'를 연다. 에버랜드는 올해 장미축제에서 꽃 관람과 더불어 공연, 곤충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나비,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곤충의 한살이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도 있다.

100만송이 장미로 에버랜드 곳곳을 장식하고 유럽풍 노천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밴드와 거리공연도 준비했다. 또 장미를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 '이상한 정원의 엘리자'와 '로지나의 두근두근 대작전'이 공연된다. 이와 함께 장미원과 포시즌즈 가든에 펼쳐진 화려한 장미를 감상할 수 있는 노천 레스토랑 '홀랜드 빌리지'에서는 하루 5차례씩 밴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 외에도 에버랜드는 축제 시작일인 10일부터 31일까지 평일에만 '로즈데이 야간 커튼콜'을 선보이는 등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울산대공원에 행복장미가 활짝 피었다.

2013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기간 2013. 06. 05 ~ 2013. 06. 13

장소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일원

사이트 www.ulsanpark.com

장미도시 1번지인 울산대공원 장미계곡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나지막한 숲속 사이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도입한 263종, 55,000본의 장미가 제각각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신비로운 향기를 내뿜고 있다. 울산 장미계곡은 국내 최대의 장미원으로 큐피드의 정원, 비너스의 정원, 미네르바의 정원, 장미언덕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천만송이 세계명품장미, 그 향기 속으로

제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2013. 05. 24 ~ 2013. 06. 02

장소 섬진강기차마을(1004 장미공원)

사이트 www.simcheong.com



천만송이 세계 명품 장미 관람, 사랑 커를 선발, 문화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 세계장미협회가 선정한 유럽 및 미국 등 세계 우수 장미들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1004장미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세계 우수 장미 전시관, 사랑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랑 하트 달기', 스마트폰 미션, 향운을 잡아라 '사랑 커를' 추천선발 등 여러 이벤트 진행과 아름다운 장미공원의 야경과 함께 사랑커를 음악회 등을 개최한다.

300만 송이 로맨틱한 장미 세상으로의 초대 2013 호수 장미 페스티벌

기간 2013.05.31 ~ 2013.06.09

장소 고양시 호수공원 장미원

사이트 www.flower.or.kr

고양꽃박람회에서 처음 주최하는 제1회 호수 장미 페스티벌. 시원한 호수 옆으로 아름다운 장미정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입장료는 무료로 고양시 시민은 물론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즐기려는 가족, 연인 등 모든이들을 위한 최적을 나들이 공간이다.

장미 아치, 토파이어, 장미 웨딩 아치, 야외 웨딩 존, 고양 600년 포토 월을 준비하여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장미전시관에서는 장미 작품, 장미 벽화 포토 존 등 장미의 탄생, 신화, 특징 등 재미있는 장미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 도시원예를 위한 가드닝 교육의 메카

■ 글, 소순복 기자

도시원예 열풍이 거세다. 그 인기를 반영하듯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문화센터, 사설 단체 등이 앞다퉈 도시원예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본지가 주관하는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 역시 도시동부들로부터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2013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개강한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는 1만 여명의 농장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서울 경기권 가드닝 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 그 인기 비결을 소개한다.

1만여명 농장에서의 현장 실습 교육

본지가 주관하고, 우리꽃과 이천그린포럼이 주최하는 도시원예아카데미는 경기도 이천 '우리꽃' 농장에서 진행된다. 우리꽃 농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도시원예아카데미만의 가장 특별한 강점이다.

이천 우리꽃 농장에는 국내 야생화의 품종 개발을 리드하고 있는 우리꽃 연구소와 함께 첨단하우스, 연구 포지, 생산시설하우스는 물론 다양한

테마 정원, 그리고 미니 골프장까지 조성되어 있다. 야생화에서부터 유실수, 소나무, 텃밭용 채소까지 모든 식물의 재배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텃밭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완벽한 시설은 우리꽃 아카데미 수강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전. 다양한 품종 개발 및 연구 현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거대한 자연학습장에서 현장 실습위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국내 곳곳에는 다양한 가드너 교



육 과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이 현장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실내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한계성이 있다. 가드너들이 실전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꽃의 도시원예아카데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이론과 실습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텃밭 가꾸기 등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역시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비결이다.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는 3개월간 총 1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수진들을 만나게 된다.

도시원예아카데미는 일반원에 기초이론과 기술교육으로 건전한 취미 원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출범했다. 실내 정원, 베란다 정원, 채소 가꾸기, 수목 가꾸기 등 가정원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이다.

종자 파종에서부터 육묘, 식물의 재배와 병충해 방제, 화분이식, 분재 전정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텃밭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은 식물과 환경에 대한 이론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 식물의 생리와 원예식물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가장 가드너들을 힘들게 하는 병해충 관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국내 식물학계 대표 교수진 대거 포진



강사진 역시 국내 식물학계를 대표할 만하다. 본지 발행인이자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재 교수님과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님, 한국 철쭉 및 관상식물연구소 소장이신 이정식 전 서울시립대 교수님, 한국토종연구회 회장이신 안완식 농학박사님, 도시생활원예의 저자이신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종석 교수님 등이 강사진으로 대거 포진돼 있다. 여기에 국내 조경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우리꽃 박공영 대표도 강사로 나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다.

도시원예아카데미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도 제공한다. 현장에서 수확한 싱싱한 야채를 곁들인 식사를 먹는 즐거움이 배움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주말 아주머니의 후덕한 인심과 손맛은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



인기의 숨은 공신, 식사를 위해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여행을 떠나는 기본이다. 도시원예아카데미는 이번이 4번째, 이래로 온 것은 지난 3회까지 모두 참석한 회원이 있을 정도로 마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집안에 정원이나 텃밭이 없는 이도 있다. 그저 농작의 자연 환경이 좋아서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도 있다. 또 어떤 분은 심신의 안정적 치유를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고 하고, 어떤 회원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각각각색 찾는 이유는 달랐지만 같은 꿈을 꾸고 그들이었다. 행복한 삶,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가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다르지 않았다.

먹는 즐거움 &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 인기

도시원예아카데미의 매력에 도시텃밭 제공이라는 매력도 빼놓을 수 없다. 연 10만원 상당의 텃밭을 무료로 제공해 주어 교육기간 이후에도 작기 내 텃밭 작물을 무료로 수확할 수 있다. 주말농장까지 덩으로 제공해 그 인기를 더하고 있는 셈.

이외에도 월간 가드너 1년 무료 구독 혜택 및 원예도구세트 제공, 조정가이드북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날 23일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지금까지의 기수 회원들이 모여 가드 파티를 가졌다. 이와 같이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는 교육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서 도시농부들의 갈증을 풀어준다. 이러한 문화가 바로 월간 가드너인이 지향하는 '가드너인의 문화적 가치'이기도 하다.▶



노루귀

아기 노루의 귀를 닮은

■ 사진·글, 이명호

눈이 채 녹지도 않은 이른 봄, 양지바른 산자락에서 방긋 웃으면서 고개를 내미는 노루귀의 자태는 가히 우리 야생화를 대표할만한 꽃이다.

낮으로는 따뜻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아직 날씨가 음씨년스럽게 추워서 그런지, 온 몸에 솜털을 잔뜩 뒤집어쓰고 가련한 모습으로 꽃대를 피워 올리는 자태에 매료되어 촬영자들은 설 새 없이 서터를 두르기에 바쁘다.



노루귀의 꽃의 색은 참으로 다양하다. 분홍색, 자주색, 흰색, 청색, 보라색, 하늘색 등의 색깔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 색깔로 꽃이 피는 것이다.

꽃 색깔이 다채롭기 때문에 오래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다. 보는 이들도 모두 감탄을 연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꽃 색깔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홍노루귀, 자주노루귀, 청노루귀, 흰노루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고, 색깔을 따로 표현하여 분홍색 노루귀, 자주색 노루귀, 청색 노루귀, 흰색 노루귀라고 불러야 옳은 것이다.

식물의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얇만 길어도 붙어 써야 되지만, 도감에도 없는 이름을 맘대로 붙여 써서는 안 된다.



이명호
돌곶서양연구소 회장
두산백과사전 식물부문 집필위원
1980년부터 32년째 야생화사전 촬영 및 연구
이명호의 야생화(www.skyspace.p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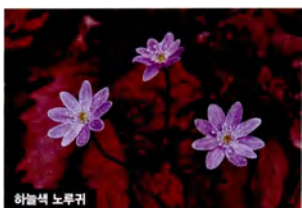


전국의 각 지역 산지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루귀는 어릴 때 듣는 일의 모양이 아기 노루의 귀처럼 둥그랗게 말리고, 뒷면에 털이 보송보송하게 돌아 있는 모습 때문에 노루귀라고 불리게 되었다.

꽃이 무척 예쁜 편이지만, 이름은 엉뚱하게도 일 모양의 생김새를 따서 부르게 된 것이다.

자생지역 환경에 맞추어 생명을 이어온 노루귀

꽃의 색깔이 제법 다양한 노루귀는 꽃이 먼저 피었다가, 꽃이 시들 때쯤 되어서야 잎이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한다. 반면에, 침노루귀와



새끼노루귀는 꽃과 잎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있다.

산의 높이에 따라서 노루귀의 꽃이 피는 시기는 많은 차이가 난다. 대개 4월에 많이 볼 수 있는 노루귀의 꽃이, 낮은 산에서는 3월이면 볼 수 있고, 높은 산에서는 5월이 되어야 꽃잎이 펼쳐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울릉도의 숲 속에서 자생하는 침노루귀는, 다른 지역의 노루귀보다 훨씬 크고 튼튼하게 생겼으며 털도 아주 많은 편이다. 몸집이 아주 거대한 노루귀라고 하여 일명 '큰노루귀'라고도 불린다. 바람이 많고 기온이 거친 울릉도의 자생지 환경을 슬기롭게 소화하고 있는 식물이 바로 침노루귀인 셈이다. 꽃은 대개 흰색이기는 하지만, 봉오리일 때와 꽃이 오므라져 있을 때에는 연한 분홍색을 띠고, 또 가끔은 끝부분에서 옅은불긋한 색깔을 다양하게 띠는 것도 있다.

남쪽 섬 지방에서 자라는 새끼노루귀의 꽃 또한 대부분 흰색이며, 그 몸체도 아주 작은 편이다. 잎의 표면에 백색의 얼룩무늬 반점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른 식물에서는 몸체가 좀 작고 왜소하게 꽃이 피는 종들의 이름 앞에 애기~나 쫌~을 접두사로 붙이는 반면, 노루귀의 경우에는 새끼~를 붙여 부르는 것이 조금 색다른 편이다. 여름철 잎이 한창 무성할 때에는 잎 뒷면이 홍자색을 띠는 것 또한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노루귀와 노루고개

노루귀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 수원군 봉담면 분천리에 위치한 '노루고개'에 얽힌 한평 이씨와 노루와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다. 옛날, 산골에 한평 이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집이 가난해, 나무로 생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그에게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달려와 그가 해놓은 나무더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포수가 뛰어들어, 노루 한 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한평 이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다고 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노루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산중턱으로 그의 옷자락을 물고 끌었다. 어느 한 지점에 다다른 노루는 드러내는 사냥을 해 보였다. 노루의 행동을 지켜보던 이씨는 마침내 그 뜻을 짐작했다. "아, 이 자리가 명당이라는 뜻이구나." 노루가 알려준 지점을 표시해둔 이씨는 부모가 돌아가시자 그 자리에 묘를 썼다. 그

후로 이씨의 자손들이 번창했고, 그 가운데서 많은 공신이 나왔다고 한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씨가 노루를 만난 이 고개를 '노루고개'라 불렀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갯길을 하였을 그 노루의 눈빛과 자태가 봄의 야생화 '노루귀'에서 고스란히 묻어난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순박하고 아름다운 이씨의 마음, 그 마음에 보은하려는 노루의 맑은 몸짓. 2013년 봄, 우리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또한 노루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야생화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식물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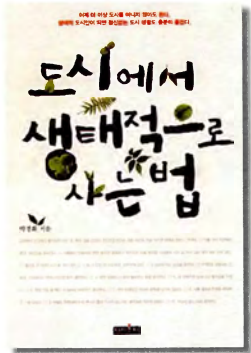
야생식물은 야생에서 꽃이 피어야만 훌륭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원예종은 사람이 노력을 들여서 예쁘게 길러야만 비싸게 팔리는 법이니가 말이다. 



누가 도시는 삭막하다고만 했는가 생태적 도시인이 되면 도시생활도 충분히 즐겁다.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에서 배우는 실용 에코 처방전

■글_황주리 기자



박경화 지음 | 명진출판 | 9,500원

매연을 뿜어대는 자동차를 타고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 이. 그러한 이가 ‘자연친화적’인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일찍이 위선적이라 생각하여 포기한 이들에게 정문의 일침을 가하는 책이다.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은 책 제목부터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빌딩 숲속 일회용품이 난무하는 사무실, 그리고 창밖의 뽕연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사는 우리들의 일상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이 꼭 ‘돼지’ 목에 ‘진주’격으로 생각 될 필요는 없다. 어쩌면 ‘생태적’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어울러짐’과 ‘통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태적’이라고 해서 굳이 집과 사무실을 온통 황토흙과 꽃과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어차피 생애(生애)라는 말 자체가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라는 말이

기 때문에 크게 괴리감을 느끼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얼마전 라디오를 들었다. 유명 아이돌 가수가 진행을 맡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목요일 코너 제목을 듣고는 무릎을 친적이 있다. 도시에 사는 법이야말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코너명은 ‘빌딩숲 속 대나무 옥상’이었다. 이만큼의 발전을 이루고 옛들어진 도시를 건설하는데 들인 자금과 노력을 무시한채 다 덮어버리고 다시 이 땅을 흙과 나무로 둘러쌀인 숲으로 만들자고 하면 미친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웰빙’ 그리고 우리가 요즘 찾는 ‘힐링’이야말로 바로 도심 속 어딘가에 나의 마음을 달래줄 ‘자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빌딩숲 속 대나무 옥상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보았다. 사무에서의 오아시스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삭막하고 뻣뻣한 도시에 서 숨통이 트이는 무엇. 그것이 바로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누군가를 통해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 중에 지금까지도 우리의 메마른 삶속에 희망이 되는 한 문장이 있다 -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다. 아무리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피할 수 없지만 즐기는 법’을 이 책에서는 소개한다.

첫째 부분에서는 도시에 찌든 우리들이 정말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을 깨준다. 그리고 정말 도심에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일깨워준다. 수년 동안 환경생태연구가로 활동해온 저자인 박경화는 여태 생태적이지 못한 우리들에게 꾸짖음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 자각하지 못했던 생활 속 환경문제들에 대한 위험을 친절히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도 자연과 건강을 포기하지 않고 몸과 마음과 건강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팁을 제공하니 이처럼 고마운 책이 따로 없다.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

▶ 우리 삶은 일회용이 아니다

몇년 전부터 스티로폼용기로 된 일회용 컵과면 용기가 사라지고 종이용기가 대체되었다. 이는 뜨거운 물을 부어 반응하는 합성수지라고 하는 스티로폼이 무독성이지만 조리시 원료 성분이 녹아 나오고, 포장재를 가공할때 넣는 첨가제까지 섞여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전차레인지에 데워도 괜찮습니다’라고 표기된 용기는 어디까지나 용기가 타거나 녹지 않는다는 뜻이지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 슬로우 푸드, 슬로우 라이프

옛부터 음식을 선택할 때는 ‘세가지 가까운 것’을 선택한다고 했다. 계절에 가깝고, 가까운 땅에서 자라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엔 화려한 색과 모양으로 유흥하는 요리들이 많고, 또 음식 고유의 맛은 무시한 채 양념을 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 원료가 무엇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길이 없고, 알 필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이말을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튀기기보다는 끓이는 편이 좋다. 끓이기보다는 굽기가 낫고 그 보다는 찌기가 더 낫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날것으로 먹는 것이다.”

▶ 공기 정화 식물 가꾸기

아이만덜: 실내의 상대습도가 최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지표식물로 쓸 수 있다. 음지에서 잘 자라는 데 습도가 높지 않으면 쉽게 말라 비틀어진다. 겨울과 봄, 가을에 침실이나 거실에 두고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면 주위의 상대습도를 높여준다.

산세베리아

보통 화분보다 30배 이상 음이온을 발생하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두면 실내 공기가 맑아진다. 새로 지은 집의 건축 자재들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흙



산세베리아

이 말라도 별 이상이 없어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어도 잘 자라는 아주 강한 식물이다. 화분에 숏과 함께 키우면 집안 어느 곳이라도 좋고, 특히 아이방에 두면 좋다.



스파티필름

완전 연소된 유해가스를 빨아들인다.

관음죽

화장실에 물이 달지 않게 두면 암모니아 냄새를 없애준다. 음지식물로 빛이 많지 않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며, 열대식물이지만 추위에도 잘 견딘다.



관음죽

싱고니움

실내 공기에 함유된 모든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실내 화초 중 빛, 온도, 수분 등의 환경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식물이므로 어느 곳에 두어도 잘 자란다.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지만 건조에도 강한 편이다.

건강을 불러오는 생태 풍수지리

- 1 남향이나 동향 집이 좋다
여름의 맹렬을 피하고 남풍이 불어 시원하다
- 2 방은 한 사람당 6평이 적당하다
부부끼리 살면 12평, 4인 가족이면 24평이 적당하다
- 3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다
낮과 밤은 산,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연순환에 원리이다.
- 4 아파트는 5층 아래가 좋다
지표면에서 가장 높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나무고, 그 높이는 생명체가 머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다.

▶ 공기 정화기보다 자연 환기가 우선
집집마다 팬필로 가정에 들여놓은 공기정화기는 창과 문이 없고 별이 잘 들지 않은 방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창과 문 그리고 별이 잘 드는 곳에 사는 환기가 우선적이다.

자연스럽게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

- 1 문과 창문을 가끔씩 활짝 열어둔다. 공기 정화기를 들여놓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숨쉬는 공간에서는 산소가 점점 줄어드니 자주 창문을 열고, 특히 오존이 나오는 공기정화기가 있다면 반드시 환기를 해주어야 한다.
- 2 방 안의 물건들은 말끔히 정리한 뒤 꼭 필요한 것 몇가지만 둔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말끔하게 정리해주시는 정서가 좋다.
- 3 양초를 30분 정도 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4 화장실 냄새를 없애는 데는 관음죽이 좋다. 관음식물인 행운목, 벤자민, 디펜바키아, 피닉스 야자, 고무나무, 국화, 네르플레피스 역시 공기도 맑게 해주고 보기에도 좋은 식물들이다.
- 5 숏 역시 집안 공기를 맑게 하는 데 좋다.

행운목

사무기기와 실내장식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한다. 복사기, 프린터가 있는 곳이나 실내 장식이 많은 매장, 거실에 두면 보기에도 좋다.

향아자

신축 건물에 많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을 흡수하고 담배연기를 제거하는 데 뛰어나다. 중산작용이 많아 상대습도도 높여주니 거실 같은 넓은 공간에서 키우면 좋다.

인도고무나무

카펫이나 벽지의 유독가스를 흡수하는 인도고무나무는 카펫이나 페인트, 벽지 같은 곳에서 뿜어 나오는 유독가스를 흡수한다. 잎이 넓어 공기 정화 작용이 뛰어나고 광합성도 매우 활발하다.

잉글리쉬 아이비

새 커튼, 장식용품, 바닥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흡수한다. 공기 정화력도 뛰어나고, 포름알데히드도 제거해준다. 음지와 양지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강한 식물이다. 추위에도 강하고 덩굴성이라 벽을 타고 자란다.

벤자민 고무나무

공기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 잎이 많은 만큼 공기정화 효과도 크고, 난방기나 조리 중 불완전 연소된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를 흡수한다. 사람이 많거나 실내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두면 좋다. 햇빛을 좋아하니 밝고 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테이블 야자

페인트, 니스, 이음새 처리에 사용한 본드, 합판 같은 곳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흡수한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새 집, 새롭게 리모델링한 아파트, 다시 꾸민 사무실에 두면 좋다. 개조한 집의 집들이 선물로도 좋다. 불쾌한 냄새가 나는 신발장 위에 올려두면 신발장 냄새도 없어진다.

▶ 어떤 숯이 좋을까?

습기와 냄새제거, 물 정화, 토기개량에 목적이란 어떤 숯이든 좋다. 그러나 먹는 물 정화, 취사용, 세탁용, 목욕용, 전자파 차단 같은 용도에는 단단하고 물에 가라앉는 백탄이 좋다. 숯은 굵는 방법에 따라 검탄과 백탄으로 나눈다. 검탄은 섬시 600~700도에서 구운 뒤 가

마를 밀봉해 불을 끈다. 백탄은 온도를 섬시 1,000~1,100도까지 올려 굽고, 가마의 가스를 뺀 뒤 불이 붙은 상태에서 숯을 꺼내 흙으로 덮어 불을 끈다. 이때 숯 표면에 흙이 허렇게 붙어있어 백탄이라 한다. 백탄은 연료나 약취제거, 습기방지, 해독작용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쇠처럼 단단해서 가루로 만들면 유리조각과 같이 날카롭기 때문에 가족의 사료나 먹는 용도로 쓸 때는 조심해야 한다.

▶ 잘 거른 수돗물이 생수보다 낫다

끓은 물은 생기가 없는 죽은 물이라 하고, 매번 생수를 시켜 먹자니 플라스틱 통이 버려지는 것도 마뜩찮다. 공기정화기처럼 요새 많이 들어놓는 것이 정수기라고 하는데, 물을 거르기 위해 전력을 쓰며 따로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물맛이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는 자연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유가 칼슘 흡수를 떨어뜨린다



테이블야자

▶ 우유가 칼슘 흡수를 떨어뜨린다

어렸을 적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키가 자라지 않는다. 또 뼈가 튼튼해 지려면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말이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누구나 다 알듯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비타민섭취가 그렇듯 일일 적정량의 비타민 섭취를 넘어서는 경우 비타민 과다 섭취로 오히려 '과유불급'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유가 그렇다. 우유나 유제품의 칼슘은 우리 몸에서 30%정도밖에 흡수되지 않고, 갑자기 너무 많아지면 거절 반응을 나타낸다. 또 우유를 많이 먹는 아이는 비만에 더 잘 노출 된다고 하니, 우유섭취 조절을 제대로 해야겠다. 이 외에도 잠을 잘 자는 자세, 적절한 침실환경, 가슴기의 전자파를 막는 올바른 사용방법, 현대인의 내장 비만을 예방하는 생활 단식, 자연 화장법 등 꼭 알면 좋을 일용할 현대 상식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생활백서, 또는 현대인의 자연보감' 정도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나하나 행거서 실천하면 모두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자침서이니 품에 꼭 끼고 하나씩 실천 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



화초를 키우기 위해 무조건 1층으로 이사했어요 여러분도 가드닝 하세요

경남 창원 김민정 주부(영어강사)

화초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록이라 불리는 꽃피지 않는 애들(?)부터 가드닝을 시작하지요. 저도 지금 큰 애가 11살이니까, 8년 전인 아기가 3살 때부터 화초를 조금씩 사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6년 전 아파트 1층 정원을 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원에 데크도 만들고 잔디를 심고, 꽃도 심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늘 그렇듯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한잔 들고 나가서 꽃하고 먼저 눈을 마주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SNS로 많이 가깝고 친하게 된 분이지만 6년 전 인터넷을 이리저리 살피다 블로그에서 깔깔마녀라는 닉을 알게 되었고 그분 블로그에 가서 밤새도록 화초를 구경하는 날도 있었지요. 그러다 또 알게 된 산타벨라라는 닉은 책으로 먼저 만났고, 책을 산 후 그분 블로그에도 얼마나 열심히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집에서 생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경기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바람에 급하게 온 가족이 분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2년 후 다시 창원으로 이사 올 계획이어서 키우던 화초 1/3만 갖고 떠났습니다. 전 그곳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예쁜 제라늄과 임파첸스를 참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주 사던 곳이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농장에 직접 찾아가 제라늄 삼목하는 방법과 영양제 주는 법 등 열심히 배웠어요. 농장 아저씨는 정말 친절한 분, 설명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명품백보다 귀한 화초를 얻게 된 것이 더 기뻐요

화초를 모으면 모으수록 작은 베란다가 답답했어요. 창원에 있는 제 집이 그리워 얼마나 많이 가슴앓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3월에 다시 이곳으로 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창원 제 집은 지금 5월에 절정입니다. 제 눈엔 너무 예뻐 보입니다.

화초를 키우다 보면 좋아하는 화초도 비슷하고, 예쁜 화초를 가지고 계신 분을 보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목이 빠져라 기다리기도 합니다.



다. 그 화초를 찾을 때까지 발품을 팔며 해매 다니기도 하고,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게 되지요. 그러다 마침내 제 손안에 갖게 되면 그 기쁨은 값비싼 명품을 갖게 되었을 때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기뻐요. 그런 귀한 애를 너무 예뻐서 SNS에 사진을 올리게 되면 '그것 좀 얻을 수 있냐' '좀 잘라서 주면 안 되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화초를 나누어 주는 것을 꺼립니다. 아직 저만큼 화초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화초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생활의 즐거움이예요

제 즐거움 중 하나는 SNS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화초 이야기 나누고, 다른 분들의 화초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도 예쁜 꽃을 보여주면서 가드닝을 권유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전 원예치료를 믿습니다. 생활에 활력도 주고 기분도 좋아지지요. 내가 가진 꽃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연출해서 사진도 찍을까 생각하고 실패한 화초는 성공할 때까지 매년 사면서 인쇄심도 기르지요. 여러 번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공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주위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쁜 꽃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가드닝 하세요" 라고요. [▶](#)

야매가드너의 가든다이러리

옥상텃밭 관리

초보가드너가 되면서부터 주말에 늦잠자고 놀러 나가는 것은 연감생심 꿈에도 못 꾀다. 술마시고 들어온 날도 식물에 물 주러 옥상부터 올라가야 한다.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건만 신기하게도 식물을 대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또 다른 식물을 입양하고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이다. 몸은 좀 고되더라도 진정한 가드너가 되는 그날까지 겹쳐하게 가든다이러리를 써 나갈 예정이다.

■ 글: 사진 김지태

씨앗심기 2013. 03. 27



알타리무를 특별히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가든조아에서 텃밭채 배세트를 구입했는데 서비스로 알타리무 종자가 딸려 온 것이다. 씨앗 봉투에 적힌대로 씨를 뿌려보기로 한다. 재배백에 상토를 채운 후 세트구성품인 토양미생물제 토심이를 적당히 뿌려준다. 새끼손가락 만큼 깊이에 서너알 씩 정성껏 뿌린다. 아직은 밤 날씨가 차기 때문에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 비닐을 덮어 주는 정성을 들여야 했다.

10일 만에 떡잎 등장 2013. 04. 10



비닐을 씌워준 정성이 있어서인지 10일만에 떡잎이 돌아왔다. 알타리무가 가장 빨랐고 파프리카와 보라당근, 아욱 등은 비슷하게 20여일 즈음 지나자 떡잎이 나왔다. 양중탕은 떡잎들 너무 예쁘다. 민트도 비닐하우스를 씌워주니 잘 자랐다. 그러나 바질은 같은 환경에 두었는데도 죽고 말았다. 같은 허브과라도 바질은 더욱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새싹 숙아주기 2013. 04. 22



숙아주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몰라 어머니에게 물으니 그냥 튼실한 애 하나만 남기고 주변 싹들을 뽑아버리라고 한다. 싹해보이는 애 하나만 남기고 주변 것들을 뽑아버린다. 알타리무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몰라서 대충 짐작해서 간격을 띄워준다. 파프리카와 보라당근, 아욱 등은 점점 튼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고추는 씨앗을 심지 않고 바로 키워보려고 모종을 사왔다. 한 개에 천원, 5개, 스티로폼 박스에 5개 고추나무를 적당한 간격으로 심어준다.

손바닥 만큼 자라다 2013. 05. 12



알타리무 이파리가 아이 손바닥만큼 크게 자랐다. 배란다텃밭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아직 2달은 더 있어야 뿌리가 자란다고 한다. 두 번 씹이나 숙아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일단 며칠 두고 본 후에 뿌리를 살펴보고 다시 속는 걸 결정해야겠다. 고추나무는 잘 자라는데 힘이 부족해 보여서 나뭇가지를 주위와 지지대를 만들어줬다. 신기하게도 열흘 만에 상추 새싹이 나왔다.

다시 숙아주기 2013. 05. 01



봄비를 몇 번 맞아서 그런지 이파리가 꽤 자랐다. 살짝 뽑아보니 무뿌리는 애개, 굵은 콩나물 수준으로 가늘다. 지난 번에 숙아주는 간격이 너무 좁았는지 너무 조밀해 보여서 다시 주변을 숙아준다. 잘 자라던 뽕시금치 새싹들이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모조리 죽어버렸다. 할 수없이 화단을 갈고 라벤더와 상추 씨앗을 뿌린다. 날이 좀 더 따뜻해졌으니 잘 자랄 것 같은 예감이 든다.in

가든인에 질문 있어요!

질문1

이 야생화 키워도 괜찮을까요?



지난번 소개한 야생화 화단은 철쭉과 이름모를 조그만 야생화들이 점령한

한 달 전에 심었던 하늘매발톱과 동자꽃은 심을 때 그대로 묘종상태구요. 아직 생생히 살아 있으니 좀 있어야 꽃을 피우려나 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작은 야생화들이 무리지어 그라스처럼 피어 있어요. 크기는 갓난아기 손톱만한데 자세히 보면 참 예쁩니다. 이게 무지하게 잘 자라는 거 같은데 뽑아다가 옥상에 놓고 무리지어 키워도 괜찮을까요?

가든인

'꽃마리'라고 합니다. 꽃마리는 보통 4월부터 연한 하늘색꽃이 필니다. 보통 과수원, 특히 감나무 근처에 자라곤 합니다. 과수원 입장에서 보면 잡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식물 특성상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옥상에 놓고 무리지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발아한 새싹을 언제 옮겨 심어야 하나요?



조그만 포트에 발아시킨 모종들이 많이 컸습니다. 파프리카와 보라당근, 아욱인데도 무력무력 잘 크고는 있는데 언제 옮겨주어야 할까요?

가든인

당근은 타작물과 이식을 하게 되면 뿌리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종한 후 정식하지 않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가지와 작물이므로 일반적 고추 재배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고추에 대한 내용은 이번 호 '이달의 텃밭농사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프리카 이식 시기는 첫 화방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아욱은 일반적으로 상추와 비슷하게 파종 후 20~30일 정도면 옮겨 심어도 됩니다.in

식물, 스스로 방어한다

식물이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식물이 지구에 출현함과 동시에 식물을 먹어 또는 기주로 하는 병해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식물을 기우는 인간에게도 이런 병해충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화학물질을 개발해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식물의 자체 방어시스템, 즉 방어기작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나무나 식물들이 환경과 포식자로부터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알아본다.

■ 글_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_ Biology,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승준 연구관



큰고투리의 털은 해충으로부터의 피해를 덜 받기 위한 방어시스템이다. 출처_ fieldcropnews.com

식물의 표면...인간의 피부와 같은 1차 방패
식물은 피부, 즉 표피는 왁스(wax)로 덮여 있어 곰팡이와 세균이 수막을 통한 침입을 어렵게 한다. 식물 표면의 털도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예로 미국의 퍼듀대학교에서는 털이 많고, 적은 공 고투리를 갖고 해충의 침입정도를 실험한 결과 털이 많은 고투리는 적은 것보다 해충의 피해를 덜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를 위한 식물의 피부, 즉

표피가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도 있다. 가시장미나, 선인장 등과 같은 종류는 가시로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칼처럼 날카로운 잎을 가진 억새나 강아지풀도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병균이 식물의 기공이 열렸을 때 침입돼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다. 조직의 세포벽은 두께와 강도가 변하게 된다. 특히 2차 세포벽인 '후벽세포'가 더욱 단단해져 줄기병균과 같은 병원균이 퍼지지 못하게 된다.



필리핀의 망그로브(Mangrove) 나무. 해안에 서식하면서 뿌리가 물에 잠겨 있지만 공기뿌리가 산소를 받을 수 있다. 출처_wikimedia

다.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는 식물이 죽는 위험에 다다를 수 있다. 또 장마 때 또는 폭우로 인해 식물 자체가 물에 잠기는 '침수'현상이 오기도 한다. 간단히 집 베란다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주었을 때 뿌리의 세포호흡에 영향을 주어 말 그대로 호흡의 곤란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수경재배를 하는 식물들을 보면 유달리 뿌리가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산소의 부족으로 인한 공기를 품을 수 있는 기관이 형성되어 물에 잠겨 있어도 산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온과 저온에도 살아남는다

수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고온과 저온에도 자체적 방어시스템이 가동되기도 한다. 날씨가 더울 때 사람의 피부는 땀샘 구멍을 늘리고, 체내 수분을 외부로 증발시켜 외부 온도의 차이를 통한 냉각효과를 일으켜 시원함을 느낀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따뜻한 날에 잎의 온도는 주변보다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다. 또 저온스트레스에도 견딘다. 주변 온도가 떨어지면 지질로 구성된 세포 임자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분자구조가 바뀌게 된다.

이것은 마치 세포막이 움직이는 효과를 일으켜 저온에도 세포막의 신축성이 작용을 하게 된다. 또 추울 때 식물이 죽는 이유가 식물 자체의 수분을 잃어버리거나 마느라 관건이다. 추운 지방의 식물들은 자체 세포의 농도를 높여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삼투압현상을 최소화시킨다. 이것이 저온스트레스에 견디는 식물의 힘이기도 하다.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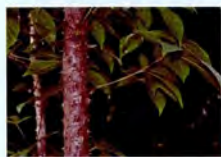
가미바위솔은 내한성이 강해 최근 육상녹화식물로 많이 쓰이고 있다.

표피가 변해 자신을 보호하는 식물들

가시로 보호하는 류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수고가 25m에 달하고 어린가지에는 털이 없지만 점차 턱잎이 변한 가시가 1쌍이 나타난다.



옴나무
(*Kalopanax pictus*)
수고가 25m정도로 나무의 껍질에는 흑갈색으로 가시가 많다. 노목은 가시가 무더지는 특성이 있다.



가시엉겅퀴
(*Cirsium japonicum* var.)
산과 들에 자라고, 엉겅퀴보다 가시가 뾰족하고 많으며 길이가 6~10mm이다.

날카로운 잎을 이용하는 종류



벼
(*Oryza sativa* L.)
선형의 잎은 가늘고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까칠하다.



억새
(*Miscanthus sinensis* var.)
잎은 줄 모양이며 길이가 40~70cm이다. 끝이 갈수록 뾰족해지고 가장자리는 까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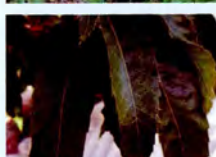


강아지풀
(*Setaria viridis* L.)
잎의 길이가 10~20cm로 어긋나게 달리고 앞면을 만져보면 깔끄러운 느낌이 든다.

툰니 잎을 이용하는 종류



밤나무
(*Castanea crenata* var.)
어긋나게 달린 잎은 타원형 또는 피침형으로 가장자리에 끝이 날카로운 파상의 톱니가 있다.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밤나무와 비슷하게 잎이 어긋나게 달리고 타원상 피침형에 가장자리에 바늘모양의 톱니가 있다.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어긋나게 달린 잎은 심장형으로 매우 크고 가장자리에 굵은 톱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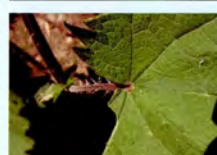
털을 이용하는 종류



도깨비바늘
(*Bidens bipinnata*)
열매는 미국가막사리에 비해 가늘고 길고 4개의 가시털이 있어 물체에 잘 달라 붙는다.



진득찰
(*Sisbeckia glabrescens*)
들판이나 바닷가에서 많이 자라고, 줄기에는 털이 뽀뽀이 나 있다.



뽕기풀
(*Urtica thunbergiana*)
숲 가장자리에 자라고 포기 전체에 가시털이 나 있다.

Q&A

Ask our experts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김영채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 명예 교수



안완식
농학박사
씨드림 상임대표



이중식
서울여대 명예교수
한국도시농업 연구회 회장



윤명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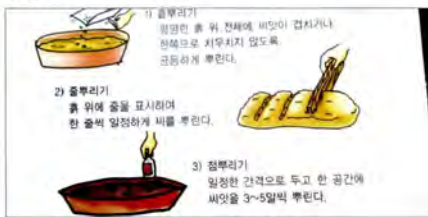


과습과 나쁜 물빠짐, 식물 생육에 좋지 않습니다

Q 주방 한쪽에 방울토마토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줄기도 굵고 열매도 많이 맺혀있는 걸로 골랐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지고 오니까 잎이 누렇게 되고 시들시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A 토마토 묘목을 구입 할 때는 줄기가 가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람도 좋고 열매가 균일하게 열리게 됩니다. 잎이 누렇게 뜬다는 것은 화분에 물을 자주 주어 용토가 과습하거나 물 빠짐이 나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마토 뿌리는 다른 작물에 비해 특히 산소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가정에서는 화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5일에 한번씩 주는 것이 좋습니다.

Q 얼마 전 꽃박람회 갔다가 적근대 채소 꽃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설명서에는 씨앗뿌리기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 뿌리면 될까요. 흙어뿌리기, 줄뿌리기, 점뿌리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A 세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파종 방법입니다. 흙어 뿌림이나 점뿌림은 면적이 큰 포장에서 하는 방법이고, 줄뿌림은 소규모 재배 농가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줄뿌림을 하여 어느 정도 자라면 솥아 주시고 자람세를 보아 일정 간격으로 포기를 두어 재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씨앗의 크기에 따라 파종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씨앗 크기가 1mm이하인 아주 작은 씨앗은 흙 전체에 골고루 흙어뿌리기를 합니다. 8mm이상인 큰 씨앗은 간격을 띄우고 한 곳에 2,3알씩 심는 점뿌리기가 적당합니다. 1~2mm 정도 크기의 씨앗은 줄뿌리기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폭 1cm, 깊이 5cm 정도의 알은 고랑을 만들고 씨앗이 겹치지 않도록 줄을 따라 뿌리면 됩니다.

Q 식물을 화분 또는 화단에 심다 공극한 것이 생겼습니다. 식물을 심은 후 흙을 덮을 때 힘을 주어 꼭 덮여주는 것이 식물이 생장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A 식물을 심은 후라고 했는데 어떤 식물인지 궁금합니다. 포트에 있는 묘목이라면 심기 하루 전 포트에 1~2회 정도 물을 충분히 주세요. 그래야 포트에서 물을 뽑을 때나 심을 때 잔뿌리가 끊어지지 않아 뿌리 내림이 좋게 됩니다. 포트 크기보다 약간 넓은 구멍이를 판 후 심을 묘목을 넣은 후 포트 밑부분이 토양에 밀착되도록 물을 주신 후 누르지 말고 공간에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물을 주거나 눌러서 심으면 땅의 온도가 떨어지고 잔뿌리가 끊어지게 되어 병이 발생하거나 뿌리 내림이 늦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꼭꼭 눌러주고 줄기까지 흙을 올려주는 분들이 있는 이는 잘못된 묘목 심는 방법입니다. 포트가 아닌 묘목일 때는 구멍이에 묘목을 넣고 뿌리가 고루 퍼지도록 공간에 흙을 다 채운 후 물을 충분히 주워 흙이 가라앉으면 누르지 말고 마른 흙을 가볍게 올려주면 됩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블루베리 나무는 인공 수정이 필요합니다

Q 저희 집에 블루베리나무가 하나 있는데 키운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지난해에 꽃은 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이번년도에는 꼭 열매 맺힌 모습을 보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암술과 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 꽃은 수술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길이가 길어 자연 수정이 어렵습니다. 자연에서는 벌들이 이동을 하며 수정을 시켜 주지만 가정에서는 벌과 나비가 없어 반드시 인공 수정을 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인공 수정이란 꽃이 필 때 붓으로 암술에 수꽃가루를 묻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수정이 되어 열매가 잘 달리게 됩니다.



Q 집 마당에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나무 앞에 검은점 등이 생기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올해 미리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병명은 검은 별무늬병입니다. 봄철에 기온이 낮고 일조량이 부족할 때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과수 농업을 하는 전문농업인들도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에 전문 약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Q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려하는데, 종자로 구입해야 하는 것과 모종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열매가 달리는 채소는 육모판에 묘종을 키워야 합니다

A 채소는 씨앗을 직접 땅에 뿌려 재배하는 직파재배와 씨앗을 묘상에 일정기간 가꾸어서 모종을 발에 심는 이식재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식이 잘 안 되는 무, 당근 등 뿌리채소들과 시금치, 쑥갓, 상추 등은 직파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식물 크기가 큰 채소들은 모 기르기를 하여 재배합니다. 이를 육묘파라 하는데, 토마토, 가지, 고추, 참외, 딸기, 고구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육묘해야 하는 채소입니다. 그러나 텃밭에서는 모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지보다 보다 세심한 수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종을 골라, 채소를 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나 당근, 우엉, 근대, 아욱 등은 직파와 육묘 어느 방법으로 해도 잘 자랍니다.



Q 발에 심어 놓은 바질이 자주 누렇게 되고 있어요. 물도 매일매일 주는데 왜 그런 걸까요?

A 바질이 아니고 바실입니다. 들개 잎처럼 향이 있는 열대 지방의 원채소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바실은 물빠짐이 좋고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잎이 누렇게 뜬다는 것은 아마도 심어 놓은 포장이 너무 과습하거나 진흙이라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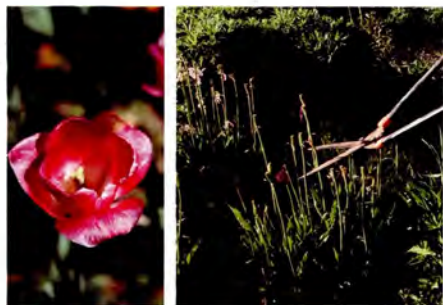
Q 옥상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옥상에 일정한 면적의 흙을 채워 커다란 화단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상자텃밭 정도라면 방수공사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티로폼 상자와 같은 텃밭 상자가 옥상 방수면과 맞닿아 있다면 한 여름 벌레 서로 녹아 붙어 방수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나무토막을 놓고 그 위에 상자텃밭을 올려놓으면 배수도 용이하고 방수코팅도 보호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옥상텃밭의 부유물 등이 쉽게 배수구를 막아 한 두 시간 만에 옥상전체를 물바다로 만들 수 있으므로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Q 올해 초에 튤립 화분을 선물 받았어요. 꽃이 예쁘게 피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보려면 꽃대를 잘라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왜 잘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구근류를 키우려면 해가 덜 비치는 서늘한 곳에 두면 좀 더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껏 꽃을 감상하고, 이후 꽃이 시들면 그때 꽃을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는 땅 속의 영양분이 시들여가는 꽃에 나눠주는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단 잎을 잘라주는 안됩니다.

익은 땅 속 구근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꽃대를 자르고 지효성 비료 등을 공급하고, 햇빛을 쬌어 줍니다. 또한 튤립은 추식구근으로 6월에서 7월사이 구근을 캐서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 놓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다시 심으면 이듬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줄기가 곧고 웃자라지 않는 묘가 우량묘입니다

Q 좋은 모종이란 어떤 것일까요. 색깔이 진하고 튼튼해 보이는 모종이면 다 좋은 모종이라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A 좋은 모종은 줄기가 곧고 웃자라지 않는 묘가 우선입니다. 줄기 마디 사이는 좁고 단단한 것이 좋으며, 노화되지 않고 병해충 피해가 없는 묘가 좋습니다. 특히 마디가 험없이 갈라지고 잎이 연한 색인 묘는 절대 구입하지 마십시오. 키가 큰 묘도 피하세요.

대신 뿌리가 잘 발달하여 잔뿌리가 많고 밀생되어 있는 묘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서 묘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묘를 고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되는 수퍼마켓에서 채소를 사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건의 회전율이 좋아 물건이 상할 것이라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in



A 아래에 장판이나 비닐을 펼쳐놓고 그 위에 현 수건을 깔아주세요.

그 위에 현수건 몇장을 깔아주신 후 화분을 올려놓으세요. 물이 수건 위에 떨어지도록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놓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창문은 잠금장치를 하신 후 환기가 되도록 조금만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Garden In News

JUNE 2013



발광다이오드라 불리는 LED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쓰이고 있다. 특히 농업에서도 LED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LED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가든에 LED를 혼합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LED와 식물을 접목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해본다.

화분의 물 체크, LED가 안내한다 - 마이플라워

물을 제 때 주지 않아 시들어버린 화분을 버리기 바쁜 '화초 킬러'들은 여기에 주목하자. 가정과 사무실에서 손쉬운 화분 관리를 똑똑한 식물관리기 '마이 플라워(My flower)'를 출시한다.

'마이 플라워'는 식물의 특성에 따라 수분이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 스마트한 식물관리기이다. 화분에 꽂아두면 토양의 수분량을 수시로 체크해, 물이 필요한 시점에 센서가 작동한다. 흙 속의 LED 램프가 물이 부족한 상태를 세 단계로 인식해 불이 켜지게 되는 간단한 사용법을 갖고 있다. 또한 전지 하나로 8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식물과 조화를 이루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실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쓸 수 있다.

'마이 플라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뉴얼 홈페이지(www.moneual.co.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neual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88-2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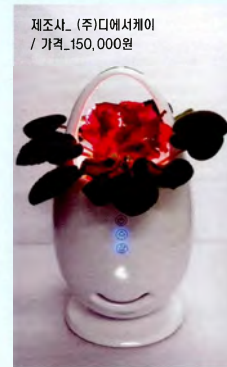
제조사_모뉴얼 / 가격_20,000(예정)

LED로 음이온을 만들어보자 해피온 - LED기능성화분

사무실 또는 실내에 키울 수 있는 식물은 한정되어 있다. 이에 꽃이 피는 식물보다는 주로 관엽류 위주의 식물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광, 빛이 부족한 실내 공간에 긴 시간 동안 두게 되면 식물의 생육이 저하된다. 식물을 좋아하지만 실내에서 키우고 싶다면 이런 제품은 어떨까. 발광다이오드(LED)가 부족한 광을 보충할 수 있는 기능성 화분이다. LED의 적색과 백색의 비율이 1:1 조합으로 처리하면 꽃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배정도 늘어난다.

LED모듈이 설치된 이 제품은 이 화분은 식물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임파첸스, 아프리카바이올렛, 베고니아 등의 충분한 빛이 있어야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키울 수 있다. 또 로즈마리, 펠라곤과 같은 빛이 부족하면 생육이 약해지는 식물들도 키울 수 있다. 식물 재배와 함께 내부 음이온 발생 모듈이 있어 기존 8~10㎡면적용 음이온 발생기 효과도 갖고 있다. 이 화분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되어 기술이전된 제품이다.

문의 070-4169-9977



제조사_(주)디에스케이 / 가격_150,000원

나비의 특별함을 체험하세요 서울숲 나비정원



서울시가 10월 31일까지 나비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날 17일 기존보다 규모를 2배 확대해 전국에서 세 번째 큰 나비 생태공간으로 재개장했다. 서울숲나비정원에는 나비의 일생에 필요한 먹이식물(황벽나무, 산초나무, 케일, 종자꽃 등)과 흡밀식물(유채꽃, 난타나, 참나리, 붓꽃레리아 등)을 식재되어 있다. 또 10월까지의 그물망으로 설치된 나비정원에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유리온실인 곤충식물원에서 살아있는 나비를 관찰할 수 있다. 나비정원에서는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지정보호종인 산제비나비, 호랑나비, 암갈검은 표범나비, 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을 볼 수 있다. 또 나비에벌레, 번데기의 탈피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6일까지 한반도와 세계의 대표나비표본을 관찰할 수 있는 나비특별체험전도 된다. 나비정원과 나비특별체험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나비체험전이 열리는 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곤충교실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서울숲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seoulforest)에서 하고 있다. 참가비는 5천원이다. 문의 서울숲관리사무소(460-2901-5)

주말농장 잡초, 검정비닐 대신 신문지로 해결해요 잡초방제율 70% 이상 높아



농촌진흥청은 주말농장 잡초방제를 위해 멀칭용 검정비닐 대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신문지를 이용한 친환경 잡초방제법을 제시했다. 검정비닐은 잡초 발생을 막고 토양의 온도 유지와 수분 증발을 방지해 작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여름에는 토양 고온 현상과 수분 포화 상태가 발생해 뿌리의 호흡이 안돼 작물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작물 수확 후에는 거둬들이지 않고 토양에 남아 있거나 불에 태우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면 신문지는 멀칭용 검정비닐에 비해 잡초방제율은 다소 낮지만 통기성이 좋아 토양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다. 또한 적절한 토양 수분과 미생물을 유지할 수 있어 병해충 발생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멀칭용 검정비닐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둬들이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토양에 남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신문지를 이용해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신문지 두 겹을 겹쳐 빈 땅이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덮어준 다음 중간 중간 피비와 흙으로 눌러준다. 신문지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이병모 연구사는 "잡초 방제를 위해 신문지를 이용하는 것이 멀칭용 검정비닐을 이용하는 것보다 약간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자연과 환경을 살릴 수 있고, 작물도 더욱 튼튼하게 기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031-290-0562

자원재활용을 이용한 키자니아 가드닝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는 그리너월드 업사이클링 이벤트의 두번째 이야기로 '키자니아 가드닝'이벤트를 6월13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리사이클링이 '재활용'을 테마로 했다면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을 고차원적인 디자인이 접목된 것이다.

우선 키자니아 중앙광장에 폐품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고자 업사이클링 미니가든이 조성됐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휴식을 취하며 통로로 캔, 전구, 와인병, 사탕케이스 등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폐품 화분의 재활용 팁을 얻을 수도 있다.

매주 토요일 키자니아 내에서 생산되는 일회용 컵을 중앙광장으로 가져오면 선착순 100명에 한해 예쁜 허브를 심은 화분을 꾸며볼 수 있다.

또한 키자니아를 방문한 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엄마를 위한 재봉틀 교실'이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번 행사는 매주 토요일 3회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www.kidzania.co.kr)에서 가능하다. 문의 1544-5110

접시정원으로 나도 도시농부

2013 도시농업경진대회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6월 14일 도시농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도시농업 확산을 통한 시민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행사는 아이디어 텃밭 농원 및 접시 정원을 제작하여 실력을 겨룬다.

대상은 서울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나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 희망자중 30명(아이디어 텃밭농원 10명, 접시정원 20명)이 6월 5일 1차 심사를 받는다. 텃밭은 서류심사, 접시정원은 상식테스트를 거쳐 통과한 시민들이 14일 본선을 치른다. 출전작도 14일부터 전시된다.

경진대회의 재료 용기와 소품, 그리고 식물은 본인이 직접 준비한다. 배양토, 마사토만 센터에서 준비해 준다. 아이디어 텃밭농원은 1x1m 내의 크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된다. 접시정원의 경우 용기 모양에는 제한이 없다. 텃밭과 접시 정원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에서 접수한다.

문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02-459-8994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한평정원 패키지 운영



순천시는 주민자치 10년을 맞아 정원박람회장과 연계, 도심 곳곳의 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한평정원 사례를 안내하는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운영한다.

'그린 DNA와 도시의 속살'이란 마을 탐방 프로그램은 작은 도시 순천시가 추진한 창조실천 사례인 정원박람회 뿐만 아니라 마을가꾸기를 통해 도시를 재생시킨 남제골, 문화의 거리, 청수골 등의 추진 과정을 직접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시민소통과(061-749-3698)로 하면 된다. 예약이 완료되면 원하는 날짜에 정원박람회장을 마을 해설사와 정원박람회 알람이들이 동행하며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한국조경 '월간 가드닝' 창간

한국조경신문이 '월간 가드닝' 5월호를 창간했다. 창간호에서는 정원이 꾸기, 정원디자인, 정원문화, 정원산업 등을 테마로 다루고 있다.

또 유명작가들이 조성한 '아름다운 정원 13선'을 통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도 소개했다. 가든 디자이너 소개편에서는 '영국 첼시의 스타 왕지해의 작품세계'가 특집으로 다뤄졌다.

'사람을 위한 화분들의 아파트' 등 생활 속 정원 아이템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고마 정원사'와 '마스터가드너' 등 새로운 흐름을 다루고 있다.



숲으로 떠나는 맞춤형 치유여행

북부산림청 '청태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북부지방산림청은 '청태산 치유의 숲'(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연령별(어린이, 청소년, 노인), 질병별(비만, 관절염, 아토피),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가해자 학부모 등 이용자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낙엽송으로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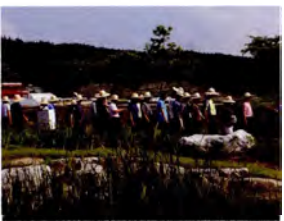
진 회마의 숲길, 다양한 활엽수로 이루어진 기암의 숲길 등 각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23km의 11개 노선으로 조성해 다양한 숲길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산 1-3번지 청태산 중턱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총 면적 95ha(시설면적 2,191㎡)의 산림내에 건강증진실과 물치유실, 열치료실, 등을 갖춘 포레스트힐링센터를 중심으로 숲길과 연계되어 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은 매일(주말포함) 3시간(09:30~12:30/13:30~16:30)코스와 6시간(09:30~16:30)코스가 진행되며, 전화예약(033-345-4451)또는 방문예약

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www.forest.go.kr / 033-345-4451

약용식물로 귀농·귀촌 실현해 보세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초교실 운영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귀농·귀촌희망자를 대상으로 약초교실을 운영한다.

귀농희망자와 초보자로 나눠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6월~8월까지 기초학습반에는 약용

식물의 재배 기초부터 효능, 상품화 방안, 현장실습 등 약용작물 재배기술 전반에 대해 다룬다. 9월~10월까지 심화학습반에서는 국내 주요 작물별 현장 재배 기술을 교육한다. 또 선도농가의 현장 체험답도 들을 수 있다.

장소는 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충북 음성)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40명을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6월 5일까지 전화(043-871-5577, 차은정)로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다.

한편 지난해 약초교실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약용작물 재배에 대한 기초부터 병해충 방제, 상품화방안까지 약초 전반에 대한 것을 접할 수 있어 영농정착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의견이 93%였다.

문의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043-871-5577

고급 별장 대신 농지의 터줏대감이 되고 있는 실속형 주거 농막



개인 소유 농지에 농막 설치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처럼 번졌던 별장형 주택 조성 붐이 농막에 대한 관심으로 전향되면서 농막은 새로운 농지주택문화화를 이끌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 단순한 휴식에서 실용성 추구로 변화되고, 정부의 규제 완화와 이와 같은 농막 조성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 20㎡까지 농막 설치 가능

우선 농막은 무엇인가. 농막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 농막의 사전적 의미는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집을 말한다. 다시 말해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 농약, 비료, 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한 창고이다. 정부는 논이나 밭, 과수원 등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막은 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농막도 주택 공간처럼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해져 간단한 취사 및 샤워도 할 수 있다.

전기 수도 가스 설치 가능한 소형 주거 공간

“종전까지 농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택은 전망 좋은 별장형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급 별장은 실내 청소는 물론 정원 관리가 어려워 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기도에서 (주)스마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이영주 대표는 이와 같은 불편 때문에 관리가 쉽고 건설 비용도 저렴한 소형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까지 재투자 목적에 두었던 땅의 가치를 “전원생활을 즐기며 농사를 지으려는 실용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소형집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인들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농막 설치 규제 완화는 작은집 중에서도 특히 주거가 가능한 농막 조성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결정타가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하우스와 같은 이동식 농막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도 늘어나 설치비용이 더욱 저렴해졌으며, 관리도 용이해 인기를 부추기고 있다.

종류 및 설치비용 다양

농막은 종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기존 농막의 유형은 콘테이너 박스가 대부분이어서 300만원 정도에서 설치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목재를 이용한 고급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이동식 목재 농막의 경우 1150만원대. 씽그대나 샤워시설을 갖출 경우 1450만원 정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목재 농막의 경우 출거나 더운 단열 현상이 줄어들고, 외관상으로도 고급스러운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라는 점이 인기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농막에는 그러나 화장실이 없다. 아직까지는 제도상 화장실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제도적 변화 유무에 귀추가 주목된다. 농막을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운반의 어려움도 있다. 트럭을 이용해 좁은 길에서는 운반이 불가능하다.

자료 제공

(주)스마트하우스 031-932-4801 / www.smarthousing.co.kr

6월 가든인 구독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16.6% OFF

정기구독 안내

가든인 1년 정기구독시 2만원 SALE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사은품 맞춤형 재배백, 꽃씨증정

무통장입금 예금주: 벽화수(주)

농협 355-0023-7618-13

(입금후 꼭 가든인에 알려주십시오.)

문의 031-712-7009

가든 인 라이프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Gardenin June 2013

정성껏 만든 이번 달 〈가든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기사 등 무엇이든지 적어 〈가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채택된 글서의 주인공에게는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며, 그 결과는 다음 달 〈Gardening Reader〉 코너를 통해 발표됩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월간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voice!

▶ 애독자 명서를 발송하시면 사연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6.6% OFF

Garden in 정기구독

1년(12권) 10만원(정가 12만원)



신청하시는 분

이름	성별 (남, 여)
이메일	직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 이월간 무료 발송을 위해 발송물 주소는 꼭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애독자 명서를 발송하시면 사연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독기간 2013년 월호부터 1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 입금 (농협) 355-0023-7618-13 예금주 벽화수(주)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 031712-7009

테르메덴 50% 할인권

이용 안내

- 본 이용권은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 (사우나 이용 제외)
- 본 이용권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은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031)712-70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님, 예)
주소
직업
전화번호
나이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님, 예)
주소
직업
전화번호
나이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월간 Gardenin 6월호

발행 박화수(주)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 명예 교수

이순영 前 한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박광영

전문위원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인완식 농학 박사

우정아 경기조경경관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연 농학박사

황현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편집장 소순복 golf108@hanmail.net

취재기자 강은지 loxbeam@naver.com

정승환 saintlylove@hanmail.net

정지은 kkom18@hanmail.net

책임기자 김지태 jsummer@gmail.com

황주리 jurie777@holmail.com

편집 디자이너 변해인 bhi0429@naver.com

인쇄 부광프린팅(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전화 031-712-7009, 070-4811-2505~6

팩스 070-4811-2518



설치가 쉽고 간편한 포켓 걸이용 화분

유럽형 벽걸이 화분

포켓가든

공간 제약 없이 가볍고 간편하게
풍성한 화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 베란다, 실내 벽면 등에 간편하게 설치하세요.
평면, 난간, 곡면 등 어떤 형태의 구조물에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 포켓가든은 벽면이나 창가 등에 부착하여 식물을 식재하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 포켓이 크고 내구성이 강하여 다양한 식물을 식재 가능합니다.
- 다른 식물로의 교체가 용이하여 채소를 돌려서 재배 가능합니다.
- 아파트 베란다 창가나 거리의 도로화분 대신 고급스러운 경관 연출에 적합합니다.
- 중간 부위 조절 밴드로 자유로운 크기의 텃밭 연출이 가능합니다.
- 부직포 재질로 가볍습니다. (규격: W 50cm x H 37.5cm)
- 가정원예용으로 꽃 뿐만 아니라 상추, 쑥갓, 토마토 등 다양하게 재배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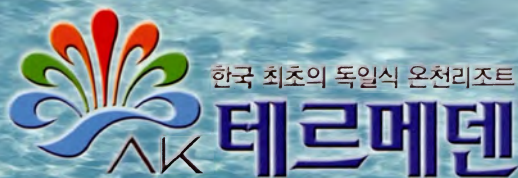
도시원예, 가든도우미 쇼핑몰

가든조아

Tel. 031-712-7001

www.gardenjoa.com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유일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치료 후 회복과 건강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테르메덴 50% 할인
월간 가든인 109p를
확인하세요!

AK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031)645-2000 www.termeden.com

